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Ⅴ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분석

책임연구원 김태준

공동연구원 홍영란 김미란 김홍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3
연구보고 18-R15-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V: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분석

책임연구원 김태준(한국교육개발원·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홍영란(한국교육개발원·선임연구위원)

김미란(한국교육개발원·연구위원)

김홍민(HR파트너컨설팅·연구원)

연구보조원 장지원(한국교육개발원·위촉연구위원)

이찬호(한국교육개발원·연구사업운영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Ⅴ:
IEA ICCS 2016”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8-57-01	청소년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Ⅴ : IEA ICCS 2016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18-57-02	청소년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Ⅴ : IEA ICCS 2016- ICCS 2016 결과보고서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18-57-03	청소년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Ⅴ : IEA ICCS 2016-사회참여역량 분석	한국교육 개발원
18-57-04	청소년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Ⅴ : IEA ICCS 2016-총괄보고서 부록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장근영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자)	성은모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모상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협력 연구 기관	한국교육 개발원	김태준 선임연구위원	진성희 교수(한밭대학교)
			최효선 교수(조선대학교)
			김균희 연구원(인하대학교)
			홍영란 선임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
			김미란 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
			김홍민 연구원(HR파트너컨설팅)

국문초록

미래사회는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에 기반한 사회정치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민주 시민적 사회참여역량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참여역량에 관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 정책연구의 5차년도 연구로서 사회참여역량의 집단적 특성의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하고 아시아 2개국과 국제비교를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 집단의 사회참여역량 수준과 변화를 진단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정의적, 행동적, 인지적 영역요인의 개념적 통합체로 사회참여역량을 규정하였으며 이 개념적 모형에 기초하여 ICCS2009와 ICCS2016에서 수집된 자료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 유형을 도출하였다. 우선 한국 청소년 집단으로 대상으로 추출한 유형은 ‘적극적 참여형’, ‘행동지향적 참여형’, ‘소극적 참여형’, ‘지적 방관주의형’, ‘제한적 참여형’이며, 2016년에는 과거에 비해 적극적 참여형과 행동지향적 참여형의 비중이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여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사회참여적 행동성향이 강한 집단적 특성을 보였다. 다음으로 한국, 홍콩, 대만 3개국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추출한 유형은 ‘적극적 행동참여형’, ‘참여활동 위주형’, ‘지식 결핍형’, ‘의식 결핍형’, ‘가치 성숙형’이며, 조사연도별, 국가별 유형분포를 분석하였는데, 우리나라 청소년은 과거에 비해 민주시민가치에 대한 의식적 성장과

참여적 활동의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또한, 다른 비교국가에 비해서도 민주시민적 가치신념에 기반한 사회적 참여행동을 수행하는 청소년들의 집단적 경향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인지중심의 학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참여 경험을 통하여 시민적 가치체계를 정립하도록 하는 교육적 환경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사회문화적으로는 학교 밖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하고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참여 인프라의 구축을 강조한다. 또한,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 수준 변화의 영향요인들에 대한 거시적이고 광범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제어 : 사회참여역량, 사회참여역량 유형, 군집분석, 시계열적 변화,
ICCS

연구요약

1.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사회적 참여역량에 관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 정책연구의 5차년도 연구로서 ICCS 2009와 ICCS2016의 측정결과와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의 특성 변화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ICCS에 참여한 아시아 지역 국가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3개국 간의 사회참여역량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국제적 차원에서의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 수준과 그 변화를 심층적으로 진단하고자 하였다.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참여역량을 개인수준의 역량개념으로 접근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사회참여역량의 하위요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 구분되는 집단적 역량 유형을 개념화하고 이에 따른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역량 수준과 그 변화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2개의 하위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하위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 특성을 ICCS2009와 ICCS2016의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을 정의적, 행동적, 인지적 요인의 복합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하위요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역량을 군집분석을 통해 유형화하고 조사연도 간 유형분포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 두 번째 하위연구는 세계적 시민성 관점에서 사회참여역량을 모형화하고, 하위요인의 특성을 반영한 군집분석을 통하여 사회참여역량을 유형화하고, ICCS2009와 ICCS2016에서 나타난 한국, 홍콩, 대만 청소년의 역량유형 분포를 비교분석하였다.
- 역량유형 분포의 차이 및 변화의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하여 크게 3가지 범주의 배경요인(개인수준, 가정수준, 학교수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의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기에 ICCS2009와 ICCS2016에 공통으로 포함된 요인과 측정문항을 활용하였다.

3. 주요 결과

1) 한국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 유형의 분포 변화

- ICCS2009와 ICCS2016에서 측정된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은 ‘적극적 참여형’(유형1), ‘행동지향적 참여형’(유형2), ‘소극적 참여형’(유형3), ‘지적 방관주의형’(유형4), ‘제한적 참여형’(유형5)으로 유형화되었다.
- 역량유형의 분포 양상에 있어서 2009년과 2016년에 뚜렷한 변화가 확인되었다. 2009년도에는 지적 방관주의형(37.1%)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지적 방관주의형, 제한적 참여형과 함께 전체 빈도의 98%를 차지할 정도 지배적

이었으며, 적극적 참여형(0.7%)과 행동지향적 참여형(1.3%)의 비중은 매우 미미하였다. 이는 과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사회참여에 대한 시민적 가치와 지식이 부족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참여활동에 제한적이거나 소극적이었다.

- 한편, 2016년에는 적극적 참여형(50.6%)이 지배적인 유형이었고, 행동지향적 참여형(41.7%)과 함께 전체 빈도의 92.3%를 차지하였다. 소극적 참여형(2.7%), 지적 방관주의형(2.3%), 제한적 참여형(2.6%)의 비중은 매우 미미하였다. 이러한 역량유형 분포 양상은 시민적 사회참여에 대한 가치 및 지식 수준이 높고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참여 행동 수준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가치신념이 미성숙하고 지식수준이 낮더라도 행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사회참여활동에 관여하는 경향도 확인되었다.
- 개인, 가정, 학교수준의 배경요인별로 역량 분포의 변화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우선 개인 및 가정수준의 요인에서는 분포 양상의 유의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
- 학교수준 배경요인에 따른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우선 지역사회 규모의 경우, 규모가 클수록 2016년에는 적극적 참여형의 분포 비중이 대체로 증가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이 시민참여와 관련한 학습을 하고 실제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현재의 대도시가 시골지역에 비해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해될 수 있다.
- 학교 내 교사의 참여적 풍토 수준은 2009년에 비해 2016년이 높았으며, 참여적 풍토 수준이 낮은 학교 집단에서는 조사연도 간 분포 변화의 폭이 줄어들었다.
-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 밖 학생참여 수준에 따라서도 조사연도 간 분포 양상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 연계활동 수준은 2009년에 비해 2016년이 높았고 이는 과거에 비해 청소년들은 학교를 통해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과거에 비해 적극적이고 행동지향적인 참여역량 유형이 증가한 것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아시아 3개국 사회참여역량 유형의 비교 및 변화

- ICCS2009와 ICCS2016에서 측정된 3개국의 사회참여역량은 ‘적극적 참여형’(유형1), ‘참여활동 위주형’(유형2), ‘지식 결핍형’(유형3), ‘의식 결핍형’(유형4), ‘가치 성숙형’(유형5)로 유형화되었다.
- 전반적으로 3개국 모두 조사연도 내 ‘가치 성숙형’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컸으며, ‘의식 결핍형’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작았다. 이는 과거(2009년)에는 3개국 청소년들의 시민적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 부족하였다면, 현재(2016)에는 성숙된 민주시민 가치와 지식을 갖추고 사회적 참여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역량 수준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 행동을 통한 사회적 참여에 있어서는 국가 간 혼재된 결과를 보였다.
-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역량유형별 분포 비중이 2009년에는 의식 결핍형-가치 성숙형-지식 결핍형-적극적 참여형-참여활동 위주형 순으로 의식 결핍형이 지배적인 유형이었으나 2016년에는 가치 성숙형-적극적 참여형-지식 결핍형-의식 결핍형-참여활동 위주형으로 가치 성숙형이 대표 유형인 분포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역량유형의 분포 결과에 기초하면 2009년도에는 시민적 사회참여에 대한 가치 및 인식 수준이 낮고 행동수준의 사회적 참여활동 수준이 적극적이지 않았다면 2016년도에는 성숙한 민주시민 가치와 지식을 바탕으로 학교 내외에서 사회적 참여활동을 전개하는 집단적 경향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홍콩 청소년들의 경우, 역량유형의 분포 비중이 2009년에는 지식 결핍형-의식 결핍형-적극적 참여형-가치 성숙형-참여활동 위주형 순이었으며 2016년에는 가치 성숙형-지식 결핍형-적극적 참여형-의식 결핍형-참여활동 위주형

순으로 역량의 분포 양상이 변화하였다. 이러한 역량 분포의 양상에 기초하면 과거에 비해 시민적 사회참여에 대한 가치 및 인식 수준이 향상되었으나, 행동수준의 사회참여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 대만 청소년들의 경우, 2009년의 역량유형 분포 비중은 가치 성숙형-의식 결핍형-적극적 참여형-지식 결핍형-참여활동 위주형 순이었으며 2016년에는 가치 성숙형-적극적 참여형-지식 결핍형-의식 결핍형-참여활동 위주형으로 가치 성숙형이 지배적인 유형인 분포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역량분포에 기초하면, 사회적 참여와 관련한 지식의 습득 수준인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으나, 성숙한 시민가치와 지식에 기반하여 적극적으로 사회참여행동을 전개하는 경향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사연도 간 역량유형 분포의 차이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시민적 사회참여에 대한 가치신념과 행동적 참여에 있어서 성장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 역량유형별 분포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적극적 참여형의 경우, 한국은 다른 비교국가에 비해서 적극적 참여형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고 오히려 다른 국가는 과거에 비해 그 비중이 줄어들었다. 참여활동 위주형의 경우, 한국은 과거에 비해 늘어났고 다른 비교국가는 줄어들었다. 지식 결핍형의 경우, 대만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고 한국과 홍콩은 변화량이 미미하였다. 의식 결핍형의 경우, 3개국 모두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으며, 특히 한국의 감소 폭(50.1%→11.6%)이 두드러졌다. 가치 성숙형의 경우, 3개국 모두 과거에 비해 비중이 약 2배 증가하였다.

4. 제언

-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기초하여 교육, 사회문화, 연구 영역별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 학교의 시민교육은 지식 중심의 인지교육에서 벗어나 시민적 사회참여에 대한 가치신념을 내면화하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적 활동을 지지하는 학교 풍토를 조성하고 주제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 제공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참여활동은 청소년들의 참여적 행동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바, 시민참여와 관련한 성숙한 가치신념과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참여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학교 밖, 또는 학교와 연계하는 사회문화적 인프라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 수준 및 특성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기여한 요인들을 제한적인 수준에서 탐색하였다.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 개발에 기여하는 우리나라 사회와 학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 및 학교 수준의 영향요인들을 탐색하고 이들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체계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Ⅴ: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분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3
연구보고 18-R15-2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6

II. 이론적 배경 11

1. IEA의 국제시민교육연구(ICCS) 13

2.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의 개념적 접근 14

III. 연구결과 17

1. 한국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유형의 시계열적
비교분석(ICCS2009-ICCS2016) 19

2. ICCS아시아 3개국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 유형
시계열적 국제비교 분석(ICCS2009-ICCS2016) .. 78

IV. 결론 및 정책 제언	93
1. 결론	95
2. 정책 제언	98
참고문헌	101
부록	107

표 목차

표 Ⅰ- 1	ICCS 한국 표집 및 조사내용	6
표 Ⅰ- 2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 시계열적 국제 비교분석	7
표 Ⅲ- 1	분석용 ARM 문항	21
표 Ⅲ- 2	교실개방성 문항	23
표 Ⅲ- 3	학교 밖 참여 항목	23
표 Ⅲ- 4	학교 내 참여 항목	23
표 Ⅲ- 5	사회참여역량 유형 분석을 위한 배경요인	25
표 Ⅲ- 6	사회참여역량 하위요인별 평균비교	25
표 Ⅲ- 7	배경요인 기술통계치 요약	27
표 Ⅲ- 8	5군집 모형의 군집별 역량요인 평균	29
표 Ⅲ- 9	군집유형별 사회참여역량 하위요인 수준	29
표 Ⅲ-10	조사연도에 따른 유형별 빈도 및 비율	31
표 Ⅲ-11	성별에 따른 역량유형 분포	34
표 Ⅲ-12	기대학력 수준에 따른 역량유형 분포	37
표 Ⅲ-13	부모의 최종학력 수준 분포 비율(조사연도 내 비율)	42
표 Ⅲ-14	부의 최종학력 수준에 따른 역량유형 분포	42
표 Ⅲ-15	모의 최종학력 수준에 따른 역량유형 분포	47
표 Ⅲ-16	조사연도 간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도 평균 및 평균차이 검증	51
표 Ⅲ-17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도에 따른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51
표 Ⅲ-18	학교규모에 따른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56
표 Ⅲ-19	지역사회 규모에 따른 조사연도 간 역량유형 분포 비율	61
표 Ⅲ-20	교사의 참여도 수준에 따른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비율	65
표 Ⅲ-21	교사의 태도 수준에 따른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68
표 Ⅲ-22	지역사회 연계 수준에 따른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	71

표 Ⅲ-23	학교 자치성 수준에 따른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74
표 Ⅲ-24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측정 문항	79
표 Ⅲ-25	바람직한 시민행동 항목	80
표 Ⅲ-26	사회적 양성평등 인식 측정 문항	81
표 Ⅲ-27	사회적 인종 및 민족평등 인식 측정 문항	81
표 Ⅲ-28	정부 및 시민기관 대상 항목	82
표 Ⅲ-29	사회참여역량 하위요인별 평균	83
표 Ⅲ-30	5군집 모형의 군집별 역량요인 표준화 평균	84
표 Ⅲ-31	군집유형별 사회참여역량 하위요인 수준	84
표 Ⅲ-32	조사연도별 3개국 사회참여역량 유형 빈도 및 비율	87

그림 목차

그림 Ⅲ- 1	사회참여역량 유형 시계열 분석 틀	20
그림 Ⅲ- 2	조사연도에 따른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32
그림 Ⅲ- 3	남학생 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34
그림 Ⅲ- 4	여학생 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35
그림 Ⅲ- 5	2009년도 남학생 및 여학생 집단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36
그림 Ⅲ- 6	2016년도남학생 및 여학생 집단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36
그림 Ⅲ- 7	4년제 대학 이상 수준 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38
그림 Ⅲ- 8	전문대학 수준 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38
그림 Ⅲ- 9	고등학교 수준 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39
그림 Ⅲ-10	중학교 졸업 이하 수준 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40
그림 Ⅲ-11	2009년도 기대학력 수준별 유형 분포 그래프	40
그림 Ⅲ-12	2016년도 기대학력 수준별 유형 분포 그래프	41
그림 Ⅲ-13	4년제 대학 이상 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43
그림 Ⅲ-14	전문대학 졸업 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44
그림 Ⅲ-15	고등학교 졸업 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45
그림 Ⅲ-16	중학교 졸업 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45
그림 Ⅲ-17	중학교 미졸업 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46
그림 Ⅲ-18	4년제 대학 이상 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47

그림 Ⅲ-19	전문대학 졸업 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48
그림 Ⅲ-20	고등학교 졸업 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49
그림 Ⅲ-21	중학교 졸업 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	50
그림 Ⅲ-22	중학교 미졸업 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50
그림 Ⅲ-23	관심도 상위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	52
그림 Ⅲ-24	관심도 중위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	53
그림 Ⅲ-25	관심도 하위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	54
그림 Ⅲ-26	2009년도 관심도 집단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54
그림 Ⅲ-27	2016년도 관심도 집단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55
그림 Ⅲ-28	901명 이상 학교규모 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57
그림 Ⅲ-29	601~900명 학교규모 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58
그림 Ⅲ-30	301~600명 학교규모 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59
그림 Ⅲ-31	300명 이하 학교규모 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59
그림 Ⅲ-32	2009년도 학교규모 수준 집단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60
그림 Ⅲ-33	2016년도 학교규모 수준 집단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60
그림 Ⅲ-34	대도시 지역사회 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62
그림 Ⅲ-35	중도시 지역사회 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62
그림 Ⅲ-36	도시 지역사회 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63
그림 Ⅲ-37	소도시 지역사회 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64
그림 Ⅲ-38	시골지역사회 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64
그림 Ⅲ-39	교사 참여도 상위집단의 조사연도 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66

그림 Ⅲ-40	교사 참여도 하위집단의 조사연도 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66
그림 Ⅲ-41	2009년도 교사 참여도 수준에 따른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67
그림 Ⅲ-42	2016년도 교사 참여도 수준에 따른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68
그림 Ⅲ-43	교사의 태도 상위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69
그림 Ⅲ-44	교사의 태도 하위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69
그림 Ⅲ-45	2009년 교사의 태도 수준 집단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70
그림 Ⅲ-46	2016년 교사의 태도 수준 집단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70
그림 Ⅲ-47	지역사회 연계 상위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72
그림 Ⅲ-48	지역사회 연계 하위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72
그림 Ⅲ-49	2009년 지역사회 연계 하위집단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73
그림 Ⅲ-50	2016년 지역사회 연계 하위집단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74
그림 Ⅲ-51	학교 자치성 상위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75
그림 Ⅲ-52	학교 자치성 하위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76
그림 Ⅲ-53	2009년도 학교 자치성 수준집단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77
그림 Ⅲ-54	2016년도 학교 자치성 수준집단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77
그림 Ⅲ-55	사회참여역량 유형의 시계열적 국제비교 분석 모형	78
그림 Ⅲ-56	2009년도 국가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88
그림 Ⅲ-57	2016년도 국가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89
그림 Ⅲ-58	한국의 조사연도별 유형 분포 그래프	90
그림 Ⅲ-59	홍콩의 조사연도별 유형 분포 그래프	90
그림 Ⅲ-60	대만의 조사연도별 유형 분포 그래프	91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내용
- 3. 연구방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미래의 민주시민사회는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견고한 민주적, 시민적 가치 신념에 기반하여 사회발전의 주체로서 사회 및 정치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로서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적 참여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의 시민참여적 역량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비교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는 국제 교육성취도 평가협회(IEA,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청소년 시민의식 국제비교연구(ICCS,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이다. 2009년과 2016년에 이루어진 ICCS는 세계 청소년들의 민주주의와 시민성에 대한 가치신념과 태도, 행동적 참여, 지식 수준을 측정하여 참여국간에 비교 분석하였으며 시계열적인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국제적 차원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시민참여적 역량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지표와 자료를 제공한다.

한편, 국내에서도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역량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연구는 IEA의 ICCS에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이 참여하여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협동연구이다(김태준, 박인영, 이호경, 오민아, 2016).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삶의 영위에 요구되는 생애핵심역량을 규명하기 위하여 5개 영역으로 이루어진 청소년 역량모형을 제시하였다(장근영 외, 2016). 이 영역 중 사회참여 역량을 민주시민 및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타인과 협력하여 시민적 역할과 책임을 이행하는 역량이라 정의하고 ICCS에서 제시된 민주적 시민성에 대한 개념적 틀에 기초하여 개인, 공동체, 세계 수준의 시민성 요인의 통합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였다(김태준, 백선희, 2014; 김태준, 오민아, 이영훈, 2015; 김태준 외, 2016). 또한,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의 국제 시민의식에 관한 시계열적 비교연구에서 김태준, 홍영란, 김홍민(2017)은 아시아 지역 국가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측정한 청소년 시민의식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을 개인차원에서 이해하는데 명료한 틀을 제시하며 역량 수준과 변화에 대한 경험적인 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청소년 집단의 사회참여 역량의 특성을 질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는 개인 수준의 역량분석에 초점을 두어, 한 사회의 청소년 집단 내에 존재하는 사회참여적 특성이 무엇이고, 이러한 특성들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변화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참여역량에서 나타나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집단적 특성을 탐구하기 위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의 하위요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청소년 집단 내에 상호 구분되는 역량집단을 규명하고 이러한 역량집단의 분포 특성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사회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역량을 질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 지역 국가 청소년의 민주시민성에 대한 가치신념을 측정하는 ARM(Asian Regional Module)을 사회참여역량 모형에 포함시켜 군집 분석을 통하여 집단적 특성을 규명하고 ICCS2009와 ICCS2016에서 나타난 집단적 역량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그 변화의 양상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역량 수준과 특성을 ICCS에 참여한 2개 아시아 지역 국가(홍콩, 대만)와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역량 변화가 가지는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ICCS2016에 참여한 비교국가(홍콩, 대만)의 ARM자료가 IEA에서 처리되지 않아, ICCS 참여국 공통으로 사용된 민주시민성에 대한 가치신념 측정요인을 사회참여역량 모형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가 미래 민주사회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역량 개발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 교육, 사회문화, 학문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1)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 시계열적 비교분석

IEA의 ICCS2009와 ICCS2016에서 측정된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ICCS의 시민성 측정 틀에 기초하여 아시아 지역국가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정의적 영역, 행동적 영역, 인지적 영역의 요인들로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을 모형화 하였고, 2009년도와 2016년도에 수집된 ICCS 자료를 통합하여 우리나라 청소년 집단에서 나타난 상호 구분되는 역량유형을 추출하였다. 이는 사회참여역량의 수준과 변화를 청소년 개인 수준을 넘어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집단적 특성을 진단하고 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하여 개인 수준, 가정 수준, 학교 수준의 배경요인에 따라 다각도로 유형의 분포 특성 및 변화를 살펴보았다.

(2)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 국제 비교분석(아시아 3개국)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 수준을 국제적 차원에서 진단하기 위하여 ICCS에 참여한 2개 아시아 지역 국가(홍콩과 대만)와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을 정의적 요인, 행동적 요인, 인지적 요인의 통합적 개념으로 모형화 하였고, ICCS 3개국 통합자료를 바탕으로 청소년 집단 내에 존재하는 사회참여역량 유형을 추출하였고, 유형의 분포를 국가 간 시계열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각 국가의 역량 특성과 그 변화를 진단하였다.

3.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표본

1) 한국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 시계열적 비교분석

사회참여역량의 측정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표집된 총 7,875명의 청소년들이 본 조사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소속 학교장은 학교수준의 배경요인 측정을 위한 표본 집단으로 포함되었다.

표 I -1 ICCS 한국 표집 및 조사내용

	ICCS2009	ICCS2016
모집단	중학교 2학년 재학생 및 소속 학교장	
표집틀	각국의 중학생 사회인구학 통계자료	
표본수	5,254명	2,621명
표집방법	모집단 추정을 위한 비례대표추출 (IEA DPC에서 수행)	
조사내용	ARM, 시민지식, 시민참여활동, 학교특성 등	

2)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 시계열적 국제 비교분석

사회참여역량의 국제 비교분석을 위한 조사대상 모집단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며 최종 표집수는 총 22,550명(한국: 7,875명, 홍콩: 5,555명, 대만: 9,120명)이었다. 또한, 소속 학교장은 학교수준의 배경요인 측정을 위한 표본 집단으로 포함되었다.

표 1-2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 시계열적 국제 비교분석

	ICCS2009	ICCS2016
모집단	중학교 2학년 재학생 및 소속 학교장	
표집틀	각국의 중학생 사회인구학 통계자료	
표본수	한국: 5,254명 홍콩: 2,902명 대만: 5,167명	한국: 2,621명 홍콩: 2,653명 대만: 3,953명
표집방법	모집단 추정을 위한 비례대표추출 (IEA DPC에서 수행)	
조사내용	민주시민 가치신념, 시민지식, 시민참여활동, 학교특성 등	

(2) 조사도구

1) 사회참여역량 모형

본 연구의 2개 하위연구에서 적용한 사회참여역량 모형의 하위영역은 정의영역, 행동영역, 인지영역으로 동일하나 정의영역에 포함된 요인에는 차이가 있다.

가) 정의영역

우선,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을 시계열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하위 연구에서는 정의영역에 ‘아시아 시민의식’과 ‘교실개방성’이 포함되었다. 아시아 시민의식은 ARM에 의해 측정되었다. 김태준 외(2017)는 ARM의 요인 분석을

통하여 44개 문항으로 8요인 모형을 추출하였는데 그 결과를 본 연구에 반영하였다. 교실개방성은 교실 내 참여적 활동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총 6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한편,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을 3개국 간 비교 분석하는 하위연구에서는 정의영역에 ICCS에서 아시아 지역 국가에 한정된 ARM 대신 모든 참여국에 적용한 민주주의와 시민성에 대한 가치신념 측정문항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가치신념은 민주주의 가치(7문항), 시민행동 가치(12문항), 사회적 양성평등(7문항), 사회적 인종평등(5문항), 국가에 대한 신뢰(11문항)로 총 41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각 요인의 측정문항은 제3장 연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 행동영역

행동영역에는 청소년의 ‘학교 밖 참여’와 학교 내 참여’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 학교 밖 참여는 학교 밖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단체 활동에 참여하여 참여적 활동을 전개한 수준을 의미하며 총 7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학교 내 참여는 학교 및 학급운영 활동에 참여하는 수준을 의미하며 총 6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각 요인의 측정문항은 제3장 연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 인지영역

인지영역에는 ‘시민지식’ 요인이 포함되었으며 ICCS에서 시민지식은 현대 시민사회와 그 시스템, 시민공동체 원리, 시민참여, 시민정체성에 대한 총 79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2) 배경요인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 수준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영향관계를 탐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크게 3가지 범주의 배경요인을 설정하였다. 요인별 측정을 위하여 ICCS의 학생 설문과 학교장 설문에서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선택하여 활용하였다.

가) 개인수준 요인

개인수준의 배경요인으로 '성별'과 '본인의 기대학력 수준'을 활용하였다. 성별의 하위수준은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구분하였고 본인의 기대학력은 응답자 본인이 예상하는 최종 학력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응답선택을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전문대학 졸업', '고등학교(인문계/실업계) 졸업', '중학교 졸업 혹은 중퇴'로 구분하였다.

나) 가정수준 요인

가정수준의 배경요인은 '부모의 최종학력 수준'과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이다. 부모의 최종학력 수준의 응답선택은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전문대학 졸업', '고등학교(인문계/실업계) 졸업', '중학교 졸업', '중학교 미졸업'으로 나누어져 있다.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는 정치 및 사회분야의 주제 또는 이슈에 대한 관심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수준으로 4점 척도로 나누었다.

다) 학교수준 요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시민적 참여활동은 청소년들의 시민적 참여역량 개발에 영향을 준다. 여러 연구에서 개방적 교실분위기는 시민역량과 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Hahn, 1998; Hoskins, Janmaat & Villalba, 2012; Torney-Purta, 2002). 학생들의 학교운영에의 참여 수준은 학생들의 시민적 참여역량 수준과 정적인 관계에 있다(Torney-Purta, 2002). 학교의 민주적인 풍토는 학생들이 다양한 상호작용 활동 참여에 대한 효능감(self-efficacy)와 의지(willingness)를 고양시키는데 기여한다(Benton et al., 2008).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비춰보면, 학교환경적인 요인이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역량에 유효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의 환경적 특성에 따른 사회참여역량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학교수준의 배경요인은 '학교 규모', '지역사회 규모', '교사참여적 풍토' '교사집단의 태도', '지역

사회 연계 참여활동', '학교의 자치성'이다. 학교 규모는 학생 수를 범주화하여 4개 수준으로 나누었고 지역사회 규모는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인구수를 범주화하여 5개 수준으로 나누었다. 교사참여적 풍토는 학교운영 및 관리에 교사들이 참여하는 수준을 의미하며 그 참여수준을 4점 척도로 나누었다. 교사집단의 태도는 교사가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지는 긍정적 태도를 의미하며 그 수준을 4점 척도로 나누었다. 지역사회 연계 참여활동은 지역사회 단체 또는 기관과 협력하여 진행되는 활동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준을 의미하며 4점 척도로 그 수준을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의 자치성은 교과과정 설계, 학생평가, 교사연수, 비정규 과외활동 설계 등에 있어서 학교의 자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수준을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요인의 상세 측정문항은 제3장 연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II. 이론적 배경

- 1. IEA의 국제시민교육연구(ICCS)
- 2.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의 개념적 접근



1. IEA의 국제시민교육연구(ICCS)

국제성취도평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IEA)는 청소년들이 국가적, 국제적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교육과 관련한 국제비교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IEA가 초기에 수행한 연구는 국제시민교육 연구(Civic Education Study: CIVED)이다. 이 연구 프로젝트는 연구 참여국별로 민주주의 및 시민자질, 국가정체성 및 국제관계, 사회통합 및 다양성 영역에 해당하는 지식, 기술, 태도, 행동 수준을 측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시민성을 국제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Torney-Purta, Schwille & Amadeo, 1999; Torney-Purta, Lehmann, Oswald & Schulz, 2001). 이 연구모델과 결과에 기초하여 IEA는 2차 연구 프로젝트로 국제시민교육연구(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ICCS)이다. ICCS는 연구 참여국의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청소년들의 시민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의 방향을 제시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ICCS는 청소년의 시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민주시민사회와 관련한 4가지 내용영역(시민사회와 체계, 시민사회의 원리, 시민 참여, 시민적 정체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정의적 요인(가치신념, 태도), 행동적 요인(행동의도, 행동), 인지적 요인(아는 것, 추론과

분석)을 측정모형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청소년 시민성 측정연구는 개별 참여국가의 시민성 수준의 이해뿐만 아니라 참여국 간의 수준 비교를 가능케 하였다. 현재까지 ICCS는 2009년과 2016년, 두 차례 이루어졌다. IEA의 기존 시민교육연구가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구사회의 맥락에서 이루어져, 다른 지역과의 사회, 문화적 차별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연구대상권역을 유럽지역, 라틴지역, 아시아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고유한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시민의식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 ICCS에 포함시켰다. 아시아지역 국가 중 ICCS 2009에서는 5개국(한국, 홍콩,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이, ICCS 2016에서는 3개국(한국, 홍콩, 대만)이 참여하였다.

2.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의 개념적 접근

시민사회적 참여활동은 민주사회를 발전시키는 중추적인 사회활동이며 이러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민주시민에게 요구되는 필수역량으로 간주된다(Schulz, Ainley & Jralion, 2011). 이처럼 청소년에게 있어 사회참여역량은 청소년이 현재와 미래의 시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반이 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역량에 대한 개념적 접근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역량은 20세기 중반부터 다양한 학자에 의해 개념적으로 정의되어 왔는데,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면 역할이나 과업의 효과적 수행을 가능케 하는 개인 내적인 능력요소의 통합체라 할 수 있다. 즉, 개인의 지식, 기술, 경험, 동기, 태도 등이 통합되어 행동으로 발현될 수 있는 능력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의 시민적 사회참여 역량을 개념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이 한 국가 및 세계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개인 내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역량을 정의적 영역, 행동적 영역에서의 능력요소를 아우르는 통합적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개념모형은 사회참여역량이라는 단일의 능력

수준을 의미하기 보다는 영역별 하위요인의 측정수준에 따라 다양한 역량 프로파일(competency profile)을 추출할 수 있다는데 그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Schulz et al.(2008)이 제시한 ICCS 조사들은 본 연구의 사회참여역량의 개념화를 뒷받침 하는데, 그들은 ‘시민사회와 시스템’, ‘시민원리’, ‘시민참여’, ‘시민정체성’에 대한 가치신념과 태도 수준, 행동적 참여 수준, 지식수준으로 세계 청소년들의 시민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물론 그 이후에 이루어진 ICCS관련 국제비교연구에서는 청소년 개인차원에서 각 하위요인 수준을 측정하고 분석하였지만, 개념적으로는 시민성에 대한 정의적 요인, 행동적 요인, 인지적 요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Hoskins, Saisana & Villalba(2015)의 시민역량 모형 연구도 역량의 개념적 구조에 있어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들은 시민역량의 정의적, 행동적, 인지적 능력차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4개 요인을 역량개념에 포함시켰다.

- 시민성 가치(Citizenship values)

바람직한 시민에 대한 규범적 가치를 의미하며 시민적 의무로서의 다양한 사회적 참여활동에 대한 가치 수준을 반영한다.

- 참여적 태도(Participatory attitudes)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 및 정치적 참여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의미하며 내적 정치적 효능감, 법적 저항, 선거 참여, 정치적 참여, 비공식적 참여, 자기효능감을 포함한다.

-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

기회와 권리의 사회적 평등, 민주적인 절차 공정성에 대한 가치신념을 의미하며 민주적 가치, 인종 및 민족 평등, 이민자 평등, 양성 평등, 학교에서의 참여 가치를 포함한다.

- 민주주의 지식 및 기술(Knowledge and skills for democracy)

다양한 형태로 적극적 시민성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의미하며, 민주주의적 권리, 시민적 내용지식, 정치적 이슈 해석 능력 등을 포함한다.

이처럼 본 연구의 사회참여역량에 대한 개념적 접근은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역량을 개인수준에 이해하는데 명료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사회참여역량 하위요인의 개별적 특성 및 요인 간 관계적 특성을 고려한 집단적 차원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즉, 사회참여역량의 구성영역별 특성을 반영한 역량 프로파일을 추출하고 개인 프로파일 간 관찰되는 유사성을 근거로 역량의 유형 집단을 규명하여 집단적 분포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한 국가사회 또는 국제사회 내에서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 수준을 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 ——— III. 연구결과

- 1. 한국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유형의 시계열적 비교분석
(ICCS2009-ICCS2016)
- 2. ICCS아시아 3개국 청소년의
국제시민성 유형 시계열적
국제비교 분석
(ICCS2009-ICCS2016)



1. 한국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유형의 시계열적 비교분석 (ICCS2009-ICCS2016)

본 장에서는 한국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모형에 기초하여 역량유형을 추출하고 그 유형의 분포를 2009년과 2016년을 기준으로 상호 비교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사회참여역량 유형화는 한국 청소년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회참여적 역량을 일차원적 수준에 따라 이해하는 것에서 벗어나 역량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들의 특성과 그 수준을 고려하고 이러한 정보들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역량의 전체적 모습, 의미를 다각도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을 모형화 하였고, 이 모형을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통하여 역량의 특성을 구분 짓는 유형을 추출하여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역량의 특성과 시간적 흐름에 따른 유형 분포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처럼 한국 청소년들의 다양한 시민적 요인에 따라 사회참여역량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의 속성을 분석하여 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각 유형 집단에 적합한 교육 필요점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가. 분석 틀

〈그림 III-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우선 한국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을 정의적, 행동적, 인지적 요인의 통합체로 개념화하고 역량의 구성요인의 수준과 특성을 분석하여 상호 구분되는 사회참여역량 유형 집단을 추출하고 각 유형 집단의 특성을 분석하여 유형을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형의 구분과 정의에 기초하여 ICCS2009와 ICCS2016에 나타난 사회참여역량 유형의 분포를 일정의 분류변인(개인수준, 가정환경수준, 학교수준)에 따라 그 분포 특성을 살펴보고 시간에 따른 분포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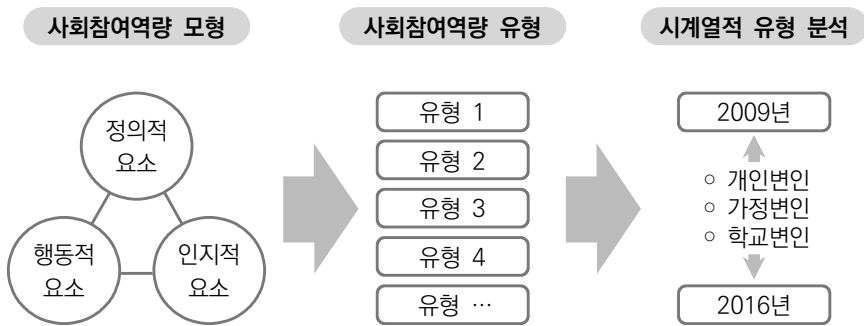


그림 III-1 사회참여역량 유형 시계열 분석 틀

1) 사회참여역량 모형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국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은 개념적으로 세 가지 영역(정의적, 행동적, 인지적 영역)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의적 영역에 해당하는 요인으로 아시아 청소년 시민의식(Asian Regional Module, 이하 ARM)과 교실개방성을 포함시켰다. ARM은 원래 5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4(김태준 외, 2017)의 결과를 활용하여

최종 44개 문항을 분석 문항으로 선택하였다. 교실개방성은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참여적 토론 문화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6개 문항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표 III-1 분석용 ARM 문항

문항
모든 사람이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면 정부가 민주적이든, 비민주적이든 상관없다.
시민의 생각을 반영하고만 있다면 정부가 민주적이든, 비민주적이든 상관없다.
정부가 일을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 비민주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정부가 권력이 강할수록 시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쉽다.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항상 어른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항상 당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한다.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항상 선생님에게 순종해야 한다.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항상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
나는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 대해 배울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싶다.
우리나라 문화는 다른 나라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특한 문화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통 문화가 우리문화유산을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 전통 문화의 부분이 보존되어야 한다.
나는 우리전통문화를 보존하는 데에 책임감을 느낀다.
법은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의 편이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법원은 법을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다.
법 체계에 부정부패는 없다.
일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 관료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공무원이 그/그녀가 일하는 기관에서 그/그녀의 이익을 위해 그 기관의 재원을 사용해도 상관없다.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것은 어른들의 일이므로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선거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있더라도 지역연고자 또는 고향 출신자에게만 투표해야 하난.
우리와 연고가 있는 후보자만이 당선 이후에도 진정 우리를 위해 일할 것이다.

문항

만약에 어떤 후보자가 나의 친구나 친인척이라면 그/그녀가 그 일에 최적임자가 아니더라도 그/그녀를 뽑아야 한다.

공무원이 공공기관에 사람들을 고용할 때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공무원이 정부계약을 그 일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정치인들의 정직성과 도덕성은 그/그녀의 능력보다 중요하다.

정치적 지도자들은 도덕성의 역할모델이 되어야 한다.

정치인들은 그들의 가족이 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정치인들은 그들의 가족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정치인들은 그들의 가족구성원이 범법행위를 하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나 스스로를 아시아의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스스로를 세계의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아시아 국가들은 EU처럼 지역적인 협력을 위해 아시아연합 AU를 발달시켜야 한다.

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아시아의 경제적 성장이 자랑스럽다.

나는 아시아인인 것이 자랑스럽다.

나는 아시아 문화와 전통이 자랑스럽다.

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아시아 민주주의의 발전이 자랑스럽다.

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아시아의 인권이 성장한 것이 자랑스럽다.

법은 준수하지만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시민이 아니다.

좋은 도덕성을 가진 사람만이 좋은 시민이 될 수 있다.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보다는 도덕성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기 수양은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의 하나이다.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정신적 성숙이 중요하다.

상황에 적절하게 행동하는 사람일지라도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좋은 시민이 될 수 없다.

표 III-2 교실개방성 문항

하위요인	항목
교실개방성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격려한다.
	선생님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의견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학생들은 현재의 정치적 사건을 학급차원에서 토론한다.
	다른 학생들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학급에서 자기의견을 표명한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이슈를 토론하도록 권장한다.
	선생님들이 학급에서 이슈를 설명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준다.

표 III-3 학교 밖 참여 항목

하위요인	항목
학교 밖 참여	환경운동단체나 조직
	인권운동단체
	자원봉사단체
	기부단체
	청소년 캠페인 활동
	종교단체
	스포츠 팀

표 III-4 학교 내 참여 항목

하위요인	항목
학교 내 참여	학급토론에 적극적 참여
	학급임원 혹은 학생회의 후보자에게 투표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학생회의 토론 참여
	학급임원이나 학생회의 후보자로 출마
	방과 후 학교의 음악활동과 드라마활동에 자발적 참여

세 번째, 인지적 영역에 해당하는 요인으로 ICCS에서 측정된 시민지식을 포함시켰다. 시민지식은 현대 시민사회와 그 시스템, 시민공동체 원리, 시민참여, 시민정체성이라는 4개 영역에 대한 이해와 추론 및 적응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총 79개 문항을 통하여 시민지식 수준을 점수화하였다. 시민지식 점수는 ICCS에 참여한 각국의 표본에 공평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평균을 500점, 표준편차를 100점으로 표준화하여 산출되었다.

2) 사회참여역량 유형화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을 유형화하는 것은 역량수준이라는 1차원적 해석을 통하여 개인수준에서의 분석에서 벗어나 역량을 구성하는 요인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특정의 역량 유형을 추출하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청소년 집단의 성격과 시계열적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우선, 사회참여역량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ICCS2009와 ICCS2016에서 측정된 역량요인의 점수들을 통합, 표준화하고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은 청소년 집단 내에 존재하는 사회참여역량 특성상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파악하고 집단적 차원에서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역량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분석기법이다.

3) 사회참여역량 유형분포의 시계열적 분석

군집분석을 통하여 추출된 유형과 각 유형별 정의에 기초하여 2009년과 2016년에 측정된 한국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을 비교분석하였다. 시간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 유형 분포의 변화 양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특정의 배경요인에 따른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배경요인을 크게 개인수준, 가정수준, 학교수준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 Ⅲ-5 사회참여역량 유형 분석을 위한 배경요인

배경요인		설명
개인수준	성별	남학생/여학생
	기대학력	본인이 기대하는 최종 학력 수준
가정환경수준	학력	부모의 최종 학력 수준
	정치사회 관심도	부모의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 수준
학교수준	학교규모	전체 학생 수에 따른 학교규모 범주화
	학교소재	지역사회 인구수에 따른 학교소재지 범주화
	교사 참여도	학교운영관련 활동에의 교사 참여 수준
	교사 태도	학교에 대한 교사의 긍정적 자세, 소속감, 열의, 자긍심
	지역사회 연계활동	외부단체와 연계한 활동에의 학생 참여 수준
	학교 자치성	교과구성, 학생평가, 정규 외 활동 등과 관련한 학교활동의 자치 수준

나. 분석요인별 기초분석

1) 사회참여역량 구성요인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은 개념적으로 정의, 행동, 인지영역에 걸친 5개 요인으로 구성된다. 2009년과 2016년에 측정된 각 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평균차이는 <표 Ⅲ-6>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Ⅲ-6 사회참여역량 하위요인별 평균비교

배경변인		2009년(A)		2016년(B)		평균차이 (B-A)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정의영역	아시아 시민의식	2.97	0.264	3.03	0.308	0.06
	교실개방성	2.03	0.644	2.27	0.777	0.24
행동영역	학교 밖 참여	1.15	0.261	2.69	0.363	1.55
	학교 내 참여	1.58	0.494	2.13	0.568	0.56
인지영역	시민지식	565.91	81.546	547.85	95.459	-18.06

우선, 정의적 영역에서 아시아 시민의식의 평균 차이는 0.06으로 2016년이 2009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과거에 비해 청소년들의 시민의식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F=84.719$, $p<.001$). 교실개방성의 평균차이는 0.24로 2016년이 2009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212.775$, $p<.001$). 따라서 교실 내 사회참여적 분위기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행동적 영역에서는 청소년의 학교 밖 참여활동 수준의 평균 차이가 2016년이 2009년에 비해 1.55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과거에 비해 학교 밖 참여활동 수준이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F=45,785.056$, $p<.001$). 청소년의 학교 내 참여활동 수준의 경우, 그 평균 차이가 0.56으로 통계적 유의성($F=1,964.582$, $p<.001$)을 고려할 때, 과거에 비해 그 참여활동 수준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인지영역에서의 시민지식의 경우, 그 평균차이가 18.06으로 과거에 비해 낮아졌으며, 통계적 유의성($F=75.551$, $p<.001$)을 고려할 때, 과거에 비해 청소년의 시민지식 수준이 낮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통계적인 관점에서 2009년에 비해 정의 및 행동적 영역에서의 요인 수준이 높아졌으며, 인지적 영역에서의 요인 수준이 낮아졌다.

2) 배경요인 기초분석

한국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 유형분포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 가정, 학교 수준의 배경요인을 설정하고 각 요인의 수준별로 유형분포의 변화 양상을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개인 및 가정 수준의 배경요인 측정치는 ICCS에 참여한 응답자로부터 얻어졌으며, 학교수준의 배경요인 측정치는 각 학교의 학교장으로부터 얻어졌다. 각 배경요인의 기본적인 기술통계는 다음과 같다.

표 III-7 배경요인 기술통계치 요약

배경변인			2009년	2016년	전체	
개 인 수 준	성별	남	2,968명(56.6%)	1,387명(53.3%)	4,355명(55.5%)	
		여	2,275명(43.4%)	1,217명(46.7%)	3,492명(44.5%)	
	기대학력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3,974명(76.1%)	1,850명(71.5%)	5,824명(74.6%)	
		전문대학 졸업	809명(15.5%)	406명(15.7%)	1,215명(15.6%)	
		고등학교 졸업	388명(7.4%)	302명(11.7%)	690명(8.8%)	
		중학교 졸업 혹은 중퇴	48명(1.0%)	30명(1.2%)	78명(1.0%)	
가 정 수 준	부모 학력	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2,024명(39.1%)	1,360명(54.0%)	3,384명(43.4%)
			전문대학 졸업	595명(11.5%)	263명(10.4%)	858명(11.0%)
			고등학교 졸업	2,213명(42.7%)	837명(33.2%)	3,050명(39.1%)
			중학교 졸업	236명(4.6%)	42명(1.7%)	278명(3.6%)
			중학교 미졸업	113명(2.2%)	16명(0.6%)	129명(1.6%)
		모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1,482명(28.4%)	1,229명(48.4%)	2,711명(34.65)
			전문대학 졸업	422명(8.1%)	271명(10.7%)	693명(8.9%)
			고등학교 졸업	2,927명(56.7%)	979명(38.6%)	3,936명(50.3%)
			중학교 졸업	239명(4.6%)	43명(1.7%)	282명(3.6%)
			중학교 미졸업	114명(2.2%)	16명(0.6%)	130명(1.7%)
	부모 정치사회 관심도	부	3.13/4.00	3.21/4.00	3.16/4.00	
		모	2.84/4.00	2.98/4.00	2.88/4.00	
	학 교 수 준	학교 규모	901명 이상	3,448명(66.5%)	689명(26.35)	4,137명(53.0%)
			601~900명	1,254명(24.2%)	1,137명(43.4%)	2,391명(30.6%)
301~600명			310명(6.0%)	655명(25.0%)	965명(12.4%)	
300명 이하			171명(3.3%)	140명(5.3%)	311명(4.0%)	
지역사회 규모		100만 이상 도시	2,649명(52.2%)	734명(31.7%)	3,383명(45.8%)	
		10만~100만 도시	1,730명(34.1%)	976명(42.25)	2,706명(36.6%)	
		1.5만~10만 도시	243명(4.8%)	305명(13.2%)	548명(7.4%)	
		0.3만~1.5만 도시	273명(5.4%)	215명(9.3%)	488명(6.6%)	
		0.3만 미만 시골지역	184명(3.6%)	85명(3.7%)	269명(3.6%)	
교사 참여도		2.86/4.00	2.98/4.00	2.90/4.00		
교사 태도		3.54/4.00	3.69/4.00	3.59/4.00		
지역사회 연계		2.40/4.00	2.54/4.00	2.44/4.00		
학교 자치도		3.24/4.00	3.63/4.00	3.37/4.00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비는 55.5%:44.5%로 남학생의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양 조사연도에도 비슷한 비율 차이를 보였다. 기대학력 수준에 있어서는 기대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비율이 높았다. 부모의 최종학력 수준의 경우, 2009년에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과 '고등학교 졸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2016년에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상대 비중이 커졌다. 대체적으로 부모의 학력수준은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도의 경우, 2009년과 2016년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과거에 비해 그 수준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아버지: $F=28.00$, $p<.001$; 어머니: $F=84.34$, $p<.001$). 학교 규모에 있어서는 과거에 비해 소규모화 되었다. 지역사회 규모에 있어서는 2009년에는 중도시 이상에 속한 학교의 비중이 크고 대도시인 경우가 52.2%일 정도로 지배적이었다. 2016년에는 과거에 비해 대도시의 비율이 줄어들고 중도시의 비율이 상승하였다. 교사의 참여적 풍토($F=100.89$, $p<.001$), 교사의 긍정적 태도($F=174.15$, $p<.001$), 지역사회 연계 참여활동 수준($F=119.79$, $p<.001$), 학교 자치도($F=76.98$, $p<.001$)의 2009년과 2016년간 평균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과거에 비해 그 수준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다. 사회참여역량 유형화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 구성요인들을 활용하여 응답 자료에 존재하는 역량 유형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련의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은 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응답자들 내에 존재하는 상호 구분되는 동질적인 소집단을 추출하여 응답자 개인 차원인 아닌 집단적 차원에서 사회참여역량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분석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군집분석 기법으로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절차적으로 분석과정을 기술하면, 우선 사회참여역량 구성요인들의 측정치를 표준화(Z-score)하고 군집모형 후보군을 4군집, 5군집, 6군집, 7군집 모형으로

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 각 군집의 표준화된 평균점수를 산출하고, 평균점수의 수준을 구분하기 위하여 표준점수 분포의 특성(평균=0, 표준편차=1)을 고려하여 각 군집의 평균치가 1.00보다 높으면 매우 높은 수준(HH), .50보다 크고 1.0보다 작으면 높은 수준(H), +.50에서 -.50 사이이면 중간 수준(M), -.50보다 작고 -1.00보다 크면 낮은 수준(L), 그리고 -1.00 이하이면 매우 낮은 수준(LL)으로 구분하였다. 군집모형의 측정결과를 사회참여역량의 개념적 모형, 역량의 하위요인별 수준 특성, 군집 간 상호 이질성, 해석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5군집 모형을 적용하였다(4,6,7군집 모형 추출결과 부록 참조).

표 Ⅲ-8 5군집 모형의 군집별 역량요인 평균

요인		군집				
		1	2	3	4	5
정의영역	아시아 시민의식	0.8625	-0.6805	-0.9127	0.3428	0.3028
	교실개방성	0.4538	-0.0528	-0.2389	-0.6903	0.7694
행동영역	학교 밖 참여	1.3422	1.3723	-0.6340	-0.6688	-0.5932
	학교 내 참여	0.2990	1.2438	-0.7697	-0.5400	0.3308
인지영역	시민지식	0.5590	-0.9144	-0.8368	0.5465	0.4644
빈도 (유효비율)		1,222명 (16.7%)	1,043명 (14.3%)	1,602명 (21.9%)	1,895명 (25.9%)	1,544명 (21.1%)

표 Ⅲ-9 군집유형별 사회참여역량 하위요인 수준

요인		군집				
		1	2	3	4	5
정의영역	아시아 시민의식	H	L	L	M	M
	교실개방성	M	M	M	L	H
행동영역	학교 밖 참여	HH	HH	L	L	L
	학교 내 참여	M	HH	L	L	M
인지영역	시민지식	H	L	L	H	M
빈도 (유효비율)		1,222명 (16.7%)	1,043명 (14.3%)	1,602명 (21.9%)	1,895명 (25.9%)	1,544명 (21.1%)

5군집 모형에 따른 역량유형 추출 결과에 기초하여 청소년 집단에서 나타난 사회참여역량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유형1 : 적극적 참여형

성숙한 아시아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다소 높은 수준의 시민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학교 밖에서 사회적 참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유형을 “적극적 참여형”이라 명명하였다.

- 유형2 : 행동지향적 참여형

아시아 시민의식 수준과 시민지식 수준이 낮은 반면에 학교 밖에서든 학교 내에서도든 사회적 참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유형을 “행동지향적 참여형”이라 명명하였다.

- 유형3 : 소극적 참여형

아시아 시민의식이 미성숙되어 있고 시민지식 수준도 낮으며 학교 밖, 학교 내에서의 사회적 참여활동이 소극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유형을 “소극적 참여형”이라 명명하였다.

- 유형4 : 지적 방관주의 형

높은 수준의 시민지식을 갖추고 있으나 행동으로 발휘되는 사회적 참여 활동 수준이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 유형5 : 제한적 참여형

보통수준의 시민의식과 시민지식을 갖추고 있으나 보통 수준의 학교 내 사회적 참여활동과는 달리 학교 밖 참여활동에는 소극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라. 사회참여역량 유형 시계열 분석

1) 조사연도별 사회참여역량 유형 분포

사회참여역량의 5군집 모형을 기초로 조사연도별 유형분포를 분석하였다. <표 III-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우선 2009년도에는 유형4가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유형 3,4,5가 전체 빈도의 94.1%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유형1과 유형2는 전체 빈도의 약 6%만을 차지할 정도로 미미하였다. 한편, 2016년에는 유형1이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유형1과 유형2가 전체 빈도의 84.2%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유형3, 4, 5는 전체 빈도의 약 16%만을 차지하여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이러한 조사연도에 따른 유형별 비중 차이는 <그림 III-2>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형분포의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표 III-10 조사연도에 따른 유형별 빈도 및 비율

		조사연도		전체(N=7,306)
		2009년(N=4,963)	2016년(N=2,343)	
유형1 적극적 참여형	빈도(명)	118	1,079	1,197
	비율(%)	2.4%	46.0%	16.4%
유형2 행동지향적 참여형	빈도(명)	175	895	1,070
	비율(%)	3.5%	38.2%	14.6%
유형3 소극적 참여형	빈도(명)	1,481	76	1,557
	비율(%)	29.8%	3.2%	21.3%
유형4 지적 방관주의형	빈도(명)	1,772	151	1,923
	비율(%)	35.7%	6.4%	26.3%
유형5 제한적 참여형	빈도(명)	1,417	143	1,560
	비율(%)	28.6%	6.1%	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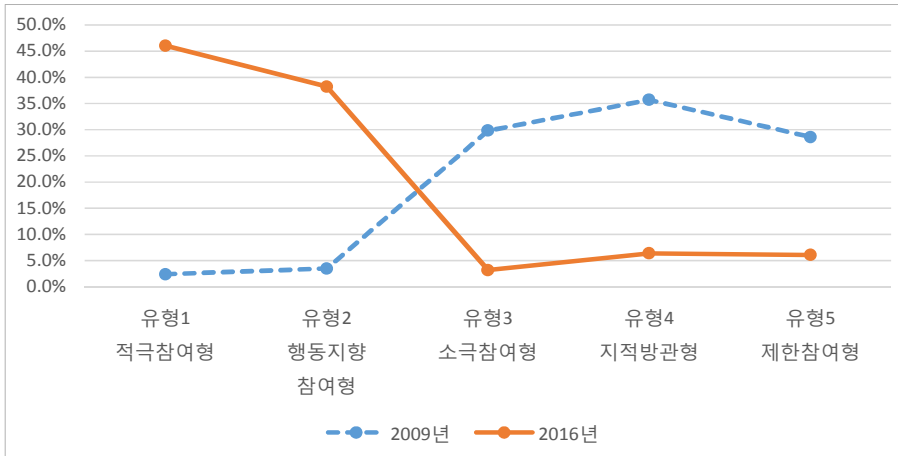


그림 III-2 조사연도에 따른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조사연도 간 유형분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Pearson's Chi-Square 값은 4,580.44(df=4, $p<.001$)으로 조사연도 간 유형분포에 차이가 유의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Cramer's V값이 .792($p<.001$)으로 나타나 조사연도와 유형분포 간의 상관성이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통계적 분석결과를 더해 조사연도에 따른 유형 분포의 특징을 요약하면, 조사연도 간 사회참여역량 유형의 분포가 상호 상반되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 2009년에는 유형 3, 4, 5가 대표적인 유형으로, 2016년에는 유형1, 2가 대표적인 유형으로 규명되었다.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에는 시민지식 수준에 상관없이 시민적 사회참여에 대한 의식적인 수준은 보통 수준이나 행동적 성향이 상대적으로 약한 유형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그 당시 한국 청소년들은 사회적 시민참여와 관련한 의식 및 지식수준에 상관없이 직접적인 참여행위를 통한 사회참여역량 발현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빈도 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지적 방관주의형' (35.7%)으로 민주주의와 시민성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및

밖에서의 참여적 행동 수준이 낮았다. 이는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역량이 행동적인 수준으로 발현되지 못하고 인지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16년에는 ‘적극적 참여형’과 ‘행동지향적 참여형’이 전체 비중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청소년 집단은 행동을 통해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향을 보였다. 상대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2009년에 비해 청소년들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외부 단체에 가입하여 집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과거에 비해 학교의 자치성이 향상되어 학생들이 학교 및 학급 내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었고 학교의 지역사회 연계 활동 수준이 향상되어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많은 학교 밖 참여활동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2) 배경요인에 따른 조사연도 간 유형분포 분석

앞서 기술한 조사연도 간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역량 유형 분포의 차이에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영향요인들을 탐색하기 위하여 개인 수준, 가정 수준, 학교 수준에서의 배경요인에 따라 세부적으로 유형분포를 비교하고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가) 개인수준 배경요인에 따른 분포 차이검증

(1) 성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 유형 분포에 있어 조사연도 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포의 차이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청소년 개인수준의 특성요인을 배경요인으로 설정하고 추가적인 세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청소년의 성별요인에 따른 조사연도 간 역량유형 분포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표 III-11 성별에 따른 역량유형 분포

성별	조사연도	역량 유형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남학생	2009년	2.6%	4.2%	33.7%	34.0%	25.5%
	2016년	39.5%	43.9%	4.4%	6.6%	5.6%
여학생	2009년	2.1%	2.6%	24.7%	38.0%	32.6%
	2016년	53.5%	31.5%	1.9%	6.3%	6.8%

유형별 분포 비중에 있어서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은 전체집단의 분포와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양 집단 모두 2009년에는 유형 3, 4, 5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유형 1과 2는 그 비중이 미미하였다. 2016년에는 양 집단 모두 유형 1과 2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유형 3, 4, 5의 비중은 미미하였다. 이러한 분포 양상의 유사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남학생 집단의 경우, 조사연도 간 역량유형 분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earson's Chi-Square=2,404.04, df=4, $p<.001$). 또한, 조사연도와 유형간의 상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매우 강한 상관성을 보였다(Cramer's $V=.770$, $p<.001$). 이는 성별을 고려하지 않은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한 교차분석의 결과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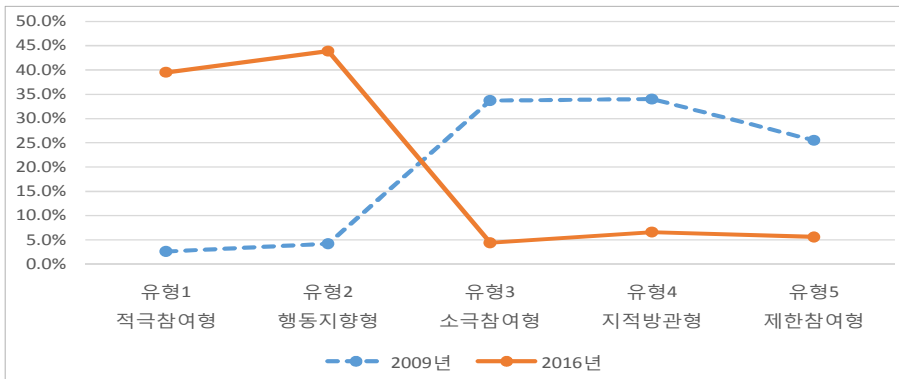


그림 III-3 남학생 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여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교차분석에서 조사연도 간 역량유형 분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Pearson's Chi-Square=2,165.05, df=4, $p<.001$). 또한, 조사연도와 유형간의 상관성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매우 강한 상관성을 보였다(Cramer's V=.817, $p<.001$).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 집단이 앞서 제시한 전체집단 및 남학생 집단과 동일한 분포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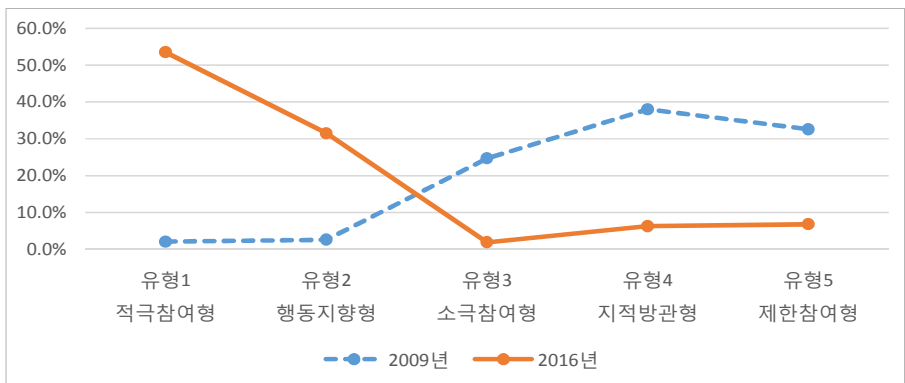


그림 III-4 여학생 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추가적으로 조사연도별로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의 역량유형 분포를 비교하였다. 2009년도에는 양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포 차이가 확인되었다(Pearson's Chi-Square=69.73, df=4, $p<.001$). 이러한 분포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에 근거하여 <그림 III-5>를 해석해보면, 2009년에는 분포 비중에 있어서 유형1과 유형2의 남녀 간 차이가 미미하였으나 유형 3은 남학생이, 유형 4와 유형 5는 여학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도 양 집단의 역량유형 분포 차이에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으나(Pearson's Chi-Square=61.10, df=4, $p<.001$). 이는 <그림 III-6>에서 볼 수 있듯이, 유형1의 비중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고 유형 2의 비중은 남학생이 높으며 나머지 유형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연도 간 남녀의 전체적인 분포 양상에는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성별에 따른 부분적인 차이를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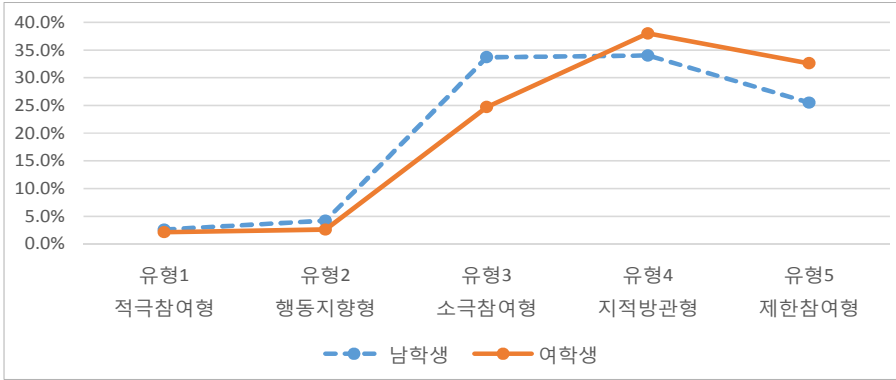


그림 III-5 2009년도 남학생 및 여학생 집단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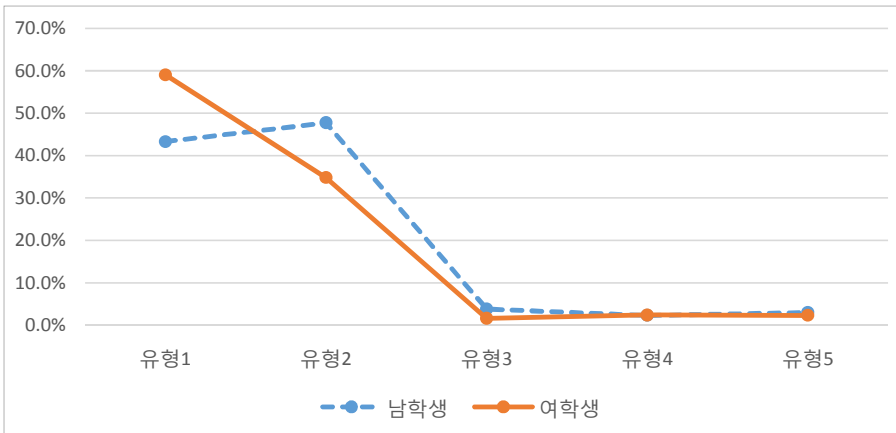


그림 III-6 2016년도 남학생 및 여학생 집단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2) 기대학력

청소년 본인이 추구하는 기대학력 수준을 개인수준의 배경요인으로 설정하여 유형분포의 양상을 세부적으로 비교하였다. 기대학력을 4개 수준으로 구분하였고 조사연도 간 수준 분포 양상은 유사하였다. 기대학력 수준에 따른 역량유형 분포는 <표 III-12>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I-12 기대학력 수준에 따른 역량유형 분포

기대학력	조사연도	역량 유형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4년제 대학 이상	2009년	2.8%	3.5%	22.9%	38.6%	32.2%
	2016년	51.8%	30.8%	3.3%	7.4%	6.7%
전문대학 졸업	2009년	1.2%	3.3%	45.1%	30.8%	19.7%
	2016년	39.4%	47.8%	4.2%	4.5%	4.2%
고등학교 졸업	2009년	0.8%	4.2%	66.0%	18.1%	10.9%
	2016년	23.5%	66.4%	1.9%	3.4%	4.9%
중학교 졸업 이하	2009년	2.3%	4.5%	61.4%	13.6%	18.2%
	2016년	12.0%	68.0%	0.0%	8.0%	12.0%

유형별 분포 비중에 있어서 기대학력 수준별 집단은 전체집단의 분포와는 대체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즉, 각 수준에서 2009년도에는 유형 3, 4, 5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2016년에는 유형 1과 2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포 양상을 보였다.

기대학력 수준별 분포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4년제 대학 이상 집단의 경우, 2009년에는 유형 4(38.6%)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2016년에는 유형 1(51.8%)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분포 변화는 통계적 검증결과에서도 지지되었다(Pearson's Chi-Square=3,249.01, df=4, $p<.001$). 대표 유형을 기준으로 하면 기대학력 수준이 4년제 대학 이상이었던 집단이 2009년에는 사회참여와 관련한 지적인 수준은 높으나, 이를 행동으로 발현하는데 소극적이었다면 2016년에는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참여와 관련한 의식 및 지적 수준이 높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참여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집단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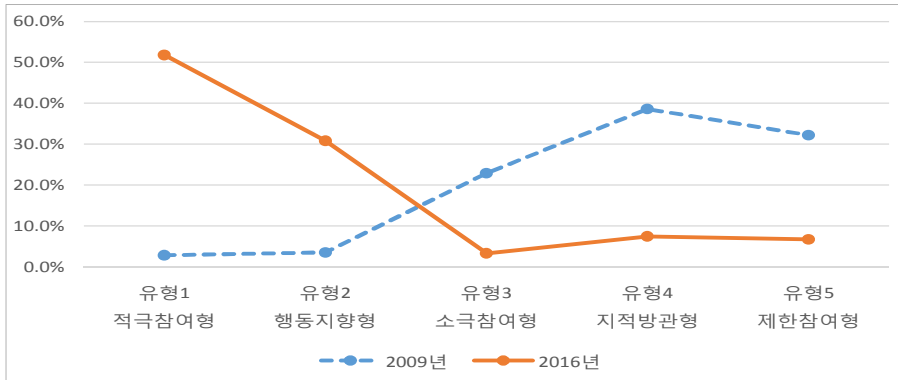


그림 III-7 4년제 대학 이상 수준 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전문대학 졸업 집단의 경우, 2009년에는 유형 3(45.1%)이 가장 비중이 컸고 2016년에는 유형 2(47.8%)가 가장 비중이 컸다. 이러한 분포 변화는 통계적 검증 결과에서도 지지되었다(Pearson's Chi-Square=783.96, df=4, $p<.001$). 대표 유형을 기준으로 하면 기대학력 수준이 전문대학 졸업이었던 집단이 2009년에는 사회참여와 관련하여 의식적, 인지적, 행동적 수준이 낮았으나, 2016년에는 사회참여의식 및 지식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수준에서의 사회적 참여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집단으로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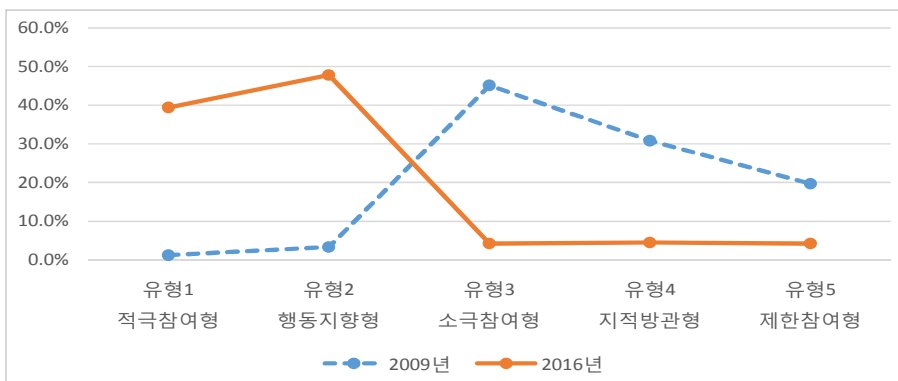


그림 III-8 전문대학 수준 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고등학교 졸업 집단의 경우, 2009년에는 유형 3(66.0%)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16년에는 유형3의 비중이 현격히 줄어들고 유형2(66.4%)가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조사연도 간 유형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earson's Chi-Square=466.62, df=4, $p<.001$). 대표유형을 기준으로 분포 변화를 해석해보면, 기대학력 수준이 고등학교 졸업인 집단은 2009년에는 사회참여에 대한 의식 및 지식수준이 낮고 행동적 참여활동이 소극적이었다면 2016년에는 행동지향적 사회참여형으로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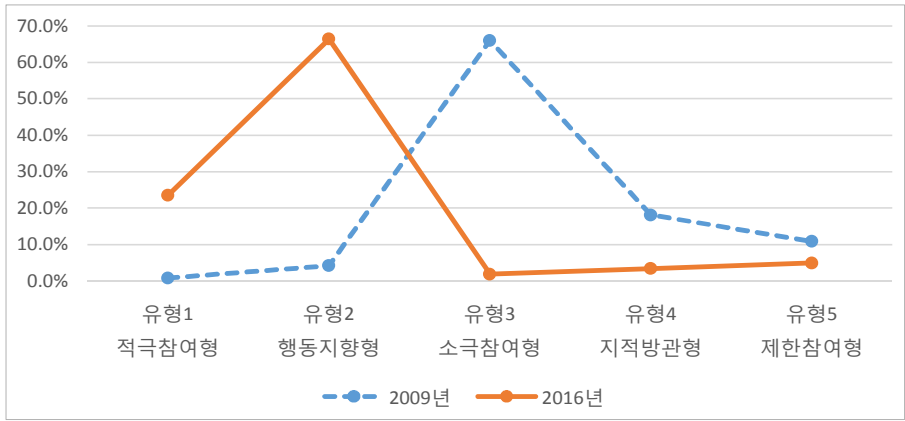


그림 III-9 고등학교 수준 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중학교 졸업 이하 집단의 경우, 2009년에는 유형 3(61.4%)이, 2016년에는 유형2(68.0%)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고등학교 졸업 집단과 유사하게 조사연도별 대표 유형이 그 비중에 있어서 매우 컸다. <그림 III-10>에 나타난 조사연도 간 유형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earson's Chi-Square=42.07, df=4, $p<.001$). 대표유형을 기준으로 분포 변화를 해석해보면, 기대학력 수준이 중학교 졸업 이하인 집단은 2009년에는 정의, 인지, 행동영역에서 수준이 낮은 소극적 참여형 집단이었다면 2016년에는 사회참여에 대한 의식 및 지식수준이 낮지만 행동적 사회참여를 활발하게 전개하는 집단으로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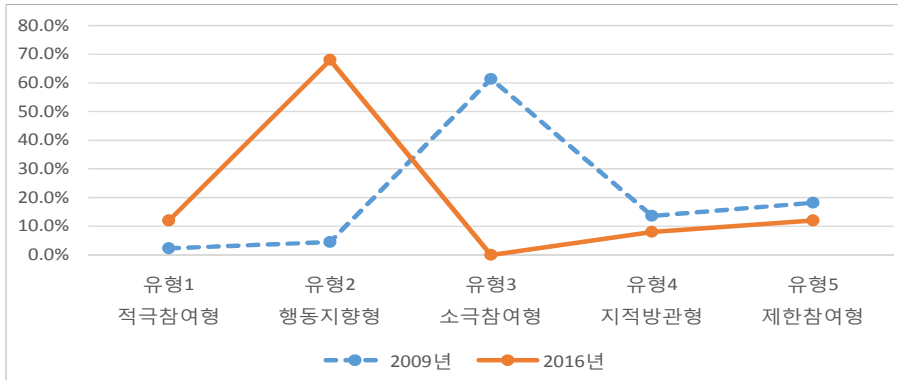


그림 Ⅲ-10 중학교 졸업 이하 수준 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추가적으로 조사연도별로 기대학력 수준 집단 간 유형분포 비중을 비교하였다. 여기서 유형분포 비중은 전체집단 내 비중을 아닌 각 수준 집단내의 비중을 의미한다. 2009년도에 나타난 각 수준집단 내 유형분포 비중을 집단 간 비교한 결과, 유형 1과 2는 집단 간 차이가 미미하였으며, 나머지 유형들은 집단 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컸다. <그림 Ⅲ-11>에 제시된 각 집단의 유형분포 비중 차이는 기대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대체로 소극적 참여형이 줄어들고, 지적 방관주의형이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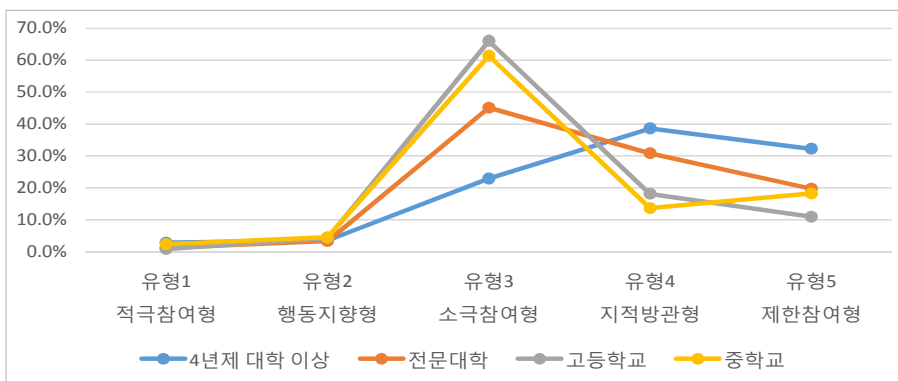


그림 Ⅲ-11 2009년도 기대학력 수준별 유형 분포 그래프

한편, 2016년도에 나타난 각 수준집단 내 유형분포 비중을 집단 간 비교한 결과, 유형 3, 4, 5에서 집단 간 차이가 미미하였으며, 유형 1과 2의 집단 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컸다. <그림 III-12>에 제시된 각 집단의 유형분포 비중 차이는 기대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적극적 참여형이 늘어나고, 행동지향적 참여형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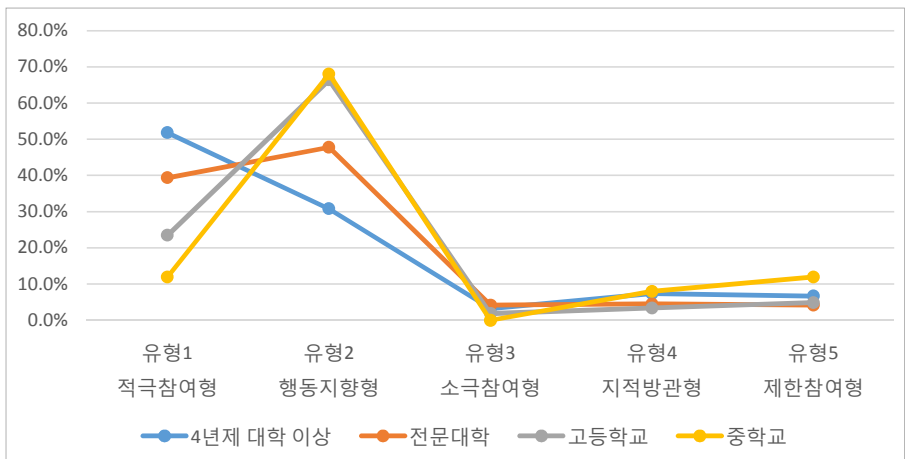


그림 III-12 2016년도 기대학력 수준별 유형 분포 그래프

나) 가정수준 배경요인에 따른 분포 차이검증

(1) 부모 학력 수준

부모의 최종학력 수준을 가정수준의 배경요인으로 설정하여 유형분포의 양상을 세부적으로 비교하였다. 최종학력을 5개 수준으로 구분하였고 수준별, 조사연도별 역량유형의 분포 비율을 분석하였다. 부모의 최종학력 수준은 2009년에 비해 2016년이 높았다. 아버지의 경우, 4년제 대학 이상인 집단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늘어난 반면 나머지 수준 집단의 비중은 줄어들었다. 어머니의 경우에는 4년제 대학 이상 집단과 전문대학 졸업 집단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늘어난 반면 나머지

수준 집단의 비중은 줄어들었다. 이처럼, 2009년에 비해 부모의 최종학력 수준은 상향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III-13 부모의 최종학력 수준 분포 비율(조사연도 내 비율)

		4년제 대학 이상	전문대학 졸업	고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중학교 미졸업
부	2009년	39.1%	11.5%	42.7%	4.6%	2.2%
	2016년	54.0%	10.4%	33.2%	1.7%	0.6%
모	2009년	28.4%	8.1%	56.7%	4.6%	2.2%
	2016년	48.4%	10.7%	38.6%	1.7%	0.6%

(가) 아버지의 최종학력

우선, 아버지의 최종학력 수준에 따른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를 살펴보면, 모든 수준 집단에서 2009년에는 유형 3, 4, 5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2016년에는 유형 1과 2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 양상을 보였다.

표 III-14 부의 최종학력 수준에 따른 역량유형 분포

기대학력	조사연도	역량 유형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4년제 대학 이상	2009년	2.7%	3.5%	20.8%	38.5%	34.6%
	2016년	52.3%	28.9%	3.8%	7.7%	7.3%
전문대학 졸업	2009년	1.9%	2.5%	33.2%	35.0%	27.4%
	2016년	40.6%	43.6%	6.4%	4.7%	4.7%
고등학교 졸업	2009년	2.3%	3.9%	34.8%	34.5%	24.5%
	2016년	39.5%	48.7%	1.9%	5.0%	4.9%
중학교 졸업	2009년	0.9%	3.5%	43.8%	30.5%	21.2%
	2016년	37.1%	54.3%	0.0%	5.7%	2.9%
중학교 미졸업	2009년	3.0%	1.0%	43.6%	29.7%	22.8%
	2016년	53.8%	46.2%	0.0%	0.0%	0.0%

최종학력 수준별로 조사연도 간 유형분포의 양상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최종학력 수준이 4년제 대학 이상인 집단의 경우, 2009년에는 유형4(38.5%)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2016년에는 유형1(52.3%)의 비중이 가장 컸다. 이러한 유형분포의 차이는 통계적 검증결과에서도 지지되었다(Pearson's Chi-Square=1,849.60, df=4, $p<.001$). 대표 유형을 기준으로 해석해보면 해당집단이 2009년에는 사회참여에 대한 지적 수준이 보통 이상의 수준인 반면, 의식적인 면이 성숙되지 않았으며 사회참여행동이 소극적인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6년에는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과 지적 수준이 높고 행동지향적인 사회참여를 전개하는 집단으로 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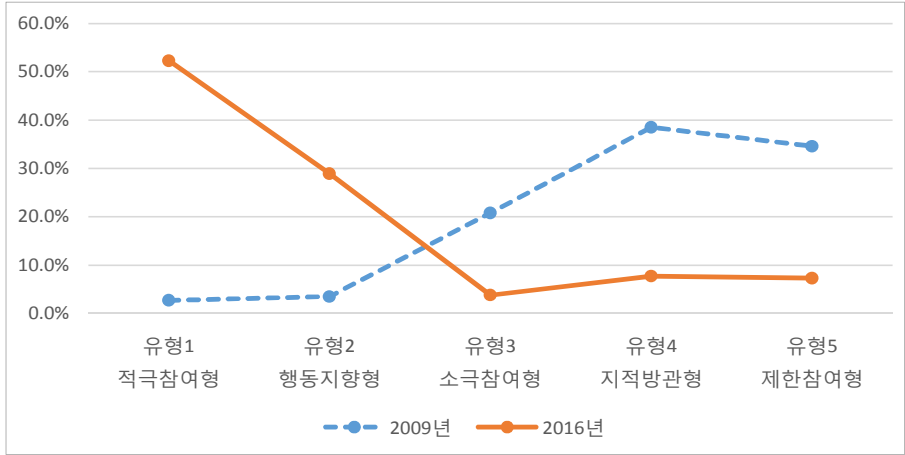


그림 Ⅲ-13 4년제 대학 이상 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아버지의 최종학력 수준이 전문대학 졸업인 집단의 경우, 2009년에는 유형3(33.2%)과 유형4(35.0%)의 비중이 상당하였으며 2016년에는 유형1(40.6%)과 유형2(43.6%)의 비중이 컸다. 이러한 유형분포의 차이는 통계적 검증결과에서도 지지되었다(Pearson's Chi-Square=525.76, df=4, $p<.001$). 대표 유형을 기준으로 해석해보면, 해당집단이 2009년에는 사회참여에 대한 지적 수준이 보통

이상의 수준이지만, 의식수준이 낮고 참여적 행동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2016년에는 사회참여에 대한 행동지향적인 사회참여를 전개하는 집단으로 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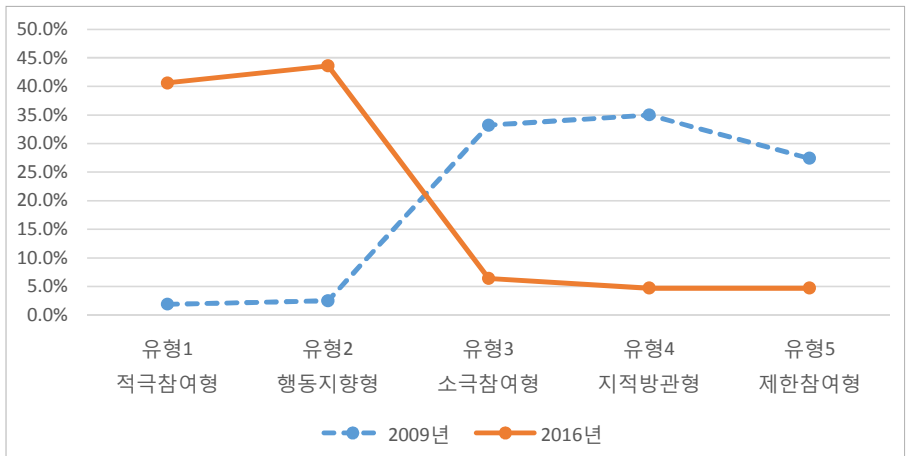


그림 III-14 전문대학 졸업 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아버지의 최종학력 수준이 고등학교 졸업인 집단의 경우, 2009년에는 유형 3 (34.8%)과 유형 4(34.5%)의 비중이 컸으며 2016년에는 유형 2(48.7%)의 비중이 가장 컸다. 이러한 유형분포의 차이는 통계적 검증결과에서도 지지되었다 (Pearson’s Chi-Square=1,857.23, df=4, $p<.001$). 대표 유형을 기준으로 해석해 보면, 해당집단이 2009년에는 사회참여에 대한 지적 수준이 보통 이상의 수준인데 비해, 의식 및 행동수준이 낮은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2016년에는 사회참여에 대한 행동을 통한 사회적 참여를 실천하는 집단으로 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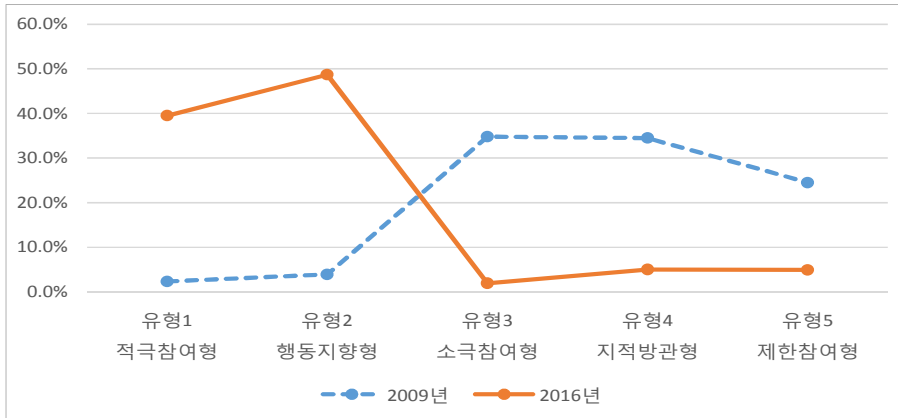


그림 Ⅲ-15 고등학교 졸업 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아버지의 최종학력 수준이 중학교 졸업 집단의 경우, 2009년에는 유형 3 (43.8%)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2016년에는 유형 2(54.3%)의 비중이 가장 컸다. 이러한 유형분포의 차이는 통계적 검증결과에서도 지지되었다(Pearson's Chi-Square= 172.42, df=4, $p<.001$). 대표 유형을 기준으로 해석해보면, 해당집단이 2009년에는 의식, 지식, 행동 면에서 사회적 참여에 소극적이었으나 2016년에는 의식 및 지식수준은 낮지만 사회참여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집단으로 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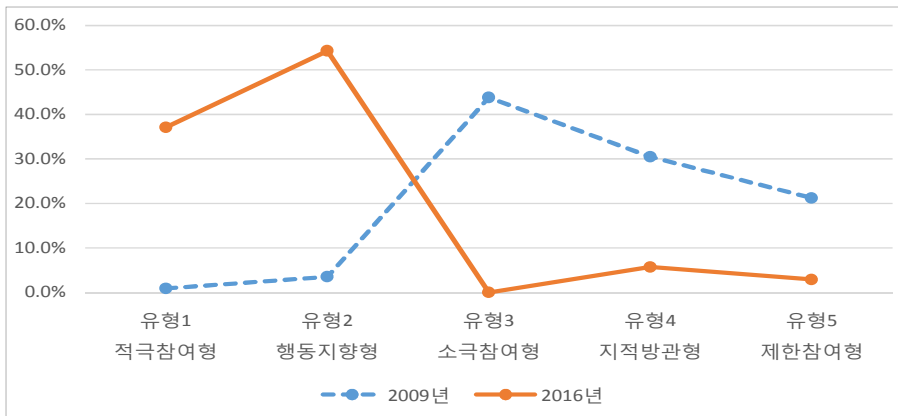


그림 Ⅲ-16 중학교 졸업 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아버지의 최종학력 수준이 중학교 미졸업 집단의 경우, 2009년에는 유형3 (43.6%)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2016년에는 유형1(53.8%)의 비중이 가장 컸다. 이러한 유형분포의 차이는 통계적 검증결과에서도 지지되었다(Pearson's Chi-Square=84.73, df=4, $p<.001$). 대표 유형을 기준으로 해석해보면, 해당집단이 2009년에는 의식, 지식, 행동 면에서 사회적 참여에 소극적이었으나 2016년에는 사회참여에 대한 의식 및 지식수준이 보통 이상이며 적극적으로 사회적 참여행동을 보이는 집단으로 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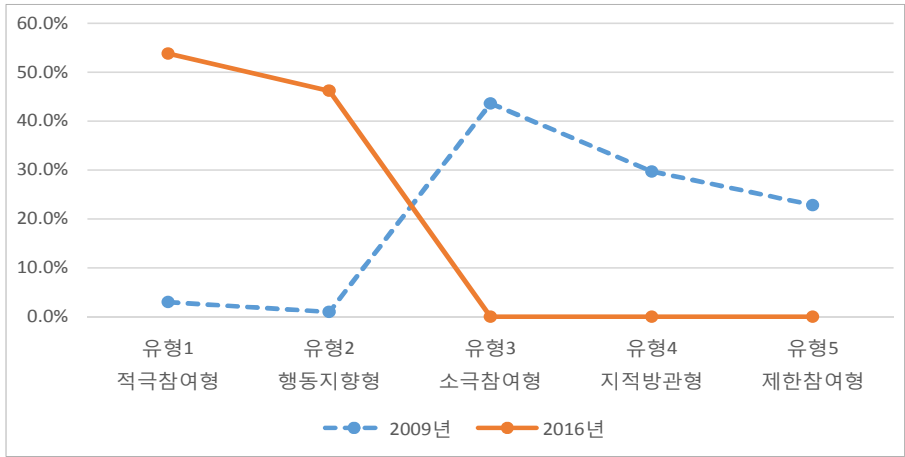


그림 III-17 중학교 미졸업 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나) 어머니의 최종학력

어머니의 최종학력 수준에 따른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를 살펴보면, 모든 수준 집단에서 2009년에는 유형 3, 4, 5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2016년에는 유형 1과 2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 양상을 보였다.

표 III-15 모의 최종학력 수준에 따른 역량유형 분포

기대학력	조사연도	역량 유형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4년제 대학 이상	2009년	3.3%	3.5%	23.3%	37.3%	32.5%
	2016년	52.2%	29.6%	3.7%	7.9%	6.6%
전문대학 졸업	2009년	1.3%	3.5%	32.0%	34.0%	29.2%
	2016년	42.7%	42.3%	6.0%	3.8%	5.1%
고등학교 졸업	2009년	2.1%	3.7%	31.2%	35.7%	27.2%
	2016년	40.5%	46.4%	1.9%	5.2%	5.9%
중학교 졸업	2009년	1.3%	2.6%	42.7%	31.7%	21.6%
	2016년	38.9%	50.0%	2.8%	5.6%	2.8%
중학교 미졸업	2009년	2.9%	1.9%	40.8%	30.1%	24.3%
	2016년	31.3%	31.3%	6.3%	12.5%	18.8%

우선, 4년제 대학 이상 집단의 경우, 2009년에는 유형 4(37.3%)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2016년에는 유형 1(52.2%)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유형분포의 차이는 통계적 검증결과에서도 지지되었다(Pearson's Chi-Square=1,461.49, df=4, $p<.001$). 대표유형을 기준으로 조사연도별 분포양상을 해석해보면, 2009년에는 사회참여관련 지식수준이 높은 수준이나 실제 행동을 통한 사회참여는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2016년에는 사회참여에 대한 성숙된 가치신념과 높은 수준의 지식에 바탕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집단으로 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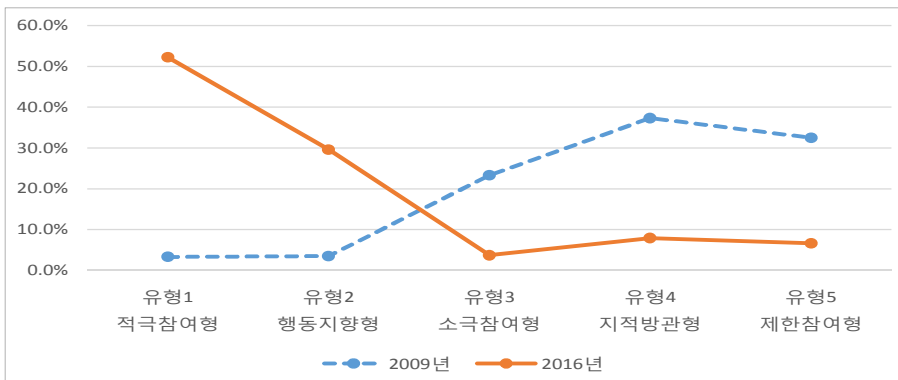


그림 III-18 4년제 대학 이상 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전문대학 졸업 집단의 경우, 2009년에는 유형 4(34.0%)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2016년에는 유형 1(42.7%)과 유형 2(42.3%)의 비중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유형분포의 차이는 통계적 검증결과에서도 지지되었다(Pearson's Chi-Square=421.20, df=4, $p<.001$). 대표유형을 기준으로 분포의 차이를 해석해보면, 2009년에는 시민적 사회참여에 대한 가치신념이 덜 성숙되고 사회참여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매우 소극적인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2016년에는 사회참여에 대한 의식 및 지식수준에 상관없이 매우 적극적인 사회참여활동을 전개하는 집단으로 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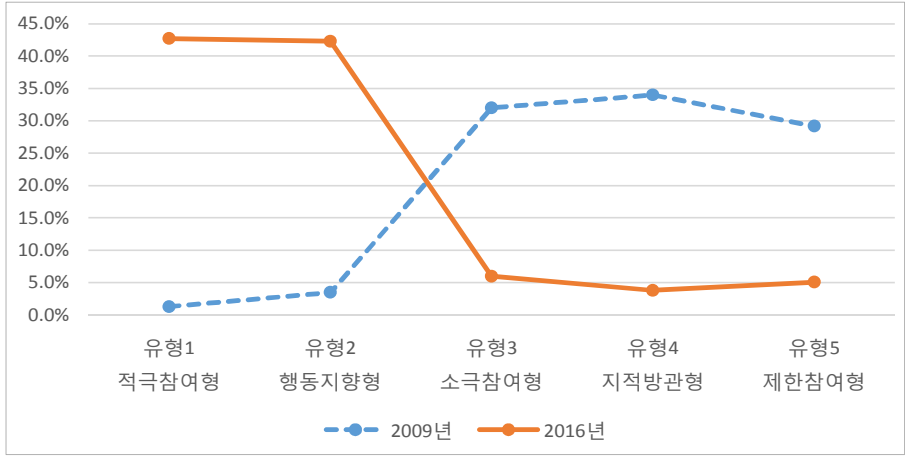


그림 III-19 전문대학 졸업 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고등학교 졸업 집단의 경우, 2009년에는 유형 4(35.7%)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16년에는 유형 2(46.4%)의 비중이 가장 컸다. 이러한 유형분포의 차이는 통계적 검증결과에서도 지지되었다(Pearson's Chi-Square=2,341.11, df=4, $p<.001$). 대표유형을 기준으로 분포 차이를 해석해보면, 2009년에는 사회참여에 대한 가치신념 수준과 행동적 사회참여 수준이 보통 이하였으며 사회참여

관련 지식이 풍부하더라도 실제 행동을 통한 사회참여에 소극적인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2016년에는 학교 내외에서 활발히 사회적 참여를 실천하는 집단으로 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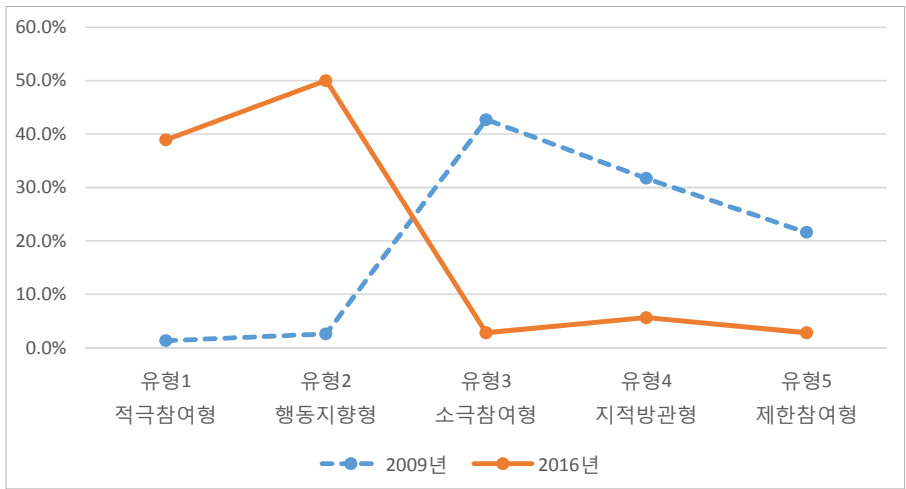


그림 Ⅲ-20 고등학교 졸업 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중학교 졸업 집단의 경우, 2009년에는 유형 3(42.7%)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2016년에는 유형 2(50.0%)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유형분포의 차이는 통계적 검증결과에서도 지지되었다(Pearson’s Chi-Square=170.86, df=4, $p<.001$). 대표유형을 기준으로 분포 차이를 해석해보면, 2009년에는 정의, 인지, 행동영역 모두에서 역량수준이 보통 이하인 특성을 보였으나 2016년에는 시민적 사회참여에 대한 가치 및 지식수준에 상관없이 사회참여적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집단으로 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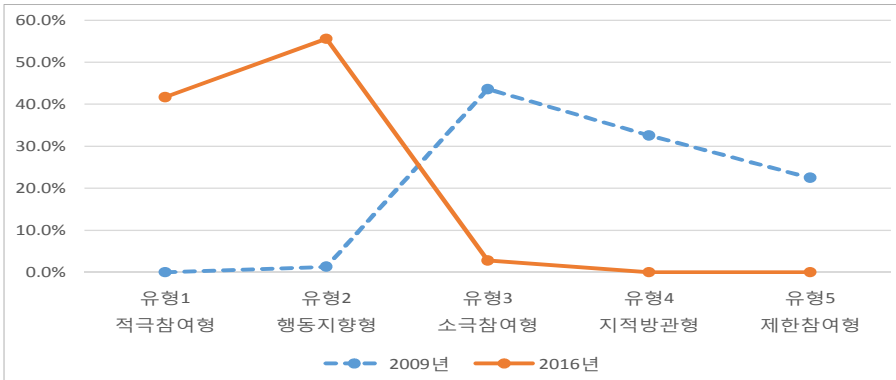


그림 Ⅲ-21 중학교 졸업 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중학교 미졸업 집단의 경우, 2009년에는 유형3(40.8%)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2016년에는 유형 1과 유형 2가 동일한 분포 비율(31.3%)로 비중이 컸다. 이러한 유형분포의 차이는 통계적 검증결과에서도 지지되었다(Pearson's Chi-Square= 43.06, df=4, $p<.001$). 대표유형을 기준으로 분포 차이를 해석해보면, 2009년에는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관련 지식이 취약하며 사회적 참여활동에도 소극적인 경향이었으나 2016년에는 학교 내외에서 활발히 사회참여활동을 전개하는 집단으로 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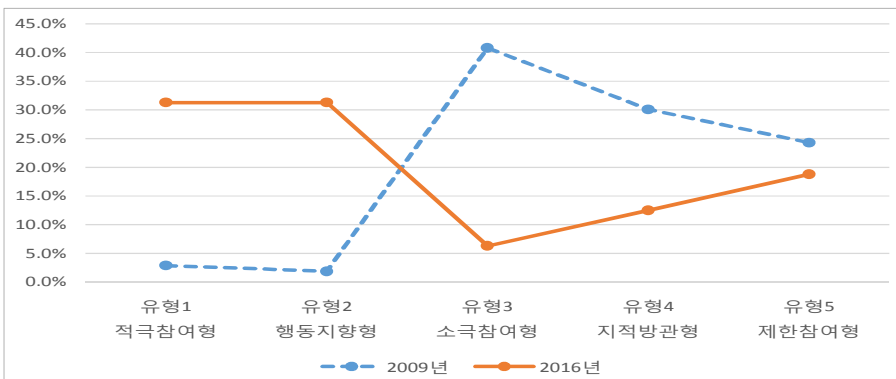


그림 Ⅲ-22 중학교 미졸업 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2) 부모 정치사회 관심도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도는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 수준을 의미하며 조사 참여자의 응답으로 측정되었으며 2009년과 2016년간에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심도는 2009년에 비해 2016년에 높아졌다(표 III-16 참조).

표 III-16 조사연도 간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도 평균 및 평균차이 검증

	2009년		2016년		평균차이 (B-A)	평균차이 검증(F값)	
	평균(A)	표준편차	평균(B)	표준편차		F	유의도
부	3.12	0.645	3.21	0.654	0.09	28.00	0.000
모	2.84	0.628	2.98	0.659	0.14	84.34	0.000

가정수준의 배경요인으로서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도를 분류변인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심도 점수치의 산술평균을 구한 후, 3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상위집단(n=1,820, 23.1%)은 정치사회 이슈에 매우 강한 관심도를 나타낸 집단이고, 중위집단(n=3,730, 47.4%)은 보통의 관심도를 가진 집단이며, 하위집단(n=2,162, 27.5%)은 관심도가 낮거나 거의 없는 집단이다. 이러한 집단구분에 따라 역량유형 분포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표 III-17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도에 따른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정치사회관심도	조사연도	역량 유형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상위집단	2009년	2.9%	4.3%	22.6%	34.2%	36.0%
	2016년	53.9%	26.2%	3.5%	8.4%	8.0%
중위집단	2009년	2.4%	3.4%	30.0%	35.0%	29.1%
	2016년	44.7%	41.1%	2.8%	5.6%	5.8%
하위집단	2009년	1.7%	2.9%	36.2%	39.0%	20.1%
	2016년	38.3%	49.2%	3.5%	4.8%	4.2%

전체집단의 조사연도 간 유형분포의 변화와 동일하게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도 수준집단들에서도 2009년에는 유형 3, 4, 5의 비중이 높고, 2016년에는 유형 1과 2의 비중이 높은 분포 양상을 보였다. 관심도 수준별로 역량유형 분포의 양상을 살펴보면, 관심도 상위집단의 경우, 2009년에는 유형 5(36.0%)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2016년에는 유형1(53.9%)의 비중이 가장 컸다. 이러한 유형분포의 차이는 통계적 검증결과에서도 지지되었다(Pearson's Chi-Square=1,120.73, df=4, $p<.001$). 대표 유형을 기준으로 해석해보면 해당집단이 2009년에는 사회참여에 대한 의식적, 지적 수준이 보통 이상으로 성숙된 반면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사회 참여적 행동이 발현되지 못하는 집단적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2016년에는 사회 참여에 대한 인식과 지적 수준이 대체적으로 보통 이상으로 성숙되어 있으며 사회 참여활동에 매우 적극적인 성향을 가진 집단으로 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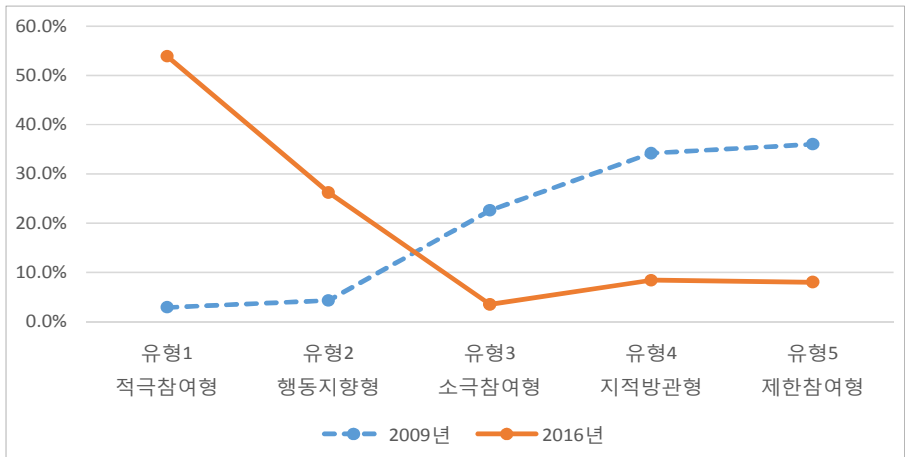


그림 Ⅲ-23 관심도 상위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관심도 중위집단의 경우, 2009년에는 유형 4(35.0%)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16년에는 유형 1(44.7%)의 비중이 가장 컸다. 이러한 차이는 조사연도

간 유형분포 양상의 통계적 차이검증에서도 지지되었다(Pearson's Chi-Square= 2,249.78, df=4, $p<.001$). 대표유형을 기준으로 분포 양상의 특성을 해석해보면, 2009년에는 사회참여에 대한 지식이 보통수준이나 의식적인 면이 덜 성숙하고 행위적 사회참여에 소극적인 집단이었다. 그러나, 2016년에는 사회참여에 대한 지식과 의식이 보통수준이지만 사회적 참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집단으로 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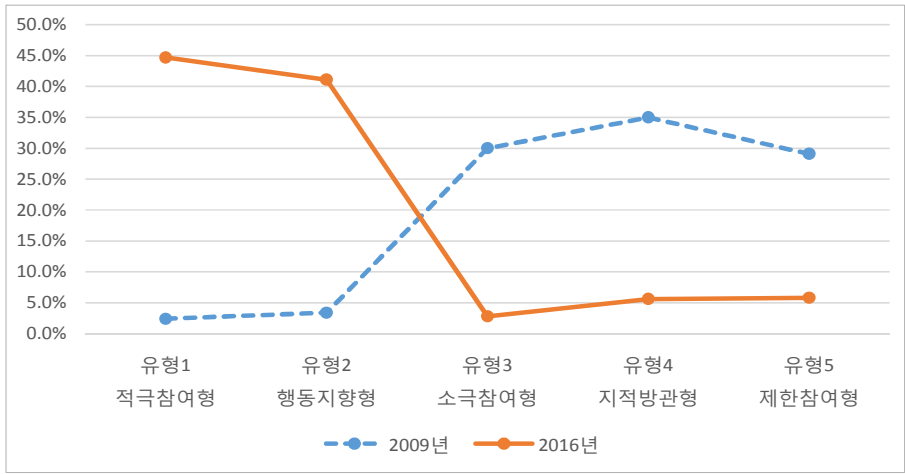


그림 Ⅲ-24 관심도 중위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관심도 하위집단의 경우, 2009년에는 유형 4(39.0%)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였으며 2016년에는 유형 2(49.2%)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연도 간 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earson's Chi-Square= 1.153.38, df=4, $p<.001$). 대표유형을 기준으로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의 양상을 해석해 보면, 2009년에는 사회참여와 관련한 지적인 면에서는 매우 성숙되어 있으나 사회참여활동에는 적극적이지 않은 집단적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2016년에는 부모의 정치사회관심도가 낮음에도 사회참여활동에 활발히 관여하는 집단으로 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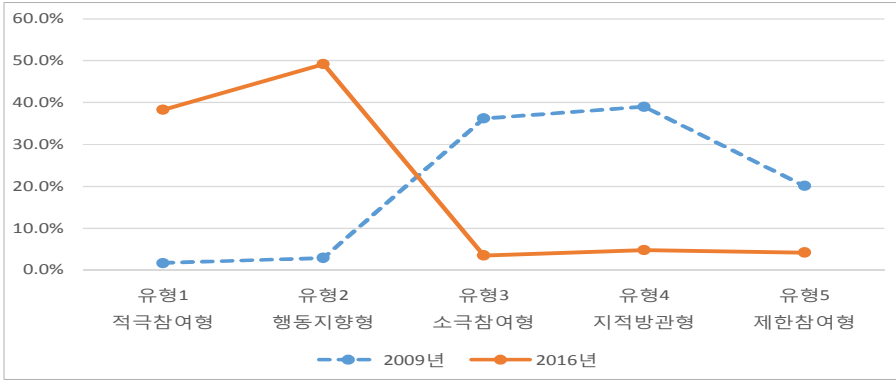


그림 III-25 관심도 하위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추가적으로 조사연도별로 관심도 수준 집단 간 유형분포 비중을 비교하였다. 여기서 유형분포 비중은 전체집단 내 비중을 아닌 각 수준 집단내의 비중을 의미한다. 2009년도에 나타난 각 수준집단 내 유형분포 비중을 집단 간 비교한 결과, 유형 1과 2는 집단 간 차이가 미미하였으며, 나머지 유형들은 집단 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컸다. <그림 III-26>에 제시된 각 집단의 유형분포 비중 차이는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도가 높을수록 소극적 참여형이 감소하고 제한적 참여형이 증가하는 변화 양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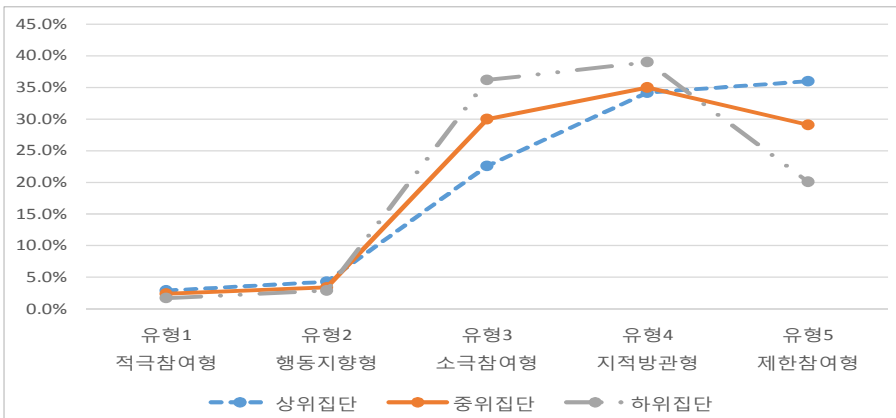


그림 III-26 2009년도 관심도 집단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한편, 2016년에는 각 수준집단 내에서 차지하는 유형3, 4, 5의 비중이 유사하였으나, 유형1과 2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편차가 나타났다. <그림 III-2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모의 정치사회관심도 수준이 높아질수록 적극적 참여형이 증가하고, 행동지향적 참여형이 감소하는 변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분포 차이는 최소한 2016년도에는 정치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부모 밑에서 사회참여에 대한 사고와 지식 습득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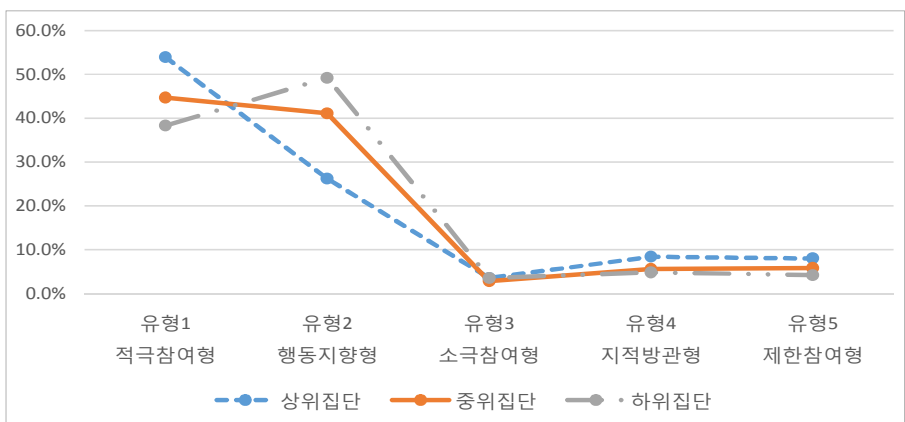


그림 III-27 2016년도 관심도 집단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다) 학교수준 배경요인에 따른 분포 차이검증

ICCS에 기저하는 가정 중의 하나는 청소년의 시민사회적 참여 능력을 개발하는데 있어 가정환경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Schulz et al., 2008). 이러한 가정에 기초하면 학교의 물리적, 지역적 특성뿐만 아니라 운영방식 및 풍토, 시민교육 방식, 지역사회와의 사회적 상호작용 활동 수준 등이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가치신념을 성숙하게 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위한 관련 지식을 습득하며 이러한 의식과 지식을 바탕으로 적극적 사회참여활동을 가능케 하는데 유효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수준의 다양한 요인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 유형 분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조사연도 간에 나타난 분포 양상의 차이에서 학교수준의 요인이 가지는 사회참여역량에의 영향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8개의 학교수준의 배경요인을 설정하고 각 요인의 수준에 따른 사회참여역량 유형을 비교분석하였다.

(1) 학교 규모

학교 규모는 ICCS에 참여한 각 학교의 학생 수로 정의된다. ICCS에서는 학생 수에 따라 1~300명, 301~600명, 601~900명, 901명 이상 단위로 나누어 학교 규모를 범주화 하였다. 학교규모에 있어서 2009년에는 학생수가 901명 이상인 대단위 학교에 속한 응답자 비율(66.5%)이 가장 컸으나, 2016년에는 601~900명인 학교에 속한 응답자 비율(43.4%)이 가장 컸다. 전체적으로는 601명 이상인 학교의 응답자 비율이 83.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학교규모에 따라 조사연도 간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 유형 분포의 변화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학교규모와 조사연도에 따른 유형 비율을 살펴보고 각 학교규모 수준별로 조사연도 간 분포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표 III-18 학교규모에 따른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학교규모	조사연도	역량 유형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901명 이상	2009년	1.7%	2.5%	28.1%	39.1%	28.6%
	2016년	48.9%	32.3%	5.0%	7.0%	6.9%
601~900명	2009년	3.9%	5.7%	31.6%	30.0%	28.8%
	2016년	50.0%	38.1%	2.0%	5.3%	4.5%
301~600명	2009년	5.4%	5.7%	33.1%	27.7%	28.0%
	2016년	38.4%	42.6%	3.6%	7.8%	7.6%
1~300명	2009년	0.6%	4.4%	42.8%	25.8%	26.4%
	2016년	33.1%	48.8%	3.3%	6.6%	8.3%

학교규모가 901명 이상인 집단의 경우, 2009년에는 유형 4(39.1%)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2016년에는 유형 1(48.9%)의 비중이 가장 컸다. 이러한 조사연도 간 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earson's Chi-Square=2,265.41, df=4, $p<.001$). 대표유형을 기준으로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의 양상을 해석해보면, 2009년에는 사회참여와 관련한 시민지식 수준은 보통 이상이었으나, 사회참여에 대한 가치 및 행동 수준이 보통 이하였다. 그러나, 2016년에는 시민적 사회참여에 대한 가치 및 지식수준이 높고 사회참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집단으로 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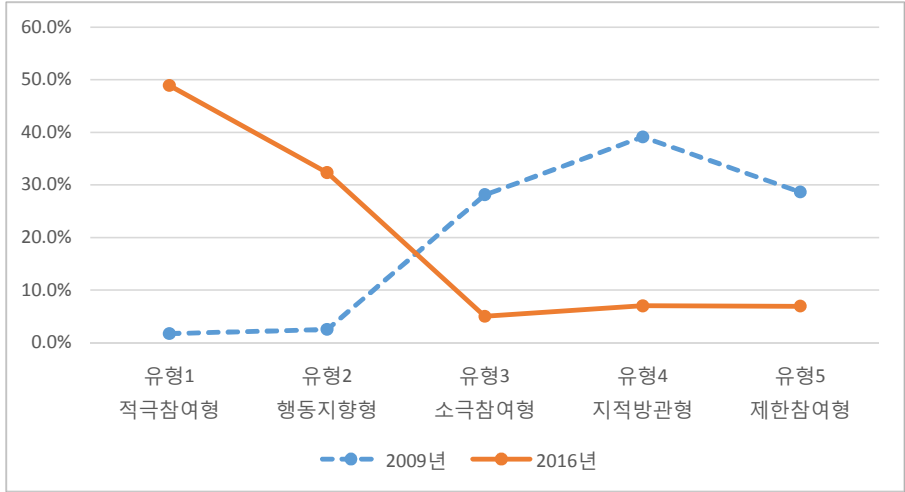


그림 III-28 901명 이상 학교규모 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학교규모가 601~900명인 집단의 경우, 2009년에는 유형 3, 4, 5의 비중이 상호 비슷하며 전체 빈도의 89.4%를 차지하였다. 2016년에는 유형 1(50.0%)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조사연도 간 분포 차이는 통계적 검증에서 지지되었다(Pearson's Chi-Square=1,378.86, df=4, $p<.001$). 대표유형을 기준으로 분포의 변화를 해석해보면, 2009년에는 대체적으로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

및 지식수준이 낮고 행동적 사회참여에 소극적이었으며, 비록 사회참여와 관련한 지식수준이 높더라도 실제 사회참여행동을 발휘하는 데는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2016년에는 정의, 인지, 행동영역에서 그 수준이 높은 적극적 사회참여형 집단으로 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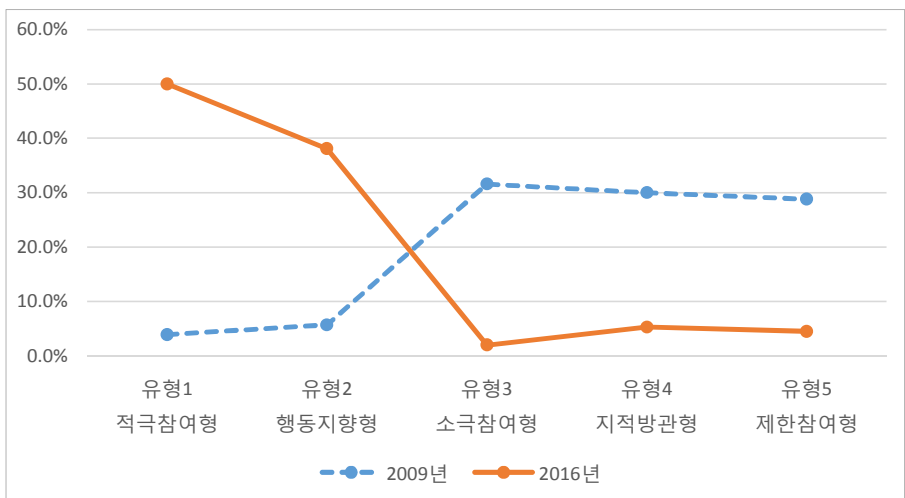


그림 III-29 601~900명 학교규모 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학교규모가 301~600명인 집단의 경우, 2009년에는 유형 3(33.1%)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2016년에는 유형 1(38.4%)과 유형 2(42.6%)가 전체빈도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earson's Chi-Square=396.99, df=4, $p<.001$). 대표유형을 기준으로 분포의 양상을 해석해보면, 2009년에는 시민적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실제 사회참여활동에도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2016년에는 학교 밖과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으로 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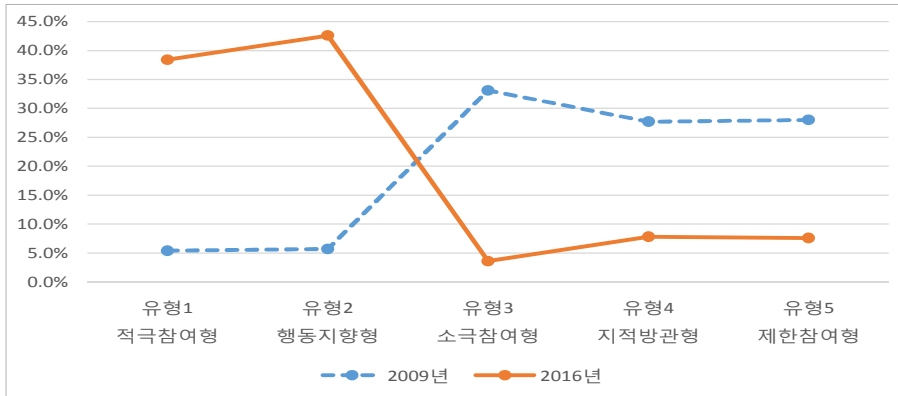


그림 III-30 301~600명 학교규모 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학교규모가 300명 이하인 집단의 경우, 2009년에는 유형 3(42.8%)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2016년에는 유형2(48.8%)가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Pearson's Chi-Square=174.94, df=4, $p<.001$). 대표 유형을 기준으로 분포의 차이를 해석해보면, 2009년에는 시민적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참여적 행동 수준 또한 낮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2016년에는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 및 지식수준이 성숙되지 않았더라도 사회적 참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집단으로 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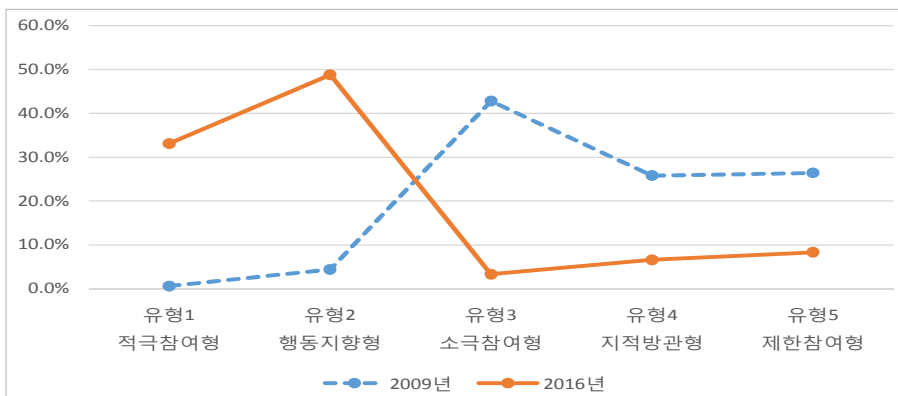


그림 III-31 300명 이하 학교규모 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추가적으로 조사연도별로 학교규모 수준 집단 간 유형분포 비중을 비교하였다. 여기서 유형분포 비중은 전체집단 내 비중을 아닌 각 수준 집단내의 비중을 의미한다. 2009년도에 나타난 각 수준집단 내 유형분포 비중을 집단 간에 비교하였는데, <그림 III-32>에서 학교규모가 커질수록 유형 3(소극적 참여형)의 비중이 다소 줄어들고 유형 4(지적 방관주의형)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의 경우, <그림 III-3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학교규모가 커질수록 유형 1(적극적 참여형)의 비중이 대체적으로 늘어났고 유형 2(행동지향적 참여형)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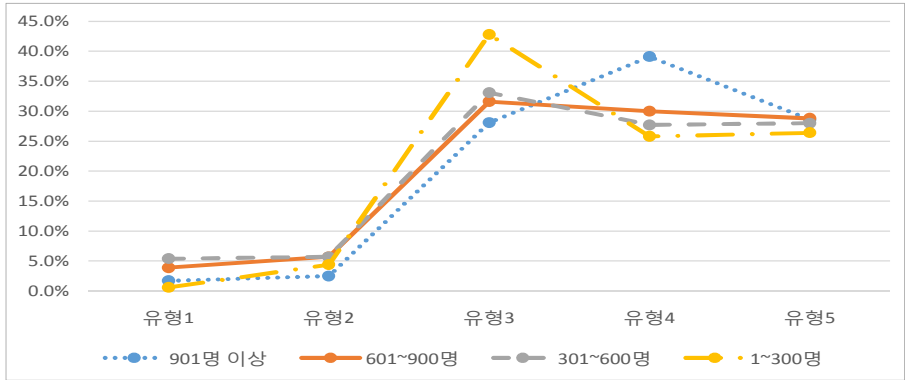


그림 III-32 2009년도 학교규모 수준 집단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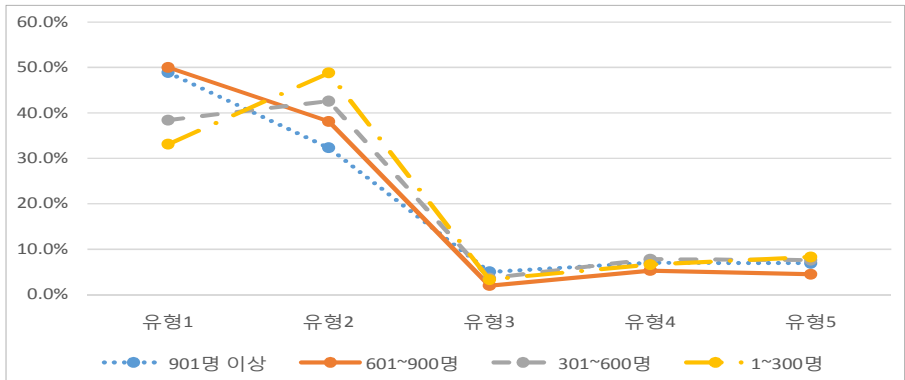


그림 III-33 2016년도 학교규모 수준 집단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2) 지역사회 규모

학교가 속한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규모를 인구 기준으로 5개 수준으로 나누어 규모 수준에 따른 조사연도별 유형 분포를 분석하였다(표 III-19).

표 III-19 지역사회 규모에 따른 조사연도 간 역량유형 분포 비율

지역사회 규모	조사연도	역량 유형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대도시	2009년	2.8%	3.8%	28.1%	36.4%	28.9%
	2016년	52.3%	33.3%	3.2%	6.2%	5.0%
중도시	2009년	0.7%	2.2%	31.9%	36.8%	28.4%
	2016년	41.8%	43.5%	2.7%	5.8%	6.2%
도시	2009년	1.3%	1.3%	38.9%	29.6%	28.8%
	2016년	39.3%	39.7%	3.3%	10.3%	7.4%
소도시	2009년	7.0%	14.5%	26.6%	28.9%	23.0%
	2016년	44.0%	49.5%	3.0%	2.0%	1.5%
시골지역	2009년	1.8%	0.0%	27.5%	32.7%	38.0%
	2016년	34.7%	43.1%	6.9%	6.9%	8.3%

지역사회가 대도시인 집단의 경우, 2009년에는 유형 4(36.4%)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2016년에는 유형 1(52.3%)의 비중이 가장 컸다. 이러한 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earson's Chi-Square=1,872.86, df=4, $p<.001$). 대표유형을 기준으로 분포의 양상을 해석해보면, 2009년에는 사회참여의식 성숙 수준이 보통 수준이나 사회참여행동에 있어서는 적극적이지 못한 집단적 특성을 보였다. 한편, 2016년에는 사회참여의식 및 지식수준이 높고 이에 상응하는 적극적 참여행동을 보이는 집단으로 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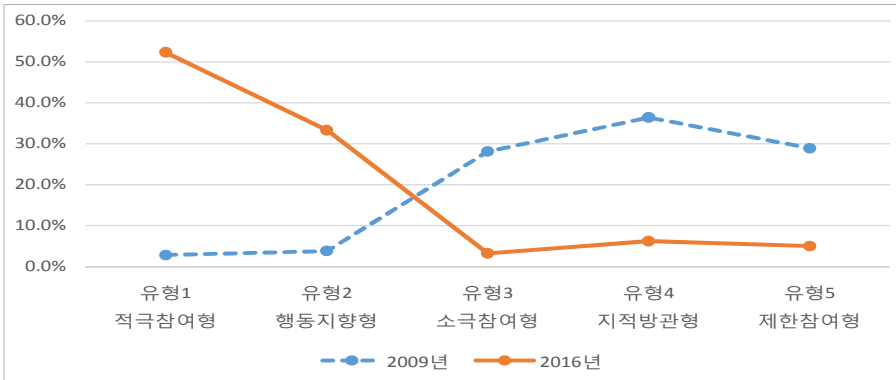


그림 Ⅲ-34 대도시 지역사회 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지역사회가 중도시인 집단의 경우, 2009년에는 유형 4(36.8%), 2016년에는 유형 2(43.5%)가 가장 큰 분포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earson’s Chi-Square=1,784.05, df=4, $p<.001$). 대표유형을 기준으로 분포의 양상을 해석해보면, 2009년에는 사회참여의식 및 지식수준에 상관없이 사회참여적 행동면에서 소극적인 집단적 특성을 보였다. 2016년에는 어느 정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사회참여활동에 관여하는 집단으로 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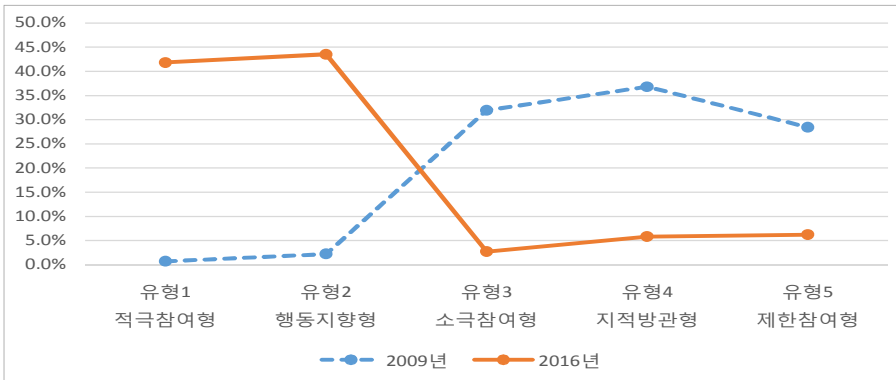


그림 Ⅲ-35 중도시 지역사회 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지역사회가 보통크기의 도시인 집단의 경우, 2009년에는 유형 3(38.9%)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2016년에는 유형 1(39.3%)과 유형 2(39.7%)의 비중이 컸다. 이러한 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earson's Chi-Square=300.14, $df=4$, $p<.001$). 대표유형을 기준으로 분포의 양상을 살펴보면, 2009년에는 사회참여적 행동면에서 소극적이거나 다소 제한적인 집단적 특성을 보였으나 2016년에는 사회참여적 행동 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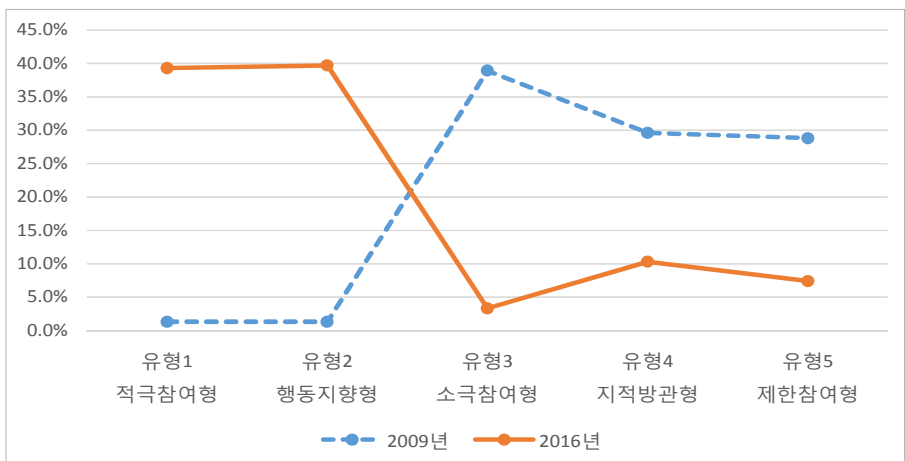


그림 III-36 도시 지역사회 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지역사회가 소도시인 집단의 경우, 2009년에는 유형 4(28.9%)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2016년에는 유형 1(44.0%)과 유형 2(49.5%)가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earson's Chi-Square=236.53, $df=4$, $p<.001$). 대표유형을 기준으로 분포 양상을 해석해보면, 2009년에는 시민의식과 지식수준에 상관없이 사회참여활동에 다소 소극적으로 관여하는 특성을 보였으나 2016년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집단으로 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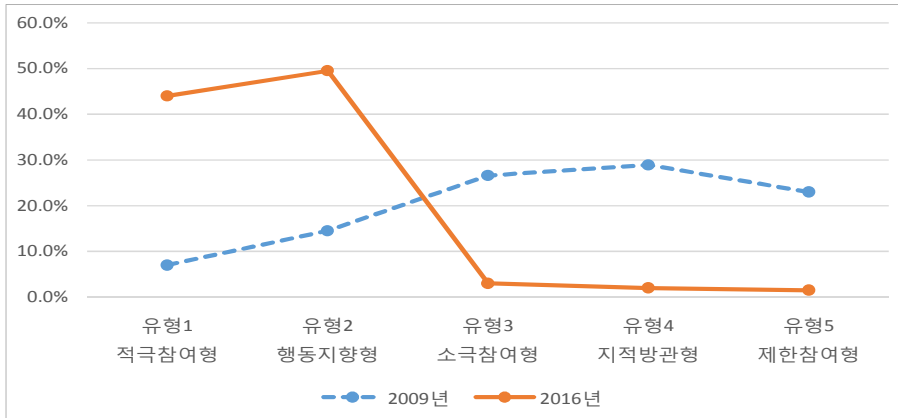


그림 III-37 소도시 지역사회 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지역사회가 시골지역인 집단의 경우, 2009년에는 유형 5(38.0%), 2016년에는 유형 2(43.1%)의 비중이 가장 컸다. 조사연도 간 유형 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earson's Chi-Square=160.12, df=4, $p<.001$). 대표유형을 기준으로 분포 양상을 살펴보면, 2009년에는 시민의식이 보통 수준의 성숙되어 있으나, 행동면에서 다소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으나, 2016년에는 시민의식 및 지식수준이 낮더라도 사회적 참여활동에 활발히 관여하는 집단으로 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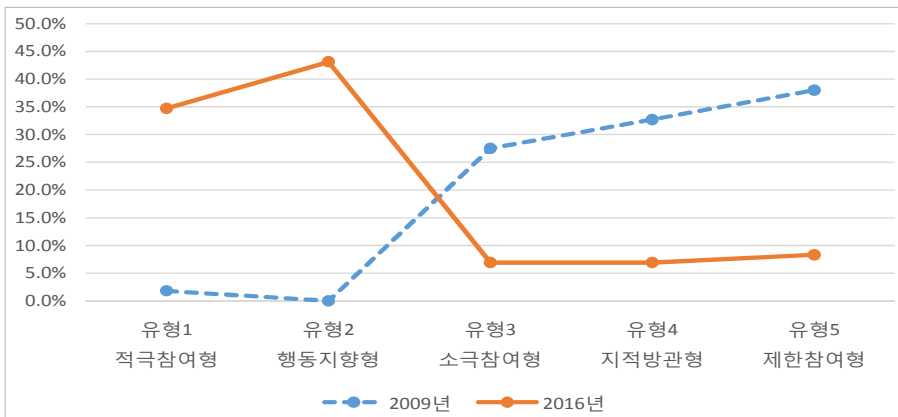


그림 III-38 시골 지역사회 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추가적으로 실시한 조사연도에 따른 지역규모 수준별 유형분포를 분석한 결과, 양 조사연도에서는 지역규모에 따른 뚜렷한 분포 경향을 확인하지 못했다.

(3) 교사의 참여적 풍토

학교 내 교사의 참여도는 2009년에 평균 2.86(SD=0.507), 2016년에 평균 2.98(SD=0.476)로 참여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F=100.89$, $df=1/7,809$, $p<.001$). 교사의 참여도를 분류변인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참여도의 전체평균을 기준으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구분하고 참여도 수준에 따른 조사연도 간 역량유형 분포를 살펴보았다(표 III-20 참조).

표 III-20 교사의 참여도 수준에 따른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비율

교사 참여도	조사연도	역량 유형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상위집단	2009년	2.5%	4.1%	28.8%	36.6%	28.0%
	2016년	49.6%	35.4%	3.5%	5.8%	5.7%
하위집단	2009년	2.3%	3.0%	30.4%	35.0%	29.2%
	2016년	41.3%	41.8%	2.9%	7.4%	6.7%

학교 내 교사의 참여적 풍토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2009년에는 유형 4(36.6%)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2016년에는 유형 1(49.6%)이 지배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earson's Chi-Square= 2,313.28, $df=4$, $p<.001$). 대표유형을 기준으로 분포의 양상을 해석해 보면, 2009년에는 시민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고 시민지식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행동 면에서 다소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다면 2016년에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사회참여활동에 관여하는 집단으로 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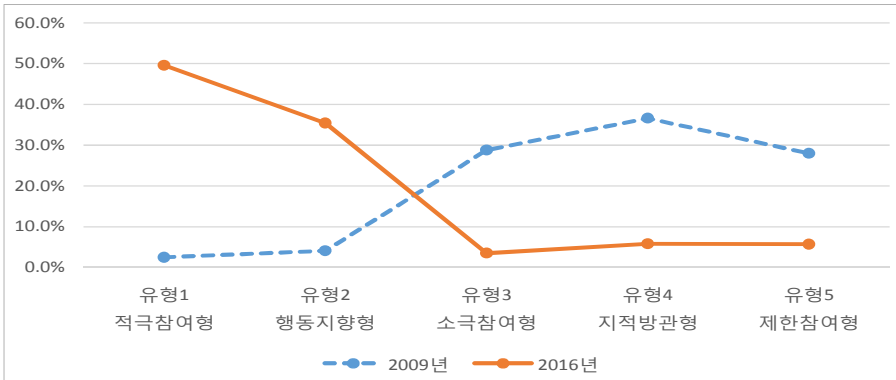


그림 III-39 교사 참여도 상위집단의 조사연도 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교사의 참여적 풍토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2009년에는 유형 4(35.0%)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2016년에는 유형 1(41.3%)과 유형 2(41.8%)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earson's Chi-Square=2,203.80, df=4, $p<.001$). 대표유형을 기준으로 분포 양상을 살펴보면, 2009년에는 사회참여 활동면에서 매우 소극적인 집단적 특성을 보인 반면, 2016년에는 시민의식과 지식수준에 상관없이 사회참여적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집단으로 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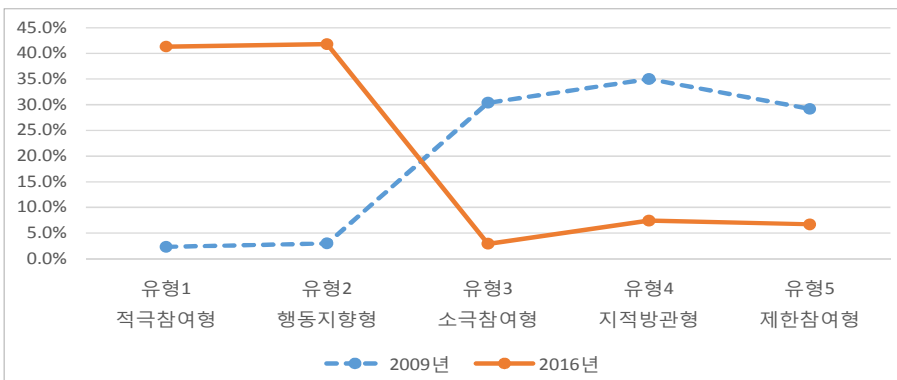


그림 III-40 교사 참여도 하위집단의 조사연도 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추가적으로, 조사연도별로 수준집단의 역량유형 분포를 살펴보았는데, 2009년에는 <그림 III-4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학교 내 교사의 참여적 풍토 수준에 따른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Pearson's Chi-Square=6.48, df=4, p=.166). 2016년에는 집단 간 역량분포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Pearson's Chi-Square=18.84, df=4, p=.001). 이러한 통계적 유의성에 기초하면 <그림 III-42>는 학교 내에서 교사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청소년들의 참여적 의식 및 지식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최소한 현재에는 교사집단이 학교 운영과 관련한 다방면에서 참여적인 학교 내 풍토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시민참여적 의식을 고양하고 지식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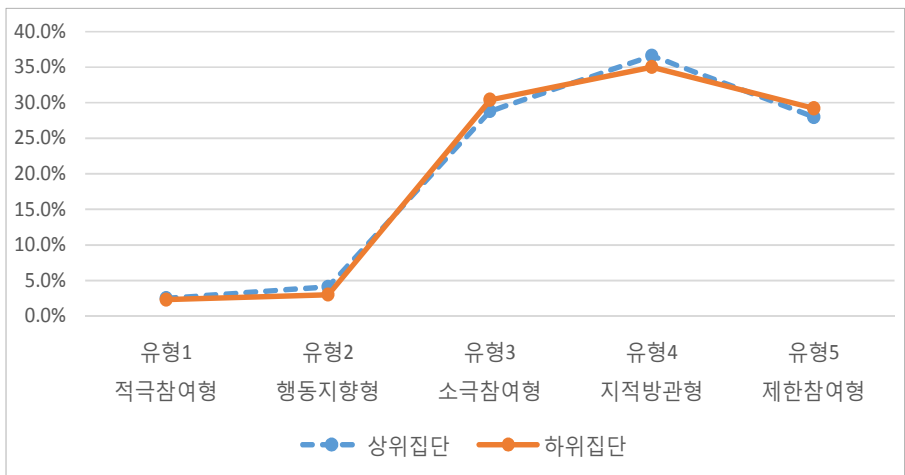


그림 III-41 2009년도 교사 참여도 수준에 따른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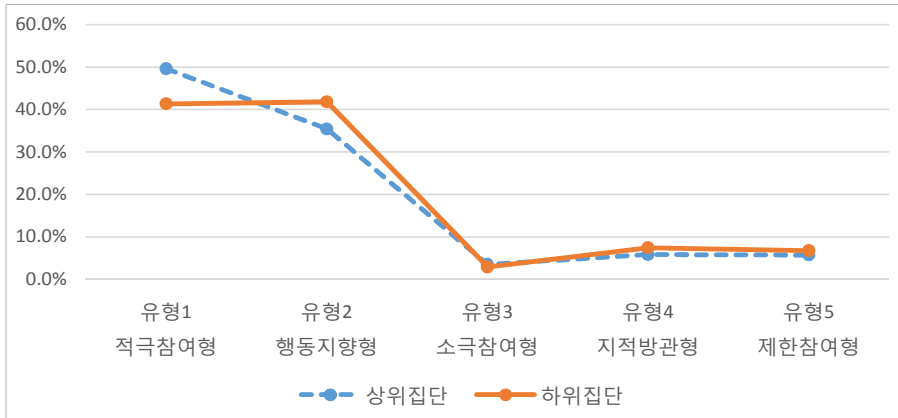


그림 III-42 2016년도 교사 참여도 수준에 따른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4) 교사 태도

표 III-21 교사의 태도 수준에 따른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교사 태도	조사연도	역량 유형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상위집단	2009년	0.7%	1.3%	29.1%	37.8%	31.1%
	2016년	50.6%	41.8%	2.7%	2.3%	2.6%
하위집단	2009년	0.7%	1.3%	33.2%	36.4%	28.3%
	2016년	50.7%	41.4%	2.9%	2.3%	2.7%

교사의 태도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2009년도에는 유형 4(36.4%)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2016년도에는 유형 1(47.3%)의 비중이 가장 컸다. 이러한 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earson's Chi-Square=3,610.72, df=4, $p<.001$). 대표유형을 기준으로 분포의 양상을 해석해보면, 2009년도에는 시민참여적 의식 및 지식수준에 비해 실제 사회활동 참여에 소극적인 경향이었으나 2016년도에는 시민의식 수준이 향상되고 사회적 참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집단으로 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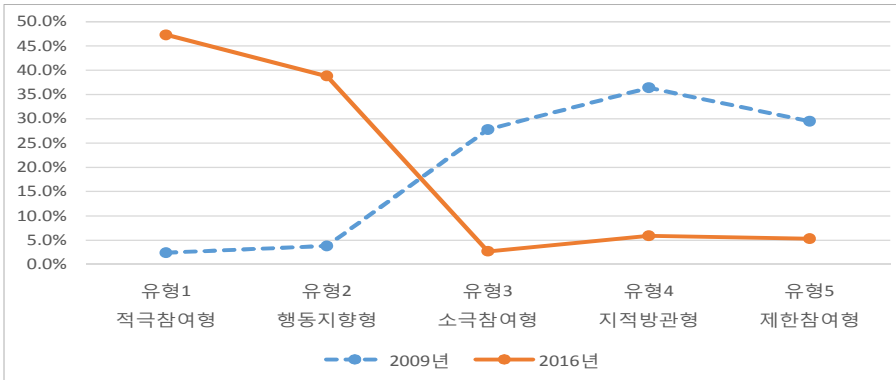


그림 III-43 교사의 태도 상위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교사의 태도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2009년도에는 유형 4(34.9%)가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2016년도에는 유형 1(43.2%)의 비중이 가장 컸다. 이러한 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earson's Chi-Square=2,409.31, df=4, $p<.001$). 대표유형을 기준으로 분포의 양상을 해석해보면, 2009년도에는 보통 이상 수준의 시민지식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사회활동에 소극적이거나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2016년에는 상위집단과 마찬가지로 시민의식 수준이 향상되고 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집단적 특성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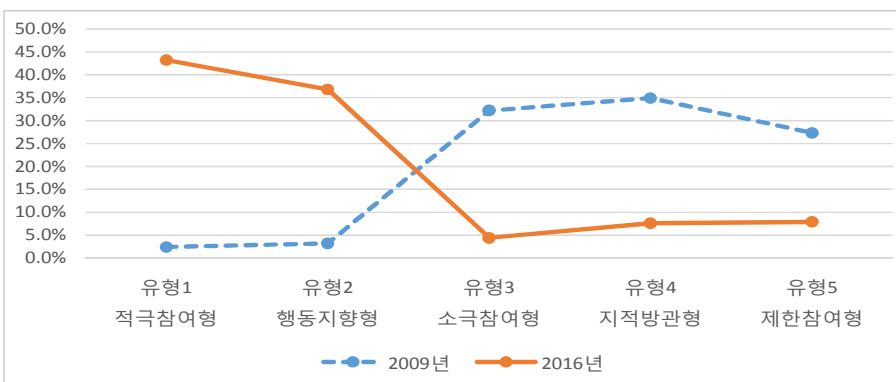


그림 III-44 교사의 태도 하위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추가적으로 조사연도별로 수준집단에 따른 역량유형 분포의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2009년도에는 수준집단 간 분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교사의 태도 수준에 따른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다(Pearson's Chi-Square=11.79, df=4, p=.019). 2016년도에는 수준집단 간 분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에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Pearson's Chi-Square=14.57, df=4, p=.006). 다만, 통계적 유의성을 고려할 때, <그림 III-45>와 <그림 III-46>에서 볼 수 있듯이, 교사집단의 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시민의식 수준이 향상되고 행동면에서의 소극성이 줄어드는 경향이 다소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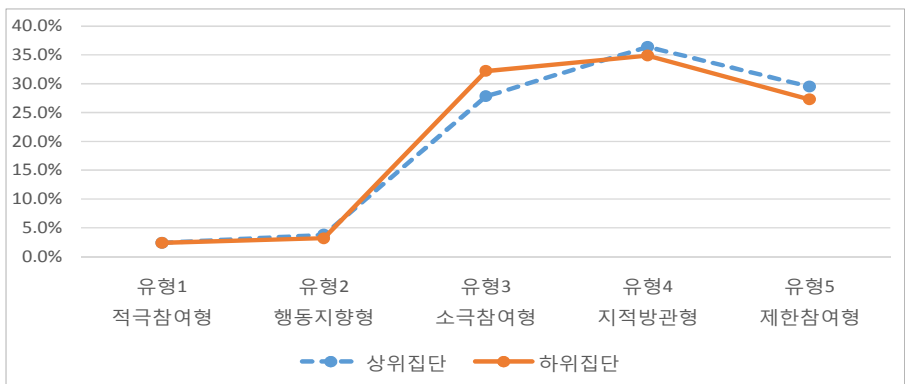


그림 III-45 2009년 교사의 태도 수준 집단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그림 III-46 2016년 교사의 태도 수준 집단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5) 지역사회 연계 학생참여

학교차원에서 학교 밖 지역사회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사회참여적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학교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활동을 운영하는 수준은 2009년 평균 2.40(표준편차 0.532), 2016년 평균 2.54(표준편차 0.547)로 과거에 비해 그 수준이 높아졌다($F=119.79$, $p<.001$). 지역사회 연계 수준을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상하 수준을 구분하여 조사연도 간 역량유형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표 Ⅲ-22 지역사회 연계 수준에 따른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지역사회 연계 학생참여	조사연도	역량 유형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상위집단	2009년	3.1%	4.7%	27.7%	35.3%	29.2%
	2016년	47.9%	40.1%	4.0%	6.8%	7.2%
하위집단	2009년	1.9%	2.8%	31.1%	36.0%	28.3%
	2016년	38.5%	36.3%	6.5%	9.3%	9.3%

지역사회 연계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2009년도에는 유형 4(35.3%)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2016년도에는 유형 1(47.9%)의 비중이 가장 컸다. 이러한 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earson's Chi-Square=1,795.94, $df=4$, $p<.001$). 대표유형을 기준으로 분포 양상을 해석해보면, 2009년도에는 시민의식과 지식 수준이 보통 이상임에도 행동 면에서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으나 2016년에는 시민 의식과 지식수준이 혼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행동 면에서 강한 적극성을 보이는 집단으로 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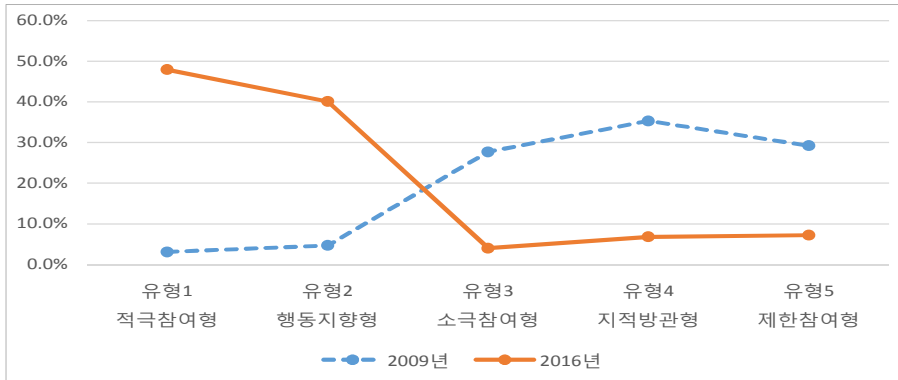


그림 III-47 지역사회 연계 상위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지역사회 연계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2009년도에는 유형 4(36.0%)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2016년도에는 유형 1(40.5%)의 비중이 가장 컸다. 이러한 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earson's Chi-Square=2,671.56, df=4, $p<.001$). 대표유형을 기준으로 분포 양상을 살펴보면, 2009년도에는 사회적 참여 행동 면에서의 소극성이 두드러졌으나 2016년도에는 사회적 참여에 소극적인 경향이 과거에 비해 강해졌으나 전반적으로 참여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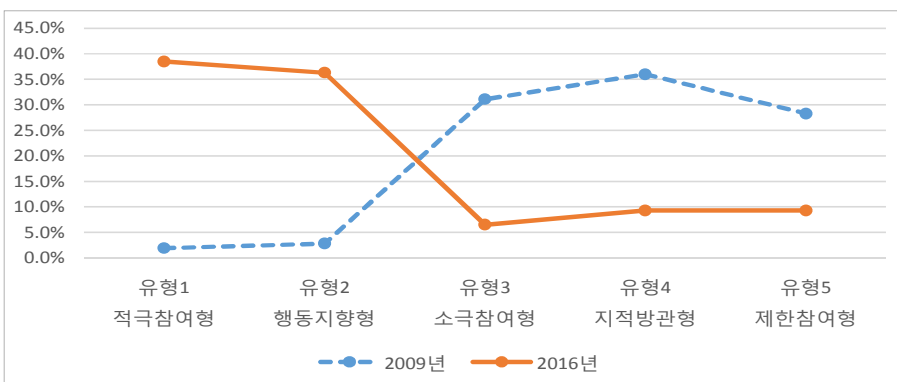


그림 III-48 지역사회 연계 하위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추가적으로 조사연도별로 지역사회 연계 수준집단 간 역량분포를 비교하였는데, 2009년도의 경우, 양 집단의 역량분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다(Pearson's Chi-Square=97.34, df=4, $p<.001$). <그림 III-49>에서 볼 수 있듯이, 상위집단의 경우, 비록 비중은 작지만 유형 1(적극적 참여형)과 유형 2(행동지향적 참여형)의 수준집단 내 비중이 하위집단에 비해 늘어났으며, 유형 3(소극적 참여형)의 수준집단 내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하위집단과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이다. 2016년 에도 양 집단의 역량 분포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Pearson's Chi-Square=101.52, df=4, $p<.001$). <그림 III-50>를 참조하면, 상위집단의 유형1과 유형2의 수준집단 내 비중이 하위집단보다 크며 다소 미미하지만 나머지 유형의 비중은 낮았다. 이러한 분포의 차이분석 결과는 2009년과 2016년간에 확인된 전체적인 역량유형 분포의 차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지역사회 연계 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사회참여활동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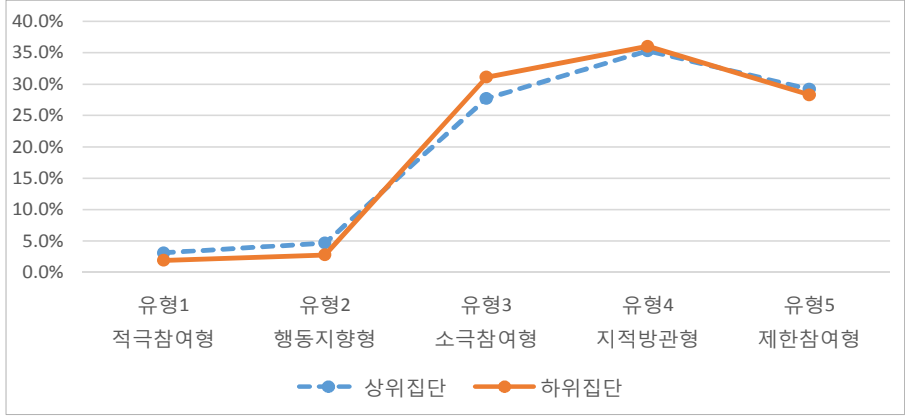


그림 III-49 2009년 지역사회 연계 하위집단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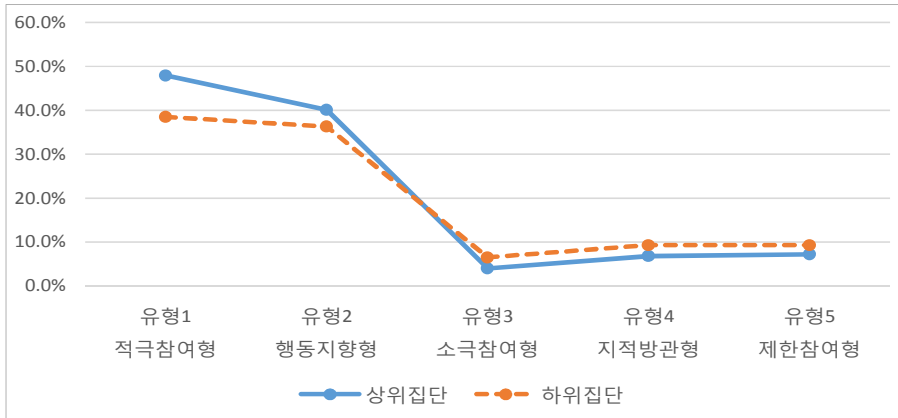


그림 III-50 2016년 지역사회 연계 하위집단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6) 학교 자치성

학교 자치성 수준은 2009년 평균 3.24(표준편차 0.469), 2016년 평균 3.63(0.387)으로 과거에 비해 그 수준이 높아졌다($F=1,319.15$, $p<.001$). 학교 자치성의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상하집단으로 구분하고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를 분석하였다.

표 III-23 학교 자치성 수준에 따른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학교 자치성	조사연도	역량 유형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상위집단	2009년	2.9%	5.4%	27.8%	34.8%	29.2%
	2016년	48.8%	40.0%	3.0%	4.1%	4.2%
하위집단	2009년	2.0%	2.7%	30.5%	36.4%	28.4%
	2016년	39.8%	33.3%	4.0%	12.3%	10.7%

학교 자치성 상위집단의 경우, 2009년도에는 유형 4(34.8%)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2016년도에는 유형 1(48.8%)이 가장 크고 유형 2(40.0%)와 함께 전체

비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earson's Chi-Square=2,011.25, df=4, $p<.001$). 대표유형을 기준으로 분포 양상을 해석해보면, 2009년의 청소년 집단은 시민의식이 성숙되어 있거나 시민지식 수준이 높지만 참여적 행동 면에서 다소 소극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2016년에는 시민의식과 지식수준이 다소 혼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과거의 소극적 참여경향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사회참여활동을 전개하는 집단으로 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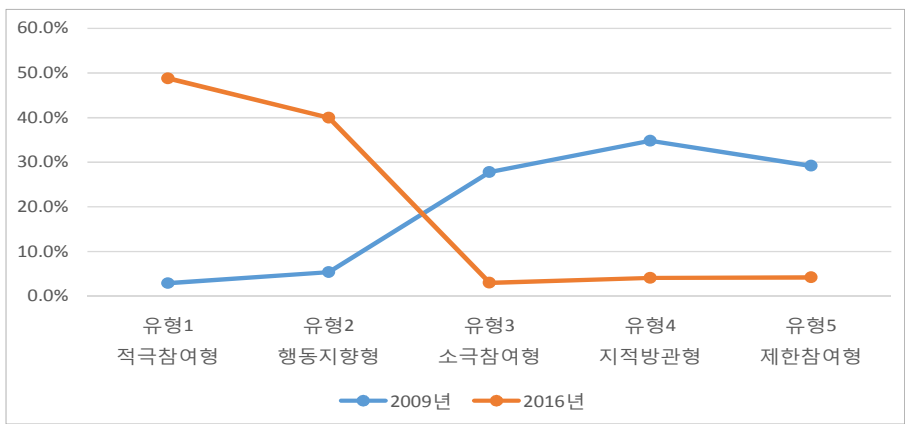


그림 Ⅲ-51 학교 자치성 상위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학교 자치성 하위집단의 경우, 2009년도에는 유형 4(36.4%)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2016년에는 유형 1(39.8%)의 비중이 가장 컸다. 이러한 분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earson's Chi-Square=1,926.63, df=4, $p<.001$). 대표유형을 기준으로 분포 양상을 살펴보면, 2009년도에는 상위집단과 거의 비슷한 집단적 특성을 보였으나 2016년에는 어느 정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사회적 참여에 관여하는 경향이 강하나 시민의식 및 지식수준에 비해 행동 지향적 성향이 약한 경향도 다소 존재하였다.



그림 III-52 학교 자치성 하위집단의 조사연도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추가적으로, 조사연도별로 학교 자치성 수준집단 간 역량유형의 분포를 비교 분석하였는데, 2009년도 상하집단 간 역량유형 분포의 차이에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Pearson’s Chi-Square=56.34, df=4, $p<.001$). <그림 III-53>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 자치성이 높을수록 행동지향적 참여형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소극적 참여형과 지적 방관주의형이 낮아졌다.

또한, 2016년도 마찬가지로 상하집단 간 역량유형 분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Pearson’s Chi-Square=118.04, df=4, $p<.001$), <그림 III-54>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 자치성이 높을수록 적극적으로 사회참여활동에 관여하는 경향이 커졌으며 행동으로 옮기는데 소극적인 경향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조사연도 간에 나타난 역량유형의 분포 특성에 학교 자치성 수준이 미치는 영향력이 다소 미약하지만, 유의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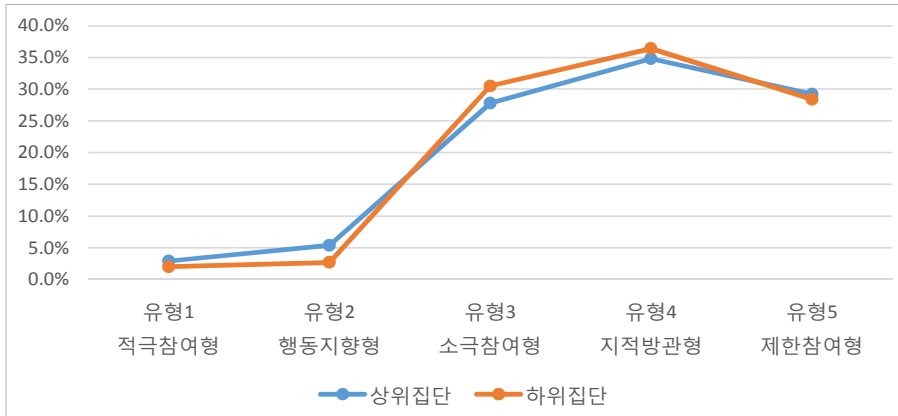


그림 Ⅲ-53 2009년도 학교 자치성 수준집단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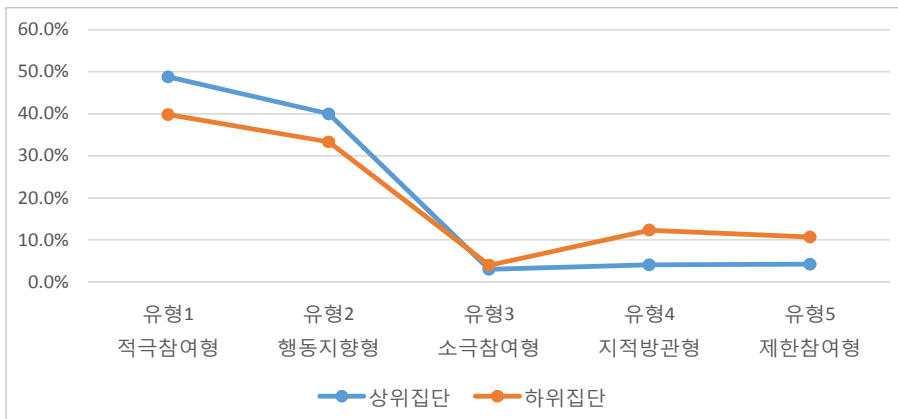


그림 Ⅲ-54 2016년도 학교 자치성 수준집단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2. ICCS아시아 3개국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 유형 시계열적 국제비교 분석(ICCS2009-ICCS2016)

본 장은 ICCS에 참여한 아시아 3개국(한국, 홍콩, 대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회참여역량 유형을 시계열적 국제비교 분석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사회참여역량 모형에 기초하여 역량 유형을 추출하고 3개국 청소년들에게 나타난 유형별 분포를 조사시점에 따라 국가 간 상호 비교하고 유형분포 양상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가. 분석 틀

사회참여역량의 시계열적 국제비교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절차적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는데, 이 연구모형은 국제비교를 위한 사회참여역량의 개념적 구성모형을 설정하고, 구성요인의 특성을 반영한 역량 유형을 추출한 다음, 유형별 분포를 조사시점에 따라 3개국의 유형분포를 상호 비교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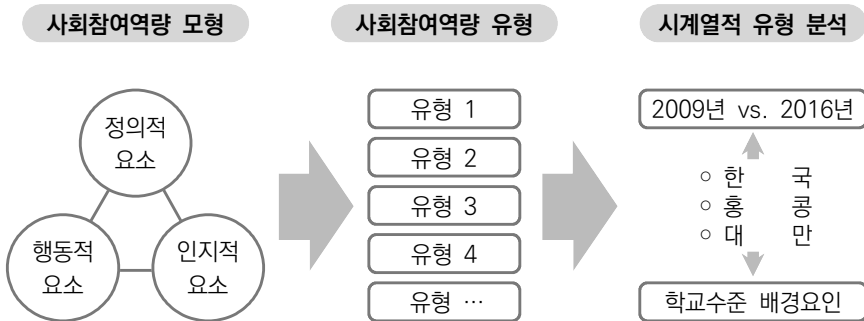


그림 III-55 사회참여역량 유형의 시계열적 국제비교 분석 모형

1) 사회참여역량 모형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은 개념적으로 세 가지 영역(정의적, 행동적, 인지적 영역)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본 하위연구에서는 3개국 간의 비교 및 향후 ICCS 참여국간의 비교를 위하여 정의영역의 하위요인을 이전 하위연구와는 달리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의영역은 청소년들의 세계적 차원의 민주시민의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시민성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신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ICCS에서는 이러한 가치신념을 크게 5개의 하위개념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는데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바람직한 시민행동에 대한 가치’, ‘사회적 양성 평등의식’, ‘사회적 민족 및 인종 평등의식’, 그리고 ‘정부 및 시민기관에 대한 신뢰’가 그것이다. 우선 첫째,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요인을 ICCS에서는 청소년들이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지지하는 정도로 측정하였으며 참고로 상호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ICCS2009과 ICCS2016년에 공통으로 사용된 7개 문항의 응답치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표 III-24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측정 문항

하위요인	항목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공무원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 회사나 정부가 나라의 모든 신문사를 소유한다.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정부를 비판할 수 있다.
	성인이라면 모두 자신의 정치 지도자를 선출할 권리가 있다.
	사람들이 법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찰에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혐의가 있는 사람을 재판 없이 감옥에 가둘 권리가 있다.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수입 격차가 적다.

둘째, 바람직한 시민행동에 대한 가치 요인은 ICCS에서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 각각의 시민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묻는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분석에 포함된 시민행동 항목들은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ICCS2009와 ICCS2016에 공통으로 사용된 12개 행동항목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표 III-25 바람직한 시민행동 항목

하위요인	항목
바람직한 시민행동 가치	모든 선거 참여
	정당단체 가입
	역사 학습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 상의 정치 이슈 주시
	정부대표들에 대한 존경심 표현
	정치 토론 참여
	불공정한 법에 대항한 평화적 항의 참여
	지역사회에 유익한 활동 참여
	인권증진운동 참여
	환경보호운동 참여
	열심히 일하기
	항상 법을 준수하기

셋째, 사회적 양성평등 의식 요인은 남녀의 사회, 정치적 평등에 대한 의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ICCS에서는 IEA(1971)의 시민교육연구과 CIVED(1991)에서 사용된 여성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문항에 기초하여 총 7개 문항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양성평등 의식을 측정하였다.

표 Ⅲ-26 사회적 양성평등 의식 측정 문항

하위요인	항목
사회적 양성평등 의식	모든 남녀는 정부가 하는 일에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
	모든 남녀는 모든 면에서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
	여성은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일자리가 없을 때, 일자리를 가질 권리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많이 주어져야 한다.
	동일한 일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
	남성은 여성보다 정치지도자가 될 자격이 더 충분하다.
	여성의 우선적 책무는 아이를 보육하는 것이다.

넷째, 사회적 인종 및 민족평등 의식 요인은 한 사회의 시민이라면 사회구성원으로서 주어지는 권리와 기회를 인종 및 민족적 배경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부여 받아야 한다는 태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태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5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표 Ⅲ-27 사회적 인종 및 민족평등 의식 측정 문항

하위요인	항목
사회적 인종 및 민족평등 의식	모든 인종 집단은 우리나라에서 동등한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모든 인종 집단은 우리나라에서 동등한 취업기회를 가져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모든 인종집단의 구성원을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모든 인종 집단의 구성원들은 선거에 출마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모든 인종 집단의 구성원들은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및 시민기관에 대한 신뢰 요인은 11개 정부기관, 시민기관, 정보출처에 대해 신뢰하는 정도로 측정하였다.

표 III-28 정부 및 시민기관 대상 항목

하위요인	항목
국가 및 기관에 대한 신뢰	중앙 정부 부처
	지방 자치 정부
	법원
	경찰
	정당
	국회
	미디어(TV, 언론사, 라디오)
	군대
	학교
	국제연합(UN)
	일반 대중

행동영역에 포함되는 요인은 청소년의 ‘학교 밖 사회적 참여활동’과 ‘학교 내 사회적 참여활동’으로 앞서 기술한 한국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 모형에 포함된 요인과 동일하다. 인지영역에 포함된 ‘시민지식’ 요인 또한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2) 사회참여역량 유형화

ICCS에 참여한 3개국 청소년들 간에 존재하는 사회참여역량 유형을 도출하기 위하여 앞서 설명한 사회참여역량 모형의 하위요인들을 분석하고 군집분석을 통하여 하위요인의 특성을 반영한 유형을 추출하였다.

3) 사회참여역량 유형분포의 시계열적 국제비교 분석

군집분석을 통하여 추출된 역량 유형과 유형별 정의에 기초하여 2009년과 2016년에 측정된 3개국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 유형을 상호 비교분석하여 기본적으로 유형분포를 국가 간 비교분석하고 시간에 따른 유형분포의 변화양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나. 분석요인별 기초분석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제비교를 위한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은 개념적으로 정의, 행동, 인지영역에 걸친 8개 요인으로 구성된다. 2009년과 2016년에 측정된 구성요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III-29〉에 국가별로 제시되어 있다.

표 III-29 사회참여역량 하위요인별 평균

하위변인		한국		홍콩		대만	
		2009년	2016년	2009년	2016년	2009년	2016년
정의영역	민주주의 가치	2.38(0.26)	2.39(0.35)	2.18(0.26)	2.60(1.13)	2.15(0.25)	2.42(0.42)
	시민행동 가치	3.10(0.44)	3.14(0.51)	3.07(0.44)	3.08(0.74)	3.08(0.45)	3.13(0.48)
	사회적 양성평등	3.34(0.47)	3.48(0.49)	3.41(0.50)	3.43(0.74)	3.61(0.47)	3.66(0.45)
	사회적 인종평등	2.32(0.53)	3.53(0.50)	2.44(0.51)	3.52(0.77)	2.68(0.41)	3.68(0.44)
	정부 및 기관 신뢰	2.33(0.49)	2.65(0.58)	2.67(0.48)	2.75(0.78)	2.59(0.48)	2.75(0.48)
행동영역	학교 밖 참여	1.15(0.26)	1.31(0.36)	1.31(0.36)	1.29(0.34)	1.19(0.28)	1.20(0.29)
	학교 내 참여	1.57(0.49)	1.87(0.57)	1.68(0.47)	1.67(0.51)	1.78(0.45)	1.74(0.50)
인지영역	시민지식	567.17(80.67)	550.58(95.13)	557.92(94.14)	524.77(103.47)	563.90(92.23)	585.39(86.91)

다. 국제비교를 위한 사회참여역량 유형화

앞서 설명한 국제비교를 위한 사회참여역량 모형에 기초하여 구성요인별 응답치 자료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방법적, 절차적 내용은 앞선 하위연구와 동일하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군집분석의 표본자료가 한국을 포함한 3개국의 응답치 이므로 앞선 연구에서 도출된 군집모형과 다를 수 있다. 본 하위연구에서 3개국의 응답치를 통합적으로 다루고 4군집, 5군집, 6군집, 7군집 모형에 따른 일련의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국제비교를 위한 사회참여역량의 개념적 모형, 역량의 하위요인별 수준 특성, 군집 간 상호 이질성, 해설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5군집 모형을 적용하였다.

표 III-30 5군집 모형의 군집별 역량요인 표준화 평균

요인		군집				
		1	2	3	4	5
정의영역	민주주의 가치	0.0673	-0.6222	-0.7472	-0.0402	0.5457
	시민행동 가치	0.4860	-0.1388	-0.2691	-0.5725	0.3809
	사회적 양성평등	0.4558	-0.9038	-0.9755	-0.1254	0.6098
	사회적 인증평등	0.3334	-0.2792	-0.3691	-0.7154	0.6018
	국가 신뢰	0.3353	0.0750	0.2707	-0.9088	0.3351
행동영역	학교 밖 참여	1.0062	2.8329	-0.2878	-0.3759	-0.3668
	학교 내 참여	1.1185	0.6520	-0.4574	-0.4095	-0.0397
인지영역	시민지식	0.3969	-0.8860	-0.9845	0.0842	0.5305
빈도 (유효비율)		3,567 (17.1%)	753 (3.6%)	4,329 (20.8%)	5,268 (25.3%)	6,904 (33.2%)

표 III-31 군집유형별 사회참여역량 하위요인 수준

요인		군집				
		1	2	3	4	5
정의영역	민주주의 가치	M	L	L	M	H
	시민행동 가치	M	M	M	L	M
	사회적 양성평등	M	L	L	M	H
	사회적 인증평등	M	M	M	L	H
	국가 신뢰	M	M	M	L	M
행동영역	학교 밖 참여	HH	HH	M	M	M
	학교 내 참여	HH	H	M	M	M
인지영역	시민지식	M	L	L	M	H
빈도 (유효비율)		3,567 (17.1%)	753 (3.6%)	4,329 (20.8%)	5,268 (25.3%)	6,904 (33.2%)

- 유형1 적극적 사회참여형

민주시민적 참여에 대한 가치신념이 성숙되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지식 수준을 갖추고 있으며 행동적 참여 면에서 적극적인 특성을 지닌 역량유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 사회참여형”이라 명명하였다.

- 유형2 참여활동 위주형

민주시민적 참여에 대한 가치신념이 다소 미숙한 편이고 시민지식 수준이 낮지만 학교 내외의 사회적 참여활동에 매우 적극적인 특성을 지닌 역량유형으로 본 연구에서는 “참여활동 위주형”이라 명명하였다.

- 유형3 지식 결핍형

민주시민적 참여에 대한 가치신념은 다소 낮고 행동적 참여 또한 낮은 수준이지만 상대적으로 시민지식의 결핍이 두드러지는 특성을 지닌 역량유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식 결핍형”이라 명명하였다.

- 유형4 의식 결핍형

평균 이상의 시민지식을 갖추고 있으나 시민의식 및 행동적 참여의 수준이 낮고 특히 시민의식의 하위요인들이 평균 이하의 수준을 보이는 역량유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의식 결핍형”이라 명명하였다.

- 유형5 가치 성숙형

민주시민적 사회참여에 대한 가치신념 성숙도가 다른 유형에 비해 높고 보통 이상의 시민지식 수준을 갖추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참여적 행동발현이 다소 미흡한 역량유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치 성숙형”이라 명명하였다.

라. 사회참여역량 시계열적 국제비교

1) 국가간 사회참여역량 유형 분포 비교 분석

사회참여역량의 5군집 모형에 기초하여 분석한 조사연도별 각 국가의 유형분포는 <표 III-32>에 제시되어 있다. 2009년의 경우, 한국은 유형 4(의식 결핍형) (50.1%)가 지배적이었고 유형 2(행동 추구형)(1.9%)의 비중이 미미하였다. 홍콩은 유형 3(지식 결핍형)(28.1%)의 비중이 가장 컸으나 유형 2(행동 추구형)(7.7%)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들과의 비중 차이가 크지 않았다. 대만은 유형 5(가치 성숙형)(30.2%)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유형 2(2.9%)의 비중이 가장 작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의식 결핍형’(35.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행동 추구형’(3.6%)의 비중이 가장 적었다. 한편, 2016년에 한국은 유형 5(가치 성숙형)(37.4%)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유형 2(행동 추구형)(5.3%)의 비중이 미미하였다. 홍콩은 유형 4(가치 성숙형) (36.2%)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유형 2(행동 추구형)(4.9%)의 비중이 미미하였다. 대만은 유형 5(가치 성숙형)(60.3%)이 지배적이었으며 유형 2(행동 추구형) (1.9%)의 비중이 미미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치 성숙형’(47.2%)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행동 추구형’(3.7%)의 비중이 가장 적었다. 3개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도 간 유형 비중의 변화는 3개국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적 가치수준이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I-32 조사연도별 3개국 사회참여역량 유형 빈도 및 비율

조사연도	국가		사회참여역량 유형					전체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2009년	한국	N	452	93	895	2,480	1,029	4,949
		%	9.1%	1.9%	18.1%	50.1%	20.8%	100.0%
	홍콩	N	552	209	759	701	481	2,702
		%	20.4%	7.7%	28.1%	25.9%	17.8%	100.0%
	대만	N	914	143	1,025	1,308	1,466	4,856
		%	18.8%	2.9%	21.1%	26.9%	30.2%	100.0%
	전체	N	1,918	445	2,679	4,489	2,976	12,507
		%	15.3%	3.6%	21.4%	35.9%	23.8%	100.0%
2016년	한국	N	606	124	466	273	878	2,347
		%	25.8%	5.3%	19.9%	11.6%	37.4%	100.0%
	홍콩	N	421	112	667	249	823	2,272
		%	18.5%	4.9%	29.4%	11.0%	36.2%	100.0%
	대만	N	622	72	517	257	2,227	3,695
		%	16.8%	1.9%	14.0%	7.0%	60.3%	100.0%
	전체	N	1,649	308	1,650	779	3,928	8,314
		%	19.8%	3.7%	19.8%	9.4%	47.2%	100.0%

우선, 2009년도에 나타난 3개국의 유형분포 간에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Pearson's Chi-Square=1,072.05, df=8, $p<.001$). 이러한 통계적 유의성에 기초하여 분포 양상을 살펴보면, <그림 III-56>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세계 시민의식 수준이 현격이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적기는 하지만 성숙한 시민의식 및 시민지식 수준을 갖추면서 사회적 참여활동에 활발히 관여하는 집단적 경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홍콩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반하여 사회적 참여활동을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집단적 특성을 보였다. 한편, 대만은 시민의식 수준이나 지식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나 사회적 참여행동이 홍콩보다는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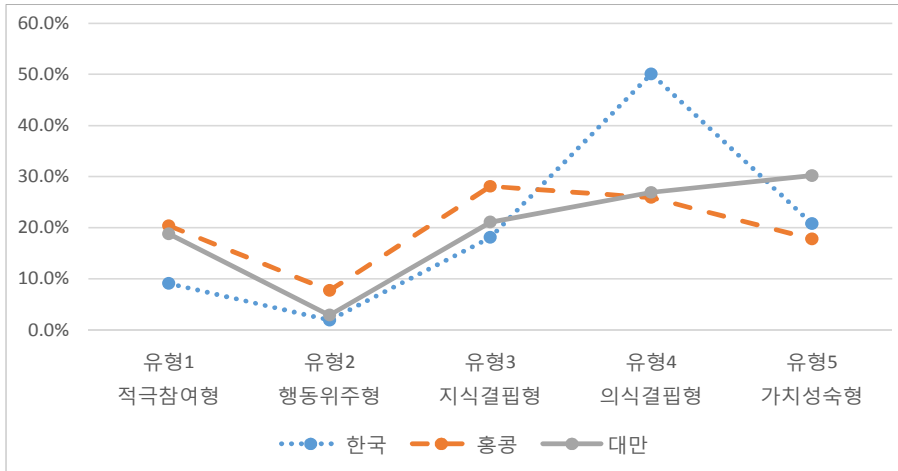


그림 III-56 2009년도 국가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한편, 2016년도 3개국의 역량유형 분포 상에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Pearson's Chi-Square=565.35, df=8, $p<.001$). <그림 III-57>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시민지식을 갖추고 사회적 참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집단적 특성이 강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참여에 대한 인식과 지식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참여활동에 소극적인 집단적 특성 또한 강하게 나타났다. 홍콩의 경우, 사회적 참여활동에 다소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시민의식이 성숙되어 있으나 사회적 참여활동에 필요한 시민지식 수준이 혼재되어 있는 특성을 보인다. 이는 홍콩 청소년들은 학교 내외에서 다소 활발하게 시민적 사회참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시민의식과 시민지식 수준이 높거나 낮은 집단적 특성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만의 경우, 시민적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고 이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시민지식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사회적 참여 행동이 다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적 특성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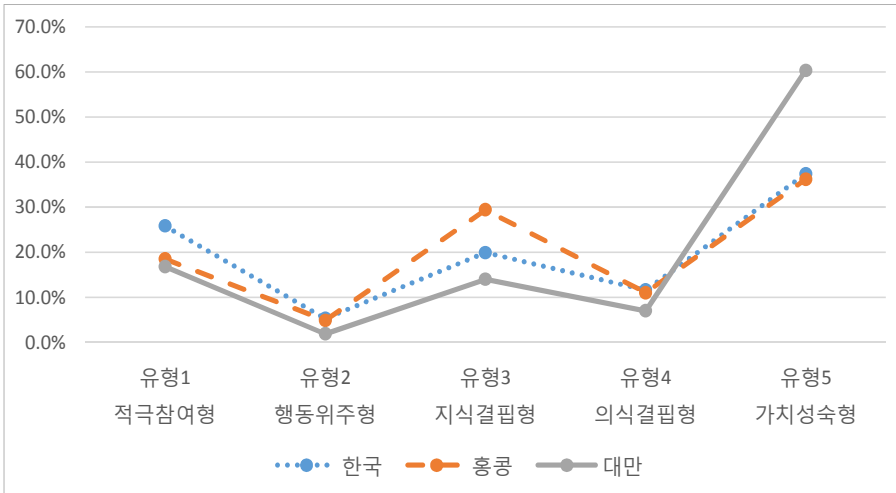


그림 III-57 2016년도 국가별 역량유형 분포 그래프

3개국의 시계열적 변화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가별 조사연도 간 역량유형 분포를 살펴보았다. 우선, 한국의 경우 <그림 III-58>에서 볼 수 있듯이 역량유형의 분포 상에 유의한 변화가 일어났다(Pearson's Chi-Square=1,163.31, df=4, $p<.001$). 한국 청소년 집단은 과거에 비해 시민적 참여에 대한 인식 수준이 고도화되었고 시민지식의 습득 수준이 높아졌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과거에 비해 성숙한 시민적 참여가치가 인식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행동을 통해 발현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과거에 지식 위주의 시민교육에서 다양한 사회적 참여를 경험케 하는 활동 위주의 시민교육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인프라의 발달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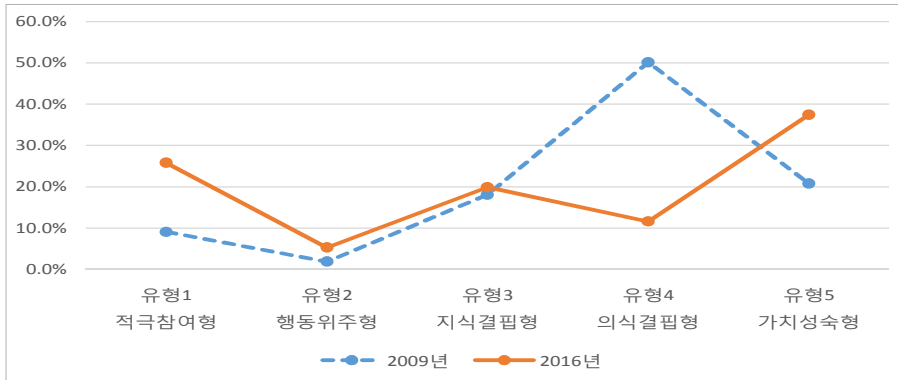


그림 III-58 한국의 조사연도별 유형 분포 그래프

홍콩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 특성에 시계열적인 변화가 확인되었다(Pearson's Chi-Square=322.88, df=4, $p<.001$). <그림 III-59>에서 볼 수 있듯이, 홍콩의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시민적 가치에 대한 인식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시민적 가치신념에 기반하여 사회적 참여활동에 관여하는 수준이 다소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특징이 있다. 과거 청소년들에게 있어 시민의식과 지식의 결핍이라는 집단적 특성 현재에 어느 정도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사회적 참여행동이 유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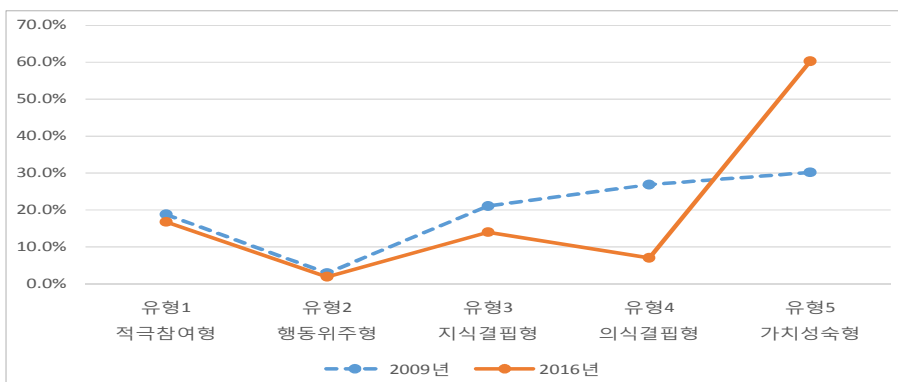


그림 III-59 홍콩의 조사연도별 유형 분포 그래프

대만의 경우에도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역량 특성상의 시계열적 변화가 확인되었다 (Pearson's Chi-Square=969.18, df=4, $p<.001$). 가치성숙형의 비중은 과거와는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높았고, 유의한 수준에서 '적극적 사회참여형'이 과거에 비해 그 비중이 줄어들었고, 지식 결핍형이 늘어났다. 이는 현재에도 대만 청소년들의 시민적 가치 수준이 매우 높지만, 사회참여활동을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데 유용한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데는 취약하다는 집단적 특성을 의미한다. 또한, 대만 청소년들은 시민적 가치신념 수준에 상응하는 사회참여적 행동 발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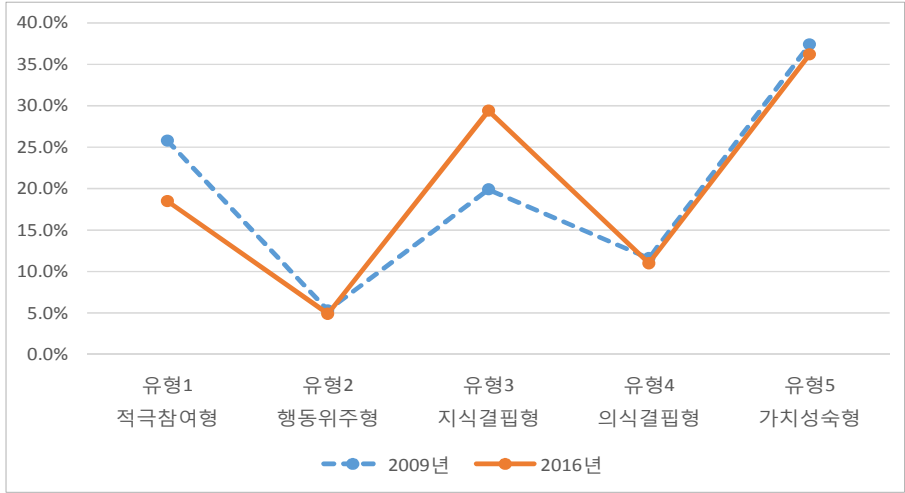


그림 III-60 대만의 조사연도별 유형 분포 그래프

○———— IV. 결론 및 정책 제언

- 1. 결론
- 2. 정책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ICCS2009와 ICCS2016에서 측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참여역량 모형을 설정하고, 우리나라 청소년 집단의 사회참여역량 수준과 특성을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ICCS 참여국 중 홍콩과 대만의 청소년 집단과 비교분석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 수준을 가늠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개의 하위연구가 설계되었다. 첫 번째 하위연구는 사회참여역량 모형에 따라 2009년도와 2016년도에 나타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역량상의 집단적 특성을 분석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참여역량을 정의적, 행동적, 인지적 영역에 걸친 요인들의 개념적 구성체로 모형화하고, 아시아 지역 국가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 모듈(Asian Regional Module, ARM)로 측정된 아시아 청소년 시민 의식을 정의적 요소로 반영하였다. 또한, 사회참여역량의 집단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하위요인의 수준과 특성이 반영된 역량유형을 발굴하여 유형의 분포를 통해 청소년 집단의 사회참여역량 경향성과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두번째 하위연구는 ICCS에 참여한 아시아 지역 국가 중 홍콩과 대만의 청소년 집단과의 사회참여역량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청소년 집단의 위상을 가늠해 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적 차원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사회참여역량 모형을

설계하였으며, 이 모형에 기반하여 3개국 청소년에 나타난 사회참여역량의 집단적 특성을 추출하고 이 특성에 따라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하위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ICCS2009와 ICCS2016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청소년 집단 내에 다섯 가지의 사회참여역량 유형을 확인하였다. 각 유형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적극적 참여형’은 성숙한 아시아 시민의식과 다소 높은 수준의 시민지식에 기반하여 사회적 참여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유형이다. ‘행동지향적 참여형’은 시민적 참여에 대한 가치신념이 덜 성숙되어 있고 시민지식 수준이 낮지만 학교 내외에서 적극적으로 사회참여적 행동을 발휘하는 유형이다. ‘소극적 참여형’은 시민참여적 가치신념과 지식수준이 낮으며 행동 차원의 사회적 참여 또한 소극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유형이다. ‘지적 방관주의형’은 시민적 사회참여에 대한 지식과 기술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동을 통한 사회적 참여활동에 소극적인 유형이다. ‘제한적 참여형’은 다소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나 학교 밖 사회적 참여활동에 소극적인 유형이다.

둘째, 이러한 사회참여역량 유형 분류에 따라 우리나라 청소년 집단에 나타난 유형 분포를 2009년과 2016년간 비교하였는데, 뚜렷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09년에는 분포 비중에 있어서 지적 방관주의형-소극적 참여형-제한적 참여형-행동지향적 참여형-적극적 참여형 순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행동을 통한 사회적 참여가 아닌 의식적, 인지적 수준에서 머무르는 경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편, 2016년에는 분포 비중에 있어서 적극적 참여형-행동지향적 참여형-지적 방관주의형-제한적 참여형-소극적 참여형 순으로 나타나 학교 내외에서 사회적 참여활동에 활발히 관여하는 경향성을 보여 과거와 확연히 다른 집단적 경향성을 보였다.

셋째, 개인, 가정, 학교수준의 배경요인에 따른 사회참여역량의 집단적 특성 변화를 살펴본 결과, 개인 수준의 성별요인은 사회참여역량의 집단적 경향성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응답자 본인의 기대학력 요인의 경우, 기대학력 수준이 높아

질수록 시민지식 수준이 높아져 적극적 참여형과 지적 방관주의형의 비중에 영향을 미쳤다. 가정수준의 부모 최종학력요인은 사회참여역량의 집단적 경향성을 뚜렷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의 경우, 관심도 수준이 높아질수록 시민의식 및 시민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참여적 행동의 수준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수준의 배경요인으로 학교규모와 지역사회 규모는 그 수준에 따른 부분적인 차이를 보였지만 뚜렷한 변화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의 교사 참여적 풍토와 교사의 태도는 그 수준에 따른 차이가 2009년에는 없었으나, 2016년에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참여에 대한 가치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지역사회 연계 사회활동 수준의 경우, 그 수준이 높아질수록 시민의식 및 지식수준에 상관없이 사회적 참여활동에의 적극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자치성의 경우, 그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참여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참여적 행동의 적극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제비교를 위해 3개국 청소년 집단에서 나타난 사회참여역량의 집단적 특성을 5개 유형으로 모형화 하였다. ‘적극적 행동참여형’은 민주시민적 참여에 대한 가치신념이 견고하고 높은 수준의 시민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학교 내외에서 활발히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유형이다. ‘참여활동 위주형’은 민주시민적 가치신념은 다소 미숙한 시민지식 수준도 낮지만 사회적 참여행동이 활발한 유형이다. ‘지식 결핍형’은 민주시민가치 및 행동참여 수준에 비해 인지적 수준이 두드러지게 낮은 유형이다. ‘의식 결핍형’은 인지적 능력수준은 높으나 민주시민적 가치신념이 미숙한 유형이다. ‘가치 성숙형’은 민주시민적 참여에 대한 가치신념 성숙도가 매우 높고 보통 이상의 인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참여적 행동이 다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형이다.

다섯째, 위 사회참여역량 유형 분류에 따라 조사연도별로 각 국가의 집단적 특성을 살펴보면, 2009년의 경우, 유형의 분포 비중에 있어 한국은 ‘의식 결핍형>가치 성숙형>지식 결핍형>적극적 참여형>참여행동’ 순으로 나타났고 홍콩은 ‘지식 결핍형>의식 결핍형>적극적 참여형>가치 성숙형>참여활동 위주형’ 순으로 나타

났으며 대만은 ‘가치 성숙형>의식 결핍형>지식 결핍형>적극적 참여형>참여활동 위주형’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민주시민적 참여에 대한 가치 인식 수준이 낮고 사회활동에의 행동적 참여 또한 낮은 집단적 특성을 보였다. 2016년에 한국은 ‘가치 성숙형>적극적 참여형>지식 결핍형>의식 결핍형>참여활동 위주형’ 순으로 유형 분포를 나타내 2009년과 비교해보면 민주시민 가치에 대한 의식적 성장과 사회활동 참여의 활성화라는 집단적 특성의 변화를 보였다. 홍콩은 ‘가치 성숙형>지식 결핍형>적극적 참여형>의식 결핍형>참여활동 위주형’ 순으로 가치 성숙형이 지배적인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과 비교해보면 민주시민 가치에 대한 의식적 성장이 두드러지며 시민지식 수준이 다소 낮아진 변화를 보였다. 대만은 ‘가치 성숙형>적극적 참여형>지식 결핍형>의식 결핍형>참여활동 위주형’ 순으로 2009년과 비교해보면 민주시민적 가치신념 수준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인지적 수준은 낮아졌으나 사회적 참여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집단적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이 다른 비교국가에 비해 민주시민적 가치신념에 기반한 사회적 참여행동을 수행하는 청소년들의 집단적 경향성이 짙어진 변화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2. 정책 제언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비춰진 교육적, 사회문화적, 학문적 시사점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 과거에 비해 우리 청소년들의 민주적 시민의식 수준이 향상되었고 이에 상응하는 사회참여적 행동 수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역량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미경 외, 2016), 학생들의

주체적 참여활동을 강조하는 자유학기제의 시행(교육부, 2015.11.25), 학교의 지역사회 연계 활동의 확대 등과 같은 교육적 노력의 효과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 청소년 집단과 홍콩, 대만 청소년 집단에서 부분적으로 확인된 시민의식과 참여행동의 괴리는 여전히 교육적 해결과제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인지 중심의 학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경험적 학습을 통하여 시민참여적 가치체계를 정립하도록 교육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성과 관련한 주제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정부 및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활동 프로그램의 제공, 학교의 참여지향적 풍토 조성 등과 같은 학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교 내 사회적 상호작용 수준은 높으나 학교 밖 사회참여 활동 수준이 낮은 부분적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학교 밖 사회는 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민적 참여기회가 존재하며, 이러한 기회의 경험을 통해 민주시민적 참여에 대한 의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 밖에서도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지역사회 기반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져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보여준 사회참여역량의 집단적 특성 변화를 시계열적 비교를 통해 확인하였다. 과거에 비해 민주시민적 참여의식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실제 행동을 통한 사회적 참여 수준이 높아졌다. 이는 우리나라의 시민사회적 발달을 보여주는 주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무엇에 기인한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개인/가정/학교수준의 요인을 활용하여 영향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09년과 2016년에 나타난 주요한 변화 양상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세계 시민사회의 발달, 우리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 또는 일관된 시민교육 정책의 추진 등과 같은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요인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보다 광범위한

연구 틀을 설계하고 잠재적 영향요인들의 개별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고려한 복합적 기능을 규명할 수 있는 체계적인 학문적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표준화된 사회참여역량 진단 모형을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종단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 특성의 변화를 관찰하고 영향요인에 대한 경험적인 자료를 지속적으로 쌓아나가야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들은 우리 시민사회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교육적, 사회문화적 과제 및 실행전략의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비교연구를 위한 사회참여역량 모형의 구성에 제한점이 있다. ARM은 아시아 지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시민의식을 측정하는 도구이며 이러한 아시아 시민의식은 사회참여역량의 정의적 하위요인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교국가의 ARM 자료가 통합처리 되지 않아, ICCS에서 세계 참여국 공통으로 사용한 민주시민 가치 측정도구로 대체하였다. 향후 자료통합이 완료되면 아시아 지역의 맥락에 보다 충실한 사회참여역량 모형으로 아시아 지역 국가 간 비교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김태준, 박인영, 이호경, 오민아(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II: IEA ICCS 2016-사회참여역량 측정 및 분석 연구 (연구보고 16-R18-3).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태준, 백선희(201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 IEA ICCS 2016-사회참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보고 14-R20-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태준, 오민아, 이영훈(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I: IEA ICCS 2016-청소년의 사회참여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분석 연구 (연구보고 15-R18-3).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태준, 홍영란, 김홍민(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V: IEA ICCS 2016-사회참여역량 분석 (연구보고 17-R17-3).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미경, 주형미, 이근호, 이영미, 김영은, 이주연 외(2016). 21세기 역량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방향 연구: OECD Education 2030 (연구보고 RRC 2016-5).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II: IEA ICCS 2016-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연구보고 16-R18-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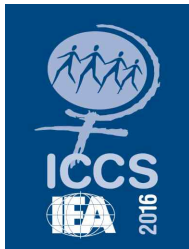
교육부(2015. 11.25). 학생의 꿈과 끼를 키워 행복교육을 실현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안). 교육부 웹사이트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61401&lev=0&searchType=S&statusYN=C&page=1&s=moe&m=0204&opType=N> 에서 2018년 12월 26일 인출.

- Benton, T., Cleaver, E., Featherstone, G., Kerr, D., Lopes, J., & Whitby, K. (2008). Young people's civic participation in and beyond school: Attitudes, intentions and influences. Research Report No DCSF-RR052, Citizenship Education Longitudinal Study(CELS): Sixth Annual Report. National Foundation for Educational Research. Nottingham: DCSF
- Hahn(1998). *Becoming political: Comparative perspectives on citizenship education*.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Hoskins, B., Janmaat, J. G., & Villalba, C. (2012). Learning citizenship through social participation outside and inside school: An international, multilevel study of young people's learning of citizenship.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8(3), 419-446
- Hoskins, B., Saisana, M., & Villalba, C. (2015). Civic competence of youth in Europe: Measuring cross national variation through the creation of a composite indicator.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2), 431-457.
- Schulz, W., Ainley, J., & Fraillon, J. (2011). IEA civic education study technical report. Amsterdam,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 Schulz, W., Fraillon, J., Ainley, J., Losito, B., & Korr, D. (2008).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Assessment framework. Amsterdam: IEA

- Torney-Purta, J. (2002). Patterns in the civic knowledge, engagement, and attitudes of European adolescents: The IEA civic education study. *European Journal of Education*, 37(2), 129-141
- Torney-Purta, J., Lehmann, R., Oswald, H., & Schulz, W. (2001). Citizenship and education in twenty eight countries: Civic knowledge and engagement at age fourteen. Amsterdam, Netherlands: IEA
- Torney-Purta, J., Schwille, J., & Amadeo, J. A. (1999). Civic education across countries: Twenty-four national case achievement. Amsterdam, The Netherlands: IEA

○ — 부 록

[부록] 측정 도구



[Placeholder for identification label]
(105 x 35 mm)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IEA)

국제 시민 및 시민의식 교육 조사(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ICCS) 2016

학생설문지

본조사 버전

[한국어]

Copyright © IEA 2015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International Study Consortium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IEA),
The Netherlands

Australian Council for Educational Research (ACER), Australia
Laboratorio di Pedagogia Sperimentale (LPS), Roma Tre University, Italy
IEA Data Processing and Research Center (IEA DPC), Germany

학생 설문지 소개

이 설문지에서 여러분은:

-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
- 여러분의 교내외 활동,
- 다양한 정치·사회적 사안

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에 대한 질문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고 최대한 정확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 설문지에서, 여러분은 주로 상자에 V표를 하는 것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문지에는 짧은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문항도 일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상자에 V표를 하다가 실수를 한다면, 여러분의 오답에 줄을 긋거나 지운 다음 올바른 상자에 표시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하다 잘못 작성한 경우 간단히 줄을 긋고 그 옆에 정확한 답안을 작성하십시오.

이 설문지에는 정답 또는 오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답안이 여러분에게 옳은 것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다른 사람들의 응답과 취합되어 총계를 내고 평균 정보를 얻게 되므로 응답자가 누구인지 식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응답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1. 일반사항

Q1 귀하는 언제 태어났습니까?

(태어난 년도와 월을 쓰세요)

_____ 년 월

Q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여 ☐ 1

남 ☐ 2

Q3 귀하는 최종적으로 학교를 어느 수준까지 다닐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4 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 1

전문대학 졸업 ☐ 2

고등학교(인문계/실업계) 졸업 ☐ 3

중학교 졸업 혹은 중퇴 ☐ 4

2. 가정환경과 가족관계

이 영역에서는 귀하의 가족과 귀하의 가정에 대한 질문들에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몇몇 질문은 가정 및 부모님 또는 귀하를 돌보는 보호자(예를 들면 양부모)에 대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귀하의 부모님 혹은 보호자가 다수인 경우, 귀하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모님 혹은 보호자에 대해 다음 질문들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Q3b 다음 중 당신과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예	아니오
a) 어머니	☐ 1	☐ 2
b) 여성 보호자	☐ 1	☐ 2
c) 아버지	☐ 1	☐ 2
d) 남성 보호자	☐ 1	☐ 2
e) 형제 자매(이복 형제 및 자매)	☐ 1	☐ 2
f)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	☐ 1	☐ 2
g) 기타	☐ 1	☐ 2

Q4 귀하와 귀하의 부모님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셨습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본인	어머니 또는 여성 보호자	아버지 또는 남성 보호자
대한민국	☐ 1	☐ 1	☐ 1
미주	☐ 2	☐ 2	☐ 2
유럽	☐ 3	☐ 3	☐ 3
아시아(한국 제외)	☐ 4	☐ 4	☐ 4
오세아니아	☐ 5	☐ 5	☐ 5
기타	☐ 6	☐ 6	☐ 6

Q5 귀하는 집에서 주로 어느 나라 언어를 사용합니까?

(하나를 골라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 | | | |
|---------------|--------------------------|---|
| 한국어 | ☐ | 1 |
| 영어 | ☐ | 2 |
| 중국어/일본어 | ☐ | 3 |
| 프랑스어 | ☐ | 4 |
| 기타 | ☐ | 5 |

Q6a 귀하의 어머니(또는 여성 보호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예 : 교사, 주방 보조, 영업부 부장)

현재 직업이 없으시다면, 가장 최근에 가지셨던 직업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직업을 가지신 적이 없다면 현재 하고 계신 일을 적어 주세요.

Q7 귀하의 어머니(또는 여성 보호자)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어떠한 박스에 체크해야 할 지 잘 모르겠다면, 조사담당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 | | | |
|------------------------|--------------------------|---|
| 4 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 ☐ | 1 |
| 전문 대학 졸업 | ☐ | 2 |
| 고등학교(인문계/실업계) 졸업 | ☐ | 3 |
| 중학교 졸업 | ☐ | 4 |
|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음 | ☐ | 5 |

Q8a 귀하의 아버지(또는 남성 보호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예 : 교사, 주방 보조, 영업부 부장)

현재 직업이 없으시다면, 가장 최근에 가지셨던 직업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직업을 가지신 적이 없다면 현재 하고 계신 일을 적어주세요.

Q8b 귀하의 아버지(또는 남성 보호자)는 직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 :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신다, 음식점에서 요리사를 도와 음식을 준비하신다, 영업부 관리를 하신다)

예전 직장에서 하셨거나 현 직장에서 하고 계시는 일을 완성된 문장으로 적어주세요.

Q9 귀하의 아버지(또는 남성 보호자)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어떠한 박스에 체크해야 할 지 잘 모르겠다면, 조사담당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 4 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 1
 전문 대학 졸업 ☐ 2
 고등학교(인문계/실업계) 졸업 ☐ 3
 중학교 졸업 ☐ 4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음 ☐ 5

Q10 귀하와 귀하의 부모님께서는 정치적·사회적 사안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 | | 매우
관심
있음 | 대체로
관심
있음 | 별로
관심
없음 | 전혀
관심
없음 |
|-------------------------|----------------------------|----------------------------|----------------------------|----------------------------|
| a) 나(본인) | ☐ 1 | ☐ 2 | ☐ 3 | ☐ 4 |
| b) 어머니(또는 여성 보호자) | ☐ 1 | ☐ 2 | ☐ 3 | ☐ 4 |
| c) 아버지(또는 남성 보호자) | ☐ 1 | ☐ 2 | ☐ 3 | ☐ 4 |

Q11 귀택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은 어느 정도입니까?

잡지, 신문, 만화책이나 교과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 거의 없다(10 권 이내) ☐ 1
 책꽂이 한칸 분량 (11-25 권 정도) ☐ 2
 책장 하나 분량 (26-100 권 정도) ☐ 3
 책장 두개 분량 (101-200 권 정도) ☐ 4
 책장 세개 이상 (200 권 이상) ☐ 5

Q12 일반적으로 다음에 제시된 기기 중 귀하가 집에서 사용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해당란에 V 표 하여주세요)

	없음	한 대	두 대	세 대 이상
a) 데스크톱 컴퓨터나 휴대용 컴퓨터 (랩톱, 노트북, 넷북)	☐	☐	☐	☐
b) 태블릿 장치 또는 전자책 리더기 (예 : 아이패드 혹은 킨들, 아이리버 K 등)	☐	☐	☐	☐
c)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휴대전화 (예: 스마트폰)	☐	☐	☐	☐

Q13 집에서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습니까?

- 예 ☐ 1
- 아니오 ☐ 2

3. 학교 밖 활동

Q14 귀하는 방과 후 학교 밖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전혀 하지 않음	최소 한 달에 한 번	최소 일주일에 한 번	매일 (거의 매일)
a)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대해 부모님과 이야기한다.	☐ 1	☐ 2	☐ 3	☐ 4
b) 국가적/국제적 뉴스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 텔레비전 뉴스를 시청한다.	☐ 1	☐ 2	☐ 3	☐ 4
c) 국가적/국제적 뉴스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 신문을 읽는다.	☐ 1	☐ 2	☐ 3	☐ 4
d)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한다.	☐ 1	☐ 2	☐ 3	☐ 4
e)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해 부모님과 이야기한다.	☐ 1	☐ 2	☐ 3	☐ 4
f)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해 친구들과 토론한다.	☐ 1	☐ 2	☐ 3	☐ 4
g)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한다.	☐ 1	☐ 2	☐ 3	☐ 4
h)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이나 이미지(사진·그림)을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에 게시한다.	☐ 1	☐ 2	☐ 3	☐ 4
i)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의견을 제시한다.	☐ 1	☐ 2	☐ 3	☐ 4

Q15 귀하는 학교 밖에서 다음과 같은 집단이나 모임 또는 단체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지난 1 년 동안 활동 하였음	1 년 이전에 활동 하였음	전혀 활동한적 없음
a) 청소년 정당 단체	☐ 1	☐ 2	☐ 3
b) 환경 운동 단체나 조직	☐ 1	☐ 2	☐ 3
c) 인권운동단체	☐ 1	☐ 2	☐ 3
d) 자원봉사단체	☐ 1	☐ 2	☐ 3
e) 기부단체	☐ 1	☐ 2	☐ 3
f) 청소년 캠페인 활동	☐ 1	☐ 2	☐ 3
g) 동물 권리 및 복지 단체	☐ 1	☐ 2	☐ 3
h) 종교단체	☐ 1	☐ 2	☐ 3
i) 지역 사회 내 청소년 단체 (예 : 보이/걸 스카우트, YMCA)	☐ 1	☐ 2	☐ 3
j) 스포츠 팀	☐ 1	☐ 2	☐ 3

4. 학교

Q16 귀하는 학교에서 다음의 어떤 활동을 하였습니다니까?

초등학교 입학 이후 귀하가 다녔던 모든 학교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지난 1년동안 활동했음	1년 전에 활동했음	전혀 활동한적 없음
a) 학급 토론에 적극적 참여	☐ 1	☐ 2	☐ 3
b) 학급임원 혹은 학생회의 후보자에게 투표	☐ 1	☐ 2	☐ 3
c)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 1	☐ 2	☐ 3
d) 학생회의 토론 참여	☐ 1	☐ 2	☐ 3
e) 학급임원 이나 학생회의 후보자로 출마	☐ 1	☐ 2	☐ 3
f) 친환경적 학교를 만들기 위한 활동에 참여 (예: 물 절약이나 재활용을 통해) ...	☐ 1	☐ 2	☐ 3
g) 방과 후 학교의 음악활동과 드라마 활동에 자발적 참여	☐ 1	☐ 2	☐ 3

Q17 수업시간에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대해 토론할 때, 다음에 제시된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전혀 일어 나지 않음	일부 수업 에서 일어남	때때로 수업 에서 일어남	종종 수업 에서 일어남
a)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격려한다.	☐ 1	☐ 2	☐ 3	☐ 4
b) 선생님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의견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 1	☐ 2	☐ 3	☐ 4
c) 학생들은 현재의 정치적 사건을 학급 차원에서 토론한다.	☐ 1	☐ 2	☐ 3	☐ 4
d) 다른 학생들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학급 에서 자기의견을 표명한다.	☐ 1	☐ 2	☐ 3	☐ 4
e)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이슈를 토론하도록 권장 한다.	☐ 1	☐ 2	☐ 3	☐ 4
f) 선생님들이 학급에서 이슈를 설명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준다.	☐ 1	☐ 2	☐ 3	☐ 4

Q18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해 얼마나 배웁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많이 배움	어느 정도 배움	조금 배움	전혀 배우지 않음
a) 지방 선거 및 총선에서 시민이 투표 하는 방법	☐ ₁	☐ ₂	☐ ₃	☐ ₄
b) 한국에서 법률을 도입하고 개정하는 방법	☐ ₁	☐ ₂	☐ ₃	☐ ₄
c)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 (예: 에너지 절약이나 재활용을 통해)	☐ ₁	☐ ₂	☐ ₃	☐ ₄
d) 지역 사회에서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방법	☐ ₁	☐ ₂	☐ ₃	☐ ₄
e) 우리나라에서 시민권을 보호하는 방법	☐ ₁	☐ ₂	☐ ₃	☐ ₄
f) 다른 나라의 정치적 이슈 및 사건	☐ ₁	☐ ₂	☐ ₃	☐ ₄
g) 경제가 돌아가는 방법	☐ ₁	☐ ₂	☐ ₃	☐ ₄

Q19 다음에 제시된 문항에 대해 귀하는 얼마나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지 표시해 주세요.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 하지 않음	전혀 동의 하지 않음
a)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나를 공정하게 대해 주신다.	☐ 1	☐ 2	☐ 3	☐ 4
b) 학생들은 대부분의 선생님들과 잘 지낸다.	☐ 1	☐ 2	☐ 3	☐ 4
c)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학생 복지에 관심을 갖는다.	☐ 1	☐ 2	☐ 3	☐ 4
d)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진심으로 경청해주신다.	☐ 1	☐ 2	☐ 3	☐ 4
e)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선생님들은 내게 도움을 주실 것이다.	☐ 1	☐ 2	☐ 3	☐ 4
f)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괴롭 힘 당하는 것을 막아주신다.	☐ 1	☐ 2	☐ 3	☐ 4
g) 우리 학교 학생은 대부분 서로를 존 중한다.	☐ 1	☐ 2	☐ 3	☐ 4
h) 우리 학교 학생은 대부분 서로 사이 좋게 지낸다.	☐ 1	☐ 2	☐ 3	☐ 4
i)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다.	☐ 1	☐ 2	☐ 3	☐ 4
j) 나는 다른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 할까봐 두렵다.	☐ 1	☐ 2	☐ 3	☐ 4

Q20 지난 3개월 동안 귀하는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전혀 발생하지 않음	한 번	2-4번	5번 이상
a) 어느 학생이 기분 나쁜 별명으로 나를 불렀다.	☐ 1	☐ 2	☐ 3	☐ 4
b) 어느 학생이 나에 대해 말한 내용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했다.	☐ 1	☐ 2	☐ 3	☐ 4
c) 어느 학생이 나를 해치겠다고 위협을 가했다.	☐ 1	☐ 2	☐ 3	☐ 4
d) 나는 다른 학생으로부터 신체적인 공격을 당했다.	☐ 1	☐ 2	☐ 3	☐ 4
e) 어느 학생이 고의로 내 소유물을 망가뜨렸다.	☐ 1	☐ 2	☐ 3	☐ 4
f) 어느 학생이 인터넷에 나에 대한 모욕적인 그림이나 글을 올렸다.	☐ 1	☐ 2	☐ 3	☐ 4

Q21 다음과 같은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에 대한 진술문에 대해 귀하는 얼마나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지 표시해 주세요.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a) 학교운영방법에 대한 학생 참여는 학교를 더 좋게 만든다.	☐ 1	☐ 2	☐ 3	☐ 4
b) 학생들과 함께 작업할 경우 긍정적인 학교변화를 많이 가져올 수 있다. ...	☐ 1	☐ 2	☐ 3	☐ 4
c) 학생들을 대변하는 학생조직은 학교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1	☐ 2	☐ 3	☐ 4
d) 학생들이 혼자보다는 함께 행동한다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1	☐ 2	☐ 3	☐ 4
e) 학생 선거에 투표하는 것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1	☐ 2	☐ 3	☐ 4

5. 시민과 사회

Q22 아래의 내용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 중 일부는 민주주의를 이롭게 하고 강화시키지만, 일부는 민주주의를 해롭게 하고 약화시킵니다. 또 이 중 일부는 민주주의를 이롭게 하지도 또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생각하기에 다음에 제시된 상황이 민주주의에 얼마나 이로운지 말씀해 주세요.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민주주의에 이롭다	민주주의에 이롭지도 해롭지도 않다	민주주의에 해롭다
a)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공무원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1	☐ 2	☐ 3
b) 한 회사나 정부가 나라의 모든 신문사를 소유한다.	☐ 1	☐ 2	☐ 3
c)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정부를 비판할 수 있다.	☐ 1	☐ 2	☐ 3
d) 성인이라면 모두 자신의 정치 지도자를 선출할 권리가 있다.	☐ 1	☐ 2	☐ 3
e) 사람들이 법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 1	☐ 2	☐ 3
f) 경찰에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혐의가 있는 사람을 재판 없이 감옥에 가둘 권리가 있다.	☐ 1	☐ 2	☐ 3
g)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수입 격차가 적다.	☐ 1	☐ 2	☐ 3
h) 정부가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 1	☐ 2	☐ 3
i) 국가의 모든 인종/민족 집단이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 1	☐ 2	☐ 3

Q23 귀하는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다음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매우 중요함	상당히 중요함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a) 모든 선거 참여	☐ 1	☐ 2	☐ 3	☐ 4
b) 정당단체 가입	☐ 1	☐ 2	☐ 3	☐ 4
c) 역사 학습	☐ 1	☐ 2	☐ 3	☐ 4
d)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 상의 정치 이슈 주시	☐ 1	☐ 2	☐ 3	☐ 4
e) 정부대표들에 대한 존경심 표현 ·	☐ 1	☐ 2	☐ 3	☐ 4
f) 정치 토론 참여	☐ 1	☐ 2	☐ 3	☐ 4
g) 불공정한 법에 대항한 평화적 항의 참여	☐ 1	☐ 2	☐ 3	☐ 4
h) 지역 사회에 유익한 활동 참여 ...	☐ 1	☐ 2	☐ 3	☐ 4
i) 인권증진운동 참여	☐ 1	☐ 2	☐ 3	☐ 4
j) 환경보호운동 참여	☐ 1	☐ 2	☐ 3	☐ 4
k) 열심히 일하기	☐ 1	☐ 2	☐ 3	☐ 4
l) 항상 법을 준수하기	☐ 1	☐ 2	☐ 3	☐ 4
m) 가족의 경제적인 안녕을 보장하기 ..	☐ 1	☐ 2	☐ 3	☐ 4
n) 천연자원 보호를 위한 개인적 노력 (예 : 물 절약이나 재활용을 통해) ..	☐ 1	☐ 2	☐ 3	☐ 4
o) 자신의 의견을 가질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기	☐ 1	☐ 2	☐ 3	☐ 4
p)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 지원하기	☐ 1	☐ 2	☐ 3	☐ 4
q) 미개발 국가 국민 지원 활동 참여 하기	☐ 1	☐ 2	☐ 3	☐ 4

6. 권리와 책임

Q24 사회 안에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다음의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a) 모든 남녀는 정부가 하는 일에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	☐ 1	☐ 2	☐ 3	☐ 4
b) 모든 남녀는 모든 면에서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	☐ 1	☐ 2	☐ 3	☐ 4
c) 여성은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 1	☐ 2	☐ 3	☐ 4
d) 일자리가 없을 때,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많이 주어져야 한다.	☐ 1	☐ 2	☐ 3	☐ 4
e) 동일한 일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	☐ 1	☐ 2	☐ 3	☐ 4
f) 남성은 여성보다 정치지도자가 될 자격이 더 충분하다.	☐ 1	☐ 2	☐ 3	☐ 4
g) 여성의 우선적 책무는 아이를 보육하는 것이다.	☐ 1	☐ 2	☐ 3	☐ 4

Q25 여러 민족과 인종의 사회 권리와 책임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다음의 민족 집단 및 인종 간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a) 모든 인종 집단은 우리나라에서 동등한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 1	☐ 2	☐ 3	☐ 4
b) 모든 인종 집단은 우리나라에서 동등한 취업기회를 가져야 한다.	☐ 1	☐ 2	☐ 3	☐ 4
c) 학교는 학생들에게 모든 인종집단의 구성원을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	☐ 1	☐ 2	☐ 3	☐ 4
d) 모든 인종집단의 구성원들은 선거에 출마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 1	☐ 2	☐ 3	☐ 4
e) 모든 인종 집단의 구성원들은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가져야 한다.	☐ 1	☐ 2	☐ 3	☐ 4

7. 기관과 사회

Q26 귀하는 다음의 단체, 기관 혹은 정보출처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매우 신뢰함	상당히 신뢰함	약간 신뢰함	매우 불신함
a) 중앙 정부 부처	☐ 1	☐ 2	☐ 3	☐ 4
b) 지방 자치 정부	☐ 1	☐ 2	☐ 3	☐ 4
c) 법원	☐ 1	☐ 2	☐ 3	☐ 4
d) 경찰	☐ 1	☐ 2	☐ 3	☐ 4
e) 정당	☐ 1	☐ 2	☐ 3	☐ 4
f) 국회	☐ 1	☐ 2	☐ 3	☐ 4
g) 미디어(TV, 언론사, 라디오)	☐ 1	☐ 2	☐ 3	☐ 4
h) 소셜 미디어(예 : 트위터, 블로그 등) ...	☐ 1	☐ 2	☐ 3	☐ 4
i) 군대	☐ 1	☐ 2	☐ 3	☐ 4
j) 학교	☐ 1	☐ 2	☐ 3	☐ 4
k) 국제 연합 (UN)	☐ 1	☐ 2	☐ 3	☐ 4
l) 일반 대중	☐ 1	☐ 2	☐ 3	☐ 4

Q27 다음에 제시된 한국에 관한 진술문에 대해 귀하는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매우 동의함	동의함	전혀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a) 태극기는 나에게 중요하다.	☐ 1	☐ 2	☐ 3	☐ 4
b) 나는 한국에 높은 경의를 표한다.	☐ 1	☐ 2	☐ 3	☐ 4
c) 한국이 성취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 1	☐ 2	☐ 3	☐ 4
d) 나는 한국에 살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가진다.	☐ 1	☐ 2	☐ 3	☐ 4
e) 일반적으로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살기가 좋은 나라이다.	☐ 1	☐ 2	☐ 3	☐ 4

Q28 다음에 제시된 이슈들은 세계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것들입니다.
 다음과 같은 세계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상당히 심각함	대체로 심각함	약간 심각함	전혀 심각하지 않음
a) 오염	☐ 1	☐ 2	☐ 3	☐ 4
b) 에너지 고갈	☐ 1	☐ 2	☐ 3	☐ 4
c) 세계적 금융 위기	☐ 1	☐ 2	☐ 3	☐ 4
d) 범죄	☐ 1	☐ 2	☐ 3	☐ 4
e) 물 부족	☐ 1	☐ 2	☐ 3	☐ 4
f) 폭력적 갈등	☐ 1	☐ 2	☐ 3	☐ 4
g) 빈곤	☐ 1	☐ 2	☐ 3	☐ 4
h) 식량 부족	☐ 1	☐ 2	☐ 3	☐ 4
i) 기후 변화	☐ 1	☐ 2	☐ 3	☐ 4
j) 실업	☐ 1	☐ 2	☐ 3	☐ 4
k) 인구 증가	☐ 1	☐ 2	☐ 3	☐ 4
l) 전염병 (예: 조류 독감, 에이즈) ...	☐ 1	☐ 2	☐ 3	☐ 4
m) 테러	☐ 1	☐ 2	☐ 3	☐ 4

8. 사회 참여

Q29 다음의 활동 각각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매우 바람직 함	대체로 바람직 함	대체로 바람직 하지못함	전혀 바람직 하지못함
a) 국가 간 갈등에 대한 신문기사 토론 ..	☐ 1	☐ 2	☐ 3	☐ 4
b)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 주장	☐ 1	☐ 2	☐ 3	☐ 4
c) 학교선거 후보자 출마	☐ 1	☐ 2	☐ 3	☐ 4
d) 학교발전을 위해 학생집단 구성	☐ 1	☐ 2	☐ 3	☐ 4
e) 논쟁이슈에 대한 텔레비전 토론 참여	☐ 1	☐ 2	☐ 3	☐ 4
f) 신문사에 현재 이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신으로 보내기	☐ 1	☐ 2	☐ 3	☐ 4
g)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대해 학급에서 연설하기	☐ 1	☐ 2	☐ 3	☐ 4

Q30 시민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일에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귀하는 미래에 다음에 제시된 정치적 반대 활동에 참여할 생각이 있습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확실히 참여함	아마도 참여함	아마도 참여하지 못함	확실히 참여하지 못함
a) 정치·사회적 사안에 대한 자신의 시각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 1	☐ 2	☐ 3	☐ 4
b) 선출직 공무원과 접촉하기	☐ 1	☐ 2	☐ 3	☐ 4
c) 평화 행진이나 집회 참여하기	☐ 1	☐ 2	☐ 3	☐ 4
d) 진정서 서명 모으기	☐ 1	☐ 2	☐ 3	☐ 4
e) 정치·사회적 사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 참여하기	☐ 1	☐ 2	☐ 3	☐ 4
f) 논란이 일고 있는 정치·사회적 사안에 대한 입장을 취하기 위해 온라인 단체 조직하기	☐ 1	☐ 2	☐ 3	☐ 4
g) 온라인 캠페인 참여하기	☐ 1	☐ 2	☐ 3	☐ 4
h) 사회 정의를 지지하기 위해 특정 제품 (예: 공정 무역 상품, 윤리적 기업 제품) 구매하기	☐ 1	☐ 2	☐ 3	☐ 4
i) 항의 표시로 벽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표어를 쓰기	☐ 1	☐ 2	☐ 3	☐ 4
j) 도로 봉쇄하고 시위하기	☐ 1	☐ 2	☐ 3	☐ 4
k) 항의 표시로 공공 건물 점거하기 ..	☐ 1	☐ 2	☐ 3	☐ 4

Q31 아래의 내용은 성인들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에 관한 것입니다.

귀하가 성인이 되면, 귀하는 아래에 제시된 정치적 활동에 얼마나 참여할 생각입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확실히 참여함	아마도 참여함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확실히 참여하지 않음
a) 지역수준에서의 투표(예 : 기초 및 광역의회 선거 등) 참여	☐ 1	☐ 2	☐ 3	☐ 4
b) 국가수준에서의 투표(예 :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참여	☐ 1	☐ 2	☐ 3	☐ 4
c) 투표하기 전 후보자의 정보 수집	☐ 1	☐ 2	☐ 3	☐ 4
d)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후보자나 정당을 돕기	☐ 1	☐ 2	☐ 3	☐ 4
e) 정당 가입	☐ 1	☐ 2	☐ 3	☐ 4
f) 노조 가입	☐ 1	☐ 2	☐ 3	☐ 4
g) 지방 선거 후보자 출마	☐ 1	☐ 2	☐ 3	☐ 4
h) 사회적/정치적 문제해결을 위한 단체 가입	☐ 1	☐ 2	☐ 3	☐ 4
i) 지역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자원봉사활동	☐ 1	☐ 2	☐ 3	☐ 4
j) 환경 보호를 위한 개인적 노력 (예 : 물 절약)	☐ 1	☐ 2	☐ 3	☐ 4

Q32 아래의 내용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입니다.

귀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각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매우 많음	많음	별로 없음	전혀 없음
a) 학급 임원이나 학생회 선거에서 투표	☐ 1	☐ 2	☐ 3	☐ 4
b) 내가 찬성하는 이슈를 위해 학생운동 단체에 가입	☐ 1	☐ 2	☐ 3	☐ 4
c) 학급 임원이나 학생회 선거에 후보자로 나섬	☐ 1	☐ 2	☐ 3	☐ 4
d) 학생회 회의에서 토의에 참여	☐ 1	☐ 2	☐ 3	☐ 4
e) 학교 신문이나 웹사이트의 기사 작성에 참여	☐ 1	☐ 2	☐ 3	☐ 4

9. 자신과 종교

Q33 귀하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 종교없음 ☐ 1
- 불교 ☐ 2
- 개신교(기독교) ☐ 3
- 천주교(가톨릭) ☐ 4
- 기타 종교 ☐ 5

Q34 귀하는 어느 정도 종교 행사에 참여합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 전혀 참여하지 않음 ☐ 1
- 1 년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음 ☐ 2
- 1 년에 최소한 한 번 참여함 ☐ 3
- 한 달에 최소한 한 번 참여함 ☐ 4
- 1 주일에 최소한 한 번 참여함 ☐ 5

Q35 귀하는 다음의 종교 관련 항목들에 대해 얼마나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 | | 매우
동의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 a) 종교는 나에게 국가 정치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 | ☐ 1 | ☐ 2 | ☐ 3 | ☐ 4 |
| b) 종교는 나에게 옳고 그름을 구별하도록 한다. | ☐ 1 | ☐ 2 | ☐ 3 | ☐ 4 |
| c) 종교 지도자는 더 많은 사회적 권력을 가져야 한다. | ☐ 1 | ☐ 2 | ☐ 3 | ☐ 4 |
| d) 종교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행동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 ☐ 1 | ☐ 2 | ☐ 3 | ☐ 4 |
| e) 종교에 기초한 삶의 규칙은 국내법보다 더 중요하다. | ☐ 1 | ☐ 2 | ☐ 3 | ☐ 4 |
| f)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선택한 종교 생활을 실천할 자유가 있다. | ☐ 1 | ☐ 2 | ☐ 3 | ☐ 4 |
| g) 종교인들은 더 좋은 시민이다. | ☐ 1 | ☐ 2 | ☐ 3 | ☐ 4 |

10. 아시아 지역 국가

Q36 자국정부의 역할에 관한 진술에 대해 얼마나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a) 정부는 부모가 아이를 돌보듯이 시민을 돌봐야 한다.	☐ 1	☐ 2	☐ 3	☐ 4
b) 모든 사람이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면 정부가 민주적이든, 비민주적이든 상관 없다.	☐ 1	☐ 2	☐ 3	☐ 4
c) 시민의 종교심 또는 신앙심을 고취 시키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 1	☐ 2	☐ 3	☐ 4
d) 시민의 생각을 반영하고만 있다면 정부가 민주적이든, 비민주적이든 상관없다.	☐ 1	☐ 2	☐ 3	☐ 4
e) 정부가 일을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 비민주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 1	☐ 2	☐ 3	☐ 4
f) 정부의 권력이 강할수록 시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쉽다.	☐ 1	☐ 2	☐ 3	☐ 4
g)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 1	☐ 2	☐ 3	☐ 4

Q37 사회에서 행동을 잘하는 것에 대한 다음 진술에 대해 얼마나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a)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항상 어른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 1	☐ 2	☐ 3	☐ 4
b) 사회적 조화를 위해서 우리는 이웃의 그릇된 행동도 참아야 한다.	☐ 1	☐ 2	☐ 3	☐ 4
c)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항상 당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한다. ...	☐ 1	☐ 2	☐ 3	☐ 4
d)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항상 선생님에게 순종해야 한다.	☐ 1	☐ 2	☐ 3	☐ 4
e) 사회적 화합을 위해서 동급생이나 직장 동료들은 서로 싸우면 안 된다. ...	☐ 1	☐ 2	☐ 3	☐ 4
f)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항상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	☐ 1	☐ 2	☐ 3	☐ 4
g)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누군가의 체면을 세우는 일보다 중요하다.	☐ 1	☐ 2	☐ 3	☐ 4

Q38 자국의 전통문화에 관한 다음 진술에 대해 얼마나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a) 나는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 대해 배울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싶다.	☐ 1	☐ 2	☐ 3	☐ 4
b) 우리나라 문화는 다른 나라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특한 문화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	☐ 1	☐ 2	☐ 3	☐ 4
c) 우리나라 전통 문화가 우리문화유산을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 전통 문화의 부분이 보존되어야 한다.	☐ 1	☐ 2	☐ 3	☐ 4
d) 나는 우리전통문화를 보존하는데에 책임감을 느낀다.	☐ 1	☐ 2	☐ 3	☐ 4

Q39 자국의 법과 사법체계에 관한 다음 진술에 대해 얼마나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우리나라에서...	매우		전혀	
	동의함	동의함	않음	동의하지 않음
a) 법은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의 편이다. ...	☐ 1	☐ 2	☐ 3	☐ 4
b)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 1	☐ 2	☐ 3	☐ 4
c) 정치인들 정부는 자주 법원의 결정에 간섭한다.	☐ 1	☐ 2	☐ 3	☐ 4
d) 법원은 법을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다. ...	☐ 1	☐ 2	☐ 3	☐ 4
e) 법 체계에 부정부패는 없다.	☐ 1	☐ 2	☐ 3	☐ 4

Q40 공무원과 정치인에 대한 다음 진술에 대해 얼마나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매우		전혀	
	동의함	동의함	않음	동의하지 않음
a) 일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 관료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	☐ 1	☐ 2	☐ 3	☐ 4
b) 정치인들의 정직성과 도덕성은 그/그녀의 능력보다 중요하다.	☐ 1	☐ 2	☐ 3	☐ 4
c) 공무원이 그/그녀가 일하는 기관에서 그/그녀의 이익을 위해 그 기관의 재원을 사용해도 상관없다.	☐ 1	☐ 2	☐ 3	☐ 4
d) 정치적 지도자들은 도덕성의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한다.	☐ 1	☐ 2	☐ 3	☐ 4
e)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것은 어른들의 일이므로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 1	☐ 2	☐ 3	☐ 4
f) 정치인들은 그들의 가족이 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 1	☐ 2	☐ 3	☐ 4
g) 정치인들은 그들의 가족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	☐ 1	☐ 2	☐ 3	☐ 4
h) 정치인들은 그들의 가족구성원이 범법 행위를 하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 1	☐ 2	☐ 3	☐ 4

Q41 아시아 지역과 아시아인의 정체성에 관한 다음 진술에 대해 얼마나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a) 나는 나 스스로를 아시아의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 1	☐ 2	☐ 3	☐ 4
b) 나는 나 스스로를 세계의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 1	☐ 2	☐ 3	☐ 4
c) 아시아 국가들은 EU 처럼 지역적인 협력을 위해 아시아연합 AU를 발달시켜야 한다.	☐ 1	☐ 2	☐ 3	☐ 4
d) 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아시아의 경제적 성장이 자랑스럽다.	☐ 1	☐ 2	☐ 3	☐ 4
e) 나는 아시아인인 것이 자랑스럽다. ...	☐ 1	☐ 2	☐ 3	☐ 4
f) 나는 아시아 문화와 전통이 자랑스럽다. ...	☐ 1	☐ 2	☐ 3	☐ 4
g) 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아시아 민주주의의 발전이 자랑스럽다.	☐ 1	☐ 2	☐ 3	☐ 4
h) 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아시아의 인권이 성장한 것이 자랑스럽다.	☐ 1	☐ 2	☐ 3	☐ 4
i) 서양 국가들은 아시아 국가들보다 자랑스러워 할 것이 더 많다.	☐ 1	☐ 2	☐ 3	☐ 4
j) 아시아의 몇몇 국가가 전체 아시아 사회의 발달을 결정 지을 것이다.	☐ 1	☐ 2	☐ 3	☐ 4
k) 서양 국가들은 아시아 국가들에게서 배울 것이 많다.	☐ 1	☐ 2	☐ 3	☐ 4
l) 나는 다른 아시아의 젊은이들과 공감대를 느끼는 것이 많다.	☐ 1	☐ 2	☐ 3	☐ 4

Q42 좋은 시민이 되는 것에 관한 다음 진술에 대해 얼마나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a)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좋은 시민이다. ..	☐ 1	☐ 2	☐ 3	☐ 4
b) 법은 준수하지만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시민이 아니다. ..	☐ 1	☐ 2	☐ 3	☐ 4
c) 좋은 도덕성을 가진 사람만이 좋은 시민이 될 수 있다.	☐ 1	☐ 2	☐ 3	☐ 4
d)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보다는 도덕성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	☐ 1	☐ 2	☐ 3	☐ 4
e) 자기 수양은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의 하나이다.	☐ 1	☐ 2	☐ 3	☐ 4
f)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정신적 성숙이 중요하다.	☐ 1	☐ 2	☐ 3	☐ 4
g) 상황에 적절하게 행동하는 사람일지라도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좋은 시민이 될 수 없다.	☐ 1	☐ 2	☐ 3	☐ 4

Q43 선거 또는 다른 공시들과 관련된 다음 진술에 대해 얼마나 긍정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a) 선거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있더라도 지역연고자 또는 고향 출신자에게만 투표해야 한다.	☐ 1	☐ 2	☐ 3	☐ 4
b) 우리와 연고가 있는 후보자만이 당선 이후에도 진정 우리를 위해 일할 것이다. ..	☐ 1	☐ 2	☐ 3	☐ 4
c) 만약에 어떤 후보자가 나의 친구나 친인척 이라면 그/그녀가 그 일에 최적임자가 아니더라도 그/그녀를 뽑아야 한다. ...	☐ 1	☐ 2	☐ 3	☐ 4
d) 공무원이 공공기관에 사람들을 고용할 때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 1	☐ 2	☐ 3	☐ 4
e) 공무원이 정부계약을 그 일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 1	☐ 2	☐ 3	☐ 4

2018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8-R01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청소년활동정책 전략 연구 / 이경상·이창호·김민
- 18-R02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 김희진·백혜정·김은정
- 18-R02-1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 기초분석 보고서 / 김희진·백혜정
- 18-R03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및 방지 대책 연구 / 최정원·강경균·강소영·김혁
- 18-R04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Ⅰ / 황여정·김승경
- 18-R05 20대 청년 심리·정서 문제 및 대응방안 연구 / 김지경·이윤주
- 18-R06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 김형주·임지연·유설희
- 18-R06-1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보고서 / 김형주·임지연·유설희
- 18-R06-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임지연·유설희
- 18-R07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Ⅴ / 임희진·문호영·정정호
- 18-R07-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Ⅴ - 기초분석보고서 / 임희진·문호영
- 18-R08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 김지연·이유진·정소연·박선영
- 18-R08-1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 기초분석 보고서 / 김지연·정소연
- 18-R09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Ⅰ / 정은주·김정숙
- 18-R10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 체계화 방안 연구 / 최용환·성윤숙·박상현
- 18-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Ⅵ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분석 및 청소년동아리활동과 마을공동체 지원 방안 / 오해섭·최인재·염유식
- 18-R1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총괄보고서 / 최창욱·황세영·유민상·이민희·김진호
- 18-R1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황세영·유민상
- 18-R13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Ⅸ : 사업보고서 / 하형석·이종원·정은진·김성은·한지형
- 18-R14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2018 : 총괄보고서 / 양계민·황진구·연보라·정윤미
- 18-R14-1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2018 - 신규패널설계보고서 / 양계민
- 18-R14-2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2018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정윤미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Ⅴ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장근영·성은모·모상현·진성희·최효선·김균희(자체번호 18-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Ⅴ : IEA ICCS 2016 - ICCS 결과 보고서 / 장근영 (자체번호 18-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Ⅴ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분석 / 김태준·홍영란·김미란·김홍민 (자체번호 18-R15-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8-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Ⅰ : 질적 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 윤철경·서정아·유성렬·이동훈 (자체번호 18-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8-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 조아미·임정아·이지연·김남은 (자체번호 18-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9-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Ⅰ : 청년 니트(NEET) / 김기현·배상률·성재민 (자체번호 18-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9-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Ⅰ : 청년 니트(NEET) - 해외사례 조사 / 채창균·양정승·김민경·송선혜 (자체번호 18-R17-1)

수시과제

- 18-R18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 김정숙·연보라
- 18-R19 청소년우대정책 현황 및 해외사례 분석 연구 / 김경준·모상현·송태진
- 18-R20 경찰의 가정 밖 청소년 보호조치 개선 방안 :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김지연·김희진
- 18-R21 학교폭력 피·가해학생간 효율적 화해·분쟁조정을 위한 연구 / 이경상·김승혜
- 18-R22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도화 방안 / 유민상
- 18-R23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연구 / 최창욱·김기현·김인규
- 18-R24 청소년 통일외식 및 북한에 대한 이미지 조사 / 이창호
- 18-R25 청소년의 장래 및 유학외식에 관한 조사 / 이창호

수탁과제

- 18-R26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성과분석 / 김이성·오해섭·윤철경·정윤미
- 18-R27 2018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모상현·정은주·이유진
- 18-R28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보호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 / 서정아·박선영
- 18-R29 제3차청소년보호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연·백혜정
- 18-R30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윤철경·최인재·김승경·김성은
- 18-R31 성남시청소년재단 제3차중장기 발전계획(2019~2023) 수립 연구 / 최창욱·성은모·남화성·이선근·정은옥·장미희·김미영
- 18-R31-1 2018 성남시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 최창욱·성은모·남화성·이선근·정은옥·장미희·김미영
- 18-R32 이주배경 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중국 출신 청소년을 중심으로 / 배상률·이경상·임지연
- 18-R33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8 / 김희진·황진구·임희진·정윤미·정선옥
- 18-R34 2018 청소년수련시설 유형 개편 및 기능 개선을 위한 연구 / 최창욱·장근영
- 18-R35 2018년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 조사 / 김지경·정은진·연보라·정윤미·유설희
- 18-R35-1 2018년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 조사 - 통계결과표 / 김지경·정은진·연보라·정윤미·유설희
- 18-R36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심사원 직무분석 및 운용 개선방안 연구 / 김형주·김정주
- 18-R37 내일이룸학교 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 김기현·김대성
- 18-R38 직업계고 창업교육 운영 모형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 18-R38-1 직업계고 창업교육 운영 가이드북 / 강경균
- 18-R39 대구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최용환·박윤수·김기영
- 18-R39-1 대구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요약본 / 최용환·박윤수·김기영
- 18-R40 201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양계민
- 18-R41 지역사회 협력망 운영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개발연구 / 이윤주·오해섭·백승주·성지은·강지원·탁현우
- 18-R42 청소년의회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이윤주·오해섭·유설희
- 18-R42-1 청소년의회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청소년의회 교육과정 / 이윤주·오해섭·유설희
- 18-R42-2 청소년의회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청소년의회 가이드북 / 이윤주·오해섭·유설희
- 18-R43 아동·청소년의 적정 등급 게임물 이용을 위한 기초연구 / 배상률
- 18-R44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연구 / 김기현·이윤주·최정원·유설희
- 18-R45 입법 상 연령 기준과 정책 연계성을 확보를 위한 연구 / 김기현·하형석·유민상·조성호
- 18-R46 금천구 청년정책 연구 / 이윤주·문호영
- 18-R47 청소년 비행예방 및 위기청소년 지원 종합대책 연구 / 김지연
- 18-R48 미래인개발과 교육혁신 / 장근영

- 18-R49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Ⅱ - 소년원생의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및 평가 / 김정숙·황여정
- 18-R50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 연구(중등용) / 황세영·한지형
- 18-R50-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 꿈지락(중등용) / 황세영·한지형
- 18-R5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인증기준 및 성과평가 방안 연구 / 김성기·정제영
- 18-R52 2018년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사업 모니터링 I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교 및 기관 모니터링 결과 / 김소영·오해섭·윤철경·임하린·윤혜지
- 18-R53 2018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실태조사 연구 / 박지영·서보람·윤철경·양수빈·이지혜
- 18-R54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 방안 연구 / 이종태·박상진·하태욱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8-S01 청소년 범죄의 이해와 대응방안(4/4)
- 18-S02 2018 제1차 WARDY 세미나 - Korean American Identity & the LA Riots (1/22)
- 18-S03 2018 제2차 WARDY 세미나 - 재외동포청소년 한민족정체성 함양을 위한 한국어교육 현황과 발전 방안(1/23)
- 18-S04 제1차 NYPI Lunch Bag Seminar - National Youth policy as practiced in helping nigerian youth to move forward(1/29)
- 18-S05 제3차 WARDY 세미나 - 인터넷시대의 부모와 자녀관계 및 건강실태(3/5)
- 18-S06 제2회 청소년정책포럼 : 아동·청소년·청년의 연령개념을 둘러싼 쟁점과 향후 정책과제 (2/28)
- 18-S07 제3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 사회참여,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3/16)
- 18-S08 제4회 청소년정책포럼 : 저출산 시대,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청소년정책의 과제 (4/20)
- 18-S09 제2차 NYPI Lunch Bag Seminar - Digital disturbances in school : Experiences with restrictions on students use of mobile phones(5/4)
- 18-S10 대안학교(특성화 중·고 및 각종학교) 관리자 및 담당교원 연수(5/18)
- 18-S11 제5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토크콘서트(5/25)
- 18-S12 2018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안)(5/23)
- 18-S13 Inclusive Korea 2018 국가 미래비전 설정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특별세션] 미래 세대가 꿈꾸는 대한민국(5/24)
- 18-S14 2018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교/지원기관 모니터링 워크숍(6/5)
- 18-S15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을 위한 1차 워크숍(6/1)

- 18-S16 2018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정체성 및 정책 발전 방향(6/15)
- 18-S17 제6회 청소년정책포럼 :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업사회공헌활동 '기업-청소년NPO-학교-정부의 다자간 협력방안 모색'(6/15)
- 18-S18 제4차 WARDY 세미나 - 몽골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투표의향(6/18)
- 18-S19 2018년 시도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업무 담당자 워크숍(7/5~6)
- 18-S20 학교폭력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집필진 워크숍(6/29)
- 18-S2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 29주년 세미나 :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성장지원 어떻게 할까요?(7/18)
- 18-S22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8/3)
- 18-S23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신규 담당자 연수(초등)(8/1)
- 18-S24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신규 담당자 연수(중등)(8/2)
- 18-S25 제7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 통일외식 함양 및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8/17)
- 18-S26 제8회 청소년정책포럼 : 해외의 소년 범죄 대응 전략과 시사점(8/24)
- 18-S27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업무담당자 워크숍(9/7)
- 18-S28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학교 워크숍(초등)(9/28~29)
- 18-S29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학교 워크숍(중등)(10/5~6)
- 18-S30 2018년 교육과정기반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활용방안 교사연수(10/1~2)
- 18-S31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워크숍(10/2)
- 18-S32 제9회 청소년정책포럼 : 4차 산업혁명시대, 청소년활동정책의 길찾기(9/28)
- 18-S33 제10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수련시설 유형개편 및 기능개선 방향(11/16)
- 18-S34 제11회 청소년정책포럼 : 「2018 포용사회 조성을 위한 진로교육활성화 포럼」(11/19)
- 18-S35 제12회 청소년정책포럼 : 미래 한국사회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과 모색(12/12)
- 18-S36 2018 학업중단예방 국제포럼 - 학업중단예방의 국제적 동향과 전망 : 학교 안과 밖의 소통과 연계(11/26)
- 18-S37 지역사회 협력망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모델 개발(12/10)
- 18-S38 국회 정책 토론회 : 교육의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안교육제도 개선 방안(12/18)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1호(통권 제8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2호(통권 제89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3호(통권 제9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4호(통권 제91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5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사례조사 및 특성화 요인 분석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6호 :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7호 :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8호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 II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9호 :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0호 :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1호 :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2호 : 학교폭력 피·가해학생간 효율적 화해·분쟁조정을 위한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3호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4호 :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도화 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5호 : 청소년의 통일 의식 및 북한에 대한 이미지 조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6호 : 단 1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포용적 교육사회를 실현하려면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7호 : 청소년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국내외 정책 현황 및 시사점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8호 :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 III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9호 : 아동·청소년·가족 보호 통합게이트웨이 구축·운영 모형 개발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0호 : 청소년의 장래 및 유학의식에 관한 조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1호 :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2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2018: 추진 현황 및 정책 기여
- NYPI Bluenote 통계 39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V
- NYPI Bluenote 통계 40호 : 다문화청소년 발달 추이 분석-일반청소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NYPI Bluenote 통계 41호 : 20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NYPI Bluenote 통계 42호 : 2017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NYPI Bluenote 통계 43호 :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조사
- NYPI Bluenote 통계 44호 : 제2차 국제 시민성 및 시민의식연구(ICC S 2016) 결과
- NYPI Bluenote 통계 45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유지조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3
연구보고 18-R15-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V: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분석

인 쇄 2018년 12월 23일
발 행 2018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신진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216-2 94330
979-11-5654-213-1 (세트)



연구보고 18-R15-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Ⅴ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분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9 791156 542162

ISBN 979-11-5654-216-2
ISBN 979-11-5654-213-1 (세트)